전도가 양양한 나라

평 양 출 판 사
주체109(2020)년

책을 내면서

한편의 노래가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하늘에 닿은 억센 기상으로 약동하며 젊음으로 비약하는 공화국의 장한 모습을 숭엄하고도 열정적인 선률에 담아 칭송한 노래 《우리의 국기》는 오늘도 전체 조선인민의 가슴가슴을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
한없는 긍지가 끓어 가슴펴고 노래하네
국기는 우리의 영광 영원한 우리 미래
이 땅의 넋과 기상이 살아숨쉬는 기폭에
찬란히 새겨진 그 별은 승리로 빛발치여라
…

견인불발의 애국투쟁이 과감히 벌어지고있는 조국땅 그

어디서나 광범한 지지와 열렬한 공감속에 널리 불리워지고 있는 시대의 명곡은 자기 국가의 륭성발전과 영원무궁을 확신하는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에 기초한것이다.

지구상 가장 가혹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있는 나라의 인민이 성공과 승리를 락관한다는것은 사실상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자주,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가고있는 공화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기 위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최대로 높이고있다. 우리 국가와 인민의 생존과 발전을 엄중히 침해하는 가장 철저한 경제기술적 봉쇄와 전체 조선민족을 핵참화의 불도가니속에 몰아넣으려는 로골적인 군사적적대행위, 공화국에 대한 무혈정복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음흉한 심리모략전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변질타락에로 유도하기 위한 끈질긴 사상문화적 침투에 이르기까지 적대세력들에 의해 감행되고있는 반공화국고립압살공세는 그 악랄성과 비렬성, 포괄범위와 강도, 지속기간 등의 모든 면에 있어서 실로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것이다.

그러나 공화국은 남들 같으면 얼마 지탱해내지도 못하고 열백번은 더 주저앉고말았을 전대미문의 가혹한 시련

을 수십여년간이나 꿋꿋이 견디여냈을뿐아니라 자기가 정한 발전궤도를 따라 멈춤없이 전진 또 전진해나가고있다. 거세차게 불어오는 모진 풍파를 산산이 쳐갈기며 원대한 포부를 현실로 펼쳐가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매일매 시각 페부로 절감하는 인민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의 공민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그 양양한 전도에 대한 드팀없는 확신이다.

무릇 전도가 양양하다고 함은 앞으로 전진해가는 로정 또는 그 로정을 통해서 맞이하게 될 앞날이 희망차고 전망이 크다는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공화국의 전도가 양양하다는것은 과학적인 사회주의로서 조선의 국가정치체제가 비할바없이 우월하고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이 공고하며 바로 그것으로 해서 공화국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며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인민의 락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최고의 리상과 목표 또한 그 실현전망이 무한히 넓고 확정적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전도가 양양한 나라!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드놀지 않는 신념으로 간직된 자

기 국가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은 결코 그 어떤 주관이나 추상이 아니라 타당성과 생활적바탕을 가진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이다.

현 세계에서 국가다운 진면모에 있어서나 그 양양한 전도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을 견줄만 한 나라는 찾아볼수 없다.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과제들을 훌륭히 해결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이다. 지구상에는 수백을 헤아리는 나라들이 있지만 사회주의조선과 같이 국가정치전반에 자주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력력히 맥동치고 온 사회가 혼연일체를 이룬 나라, 인민을 가장 신성시하고 그를 위해 멸사복무하는것이 국풍으로 되고있는 나라를 력사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한 기적의 나라, 계승성이 확고한 나라는 이 세상에 오직 사회주의조선뿐이다.

철저한 자주성, 사상과 행동의 일치성, 숭고한 인민성, 확고한 자립성, 일관한 계승성은 그 누구도 가질수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오직 공화국에만 고유한것으로서 세계가 알수 없는 주체조선의 신비한 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독자적인 로선과 원칙을 가지고 사소한 편차나 흔들림도 없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사상과 행동의 일치를 이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하여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며 자체의 강력한 힘으로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일관한 계승성을 견지하여 먼 앞날까지 담보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위력한 만년지계의 국가발전전략이라는것이 최악의 조건에서도 언제나 최상의 성과만을 이룩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이 확증하는 진리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은 자기 국가의 승리와 성공을 굳게 확신하고있으며 성스러운 위업의 완성을 위한 길에 모든 지혜와 열정 지어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조선을 강대하고 존엄높은 위대한 나라로 끝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국가건설의 만년재보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마련되였으며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아래 빛나게 계승발전되여나가고있다.

창창한 래일을 내다보며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과 그 빛나는 미래를 이 한권의 책에 모두 담는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미흡하지만 이 도서를 통해 공화국의 강용한 기상과 불패의 힘의 원천에 대하여, 바로 그것으로 해서 력사의 험난한 풍파속에서도 끄떡없고 당당한 사회주의조선의 밝은 전도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다소나마 전해지게 되기를 기대하는바이다.

편 집 부

차 례

1. 정의의 시대를 선도하는 자주의 나라 …… 9
자주로 빛나는 승리의 력사 …… 10
누리에 존엄떨치는 자주의 강국 …… 23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 36

2. 세상에 둘도 없는 일심단결의 나라 …… 47
국가존립의 초석 …… 48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적힘 …… 60
일심의 대오는 굳건하다 …… 70

3.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 84
인민을 가장 신성한 존재로 …… 85
인민 또 인민 …… 96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 106
사랑과 열정으로 미래를 …… 114

4. 자력자강으로 전진하는 나라 ····· 126
자립경제의 위력으로 ····· 127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앞세우고 ····· 140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 152
늘어나는 우리의것 ····· 165

5.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 178
불패의 위용떨치는 자위의 성새 ····· 179
평화와 번영의 보검 ····· 192

6. 계승성이 확고한 나라 ····· 205
대대로 누리는 수령복 ····· 206
위대한 전통, 빛나는 계승 ····· 219
영웅청년과 조선의 래일 ····· 231

람홍색 그 빛은 누리를 뒤덮으리라 ····· 245

1. 정의의 시대를 선도하는 자주의 나라

공화국의 력사는 자주로 개척되고 자주의 기치높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해온 자주의 력사이다.

자주는 오랜 세월 세기적락후와 빈궁속에서 사대와 망국의 수난을 겪으며 약소민족의 불행한 처지를 통탄하던 우리 인민을 자기의 앞길을 제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존엄높은 인민으로,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으며 부강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오늘의 성스러운 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하고있다.

자주는 달리될수 없는 조선의 영원한 선택, 빛나는 승리와 영광을 조국청사에 아로새겨가는 공화국의 불변의 진로이다.

자주로 빛나는 승리의 력사

오늘 사회주의조선은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용진 또 용진하는 성스러운 행로우에 거창한 기적과 전변의 자욱자욱을 아로새기고있다.

승리와 영광의 이 시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시작과 더불어 장엄히 밝아온 위대한 **김정은**시대는 인류정치사에 전무후무한 미증유의 시대인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있으며 조선을 주시하는 세계의 이목은 놀라움과 경탄, 부러움으로 충만되여있다. 사회주의조선이 장기적인 가혹한 환경속에서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거두고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것이 세인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길을 불변한 발전의 침로로 내세워주시였으며 바로 여기에 주체조선의 영원한 생명력과 무진막강한 위력, 창창한 전도가 있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자주를 조선혁명의 생명으로, 국가건설의 근본초석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실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의 천명으로서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 강국의 리상과 포부를 실현하시려는 웅대한 전략적로선의 제시이기도 하였다.

자주로 개척되고 자주의 기치높이 승리떨쳐온 주체조선의 자랑찬 발전로정을 함축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주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에서 중핵을 이룹니다.》

정치는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분야로서 정치에서의 자주를 떠나 어떠한 자주성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사상에서의 주체도 무엇보다 정치에서의 자주에서 표현되며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도 정치에서의 자주에 의하여 담보된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여야 참다운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설사 정권은 있다고 해도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남의 지휘봉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라는 사실상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으며 국가의 전도에 대해서도 담보할수 없다. 자주야말로 현대정치의 생명선이다.

사회주의조선의 력사는 자주로 일관되여있다. 자주는 천겹만겹의 중첩되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오직 백승의 한길로 줄

기차게 전진해온 조선혁명의 전 로정을 관통하고있으며 세계가 공인하는 우리 공화국의 문패이다. 자주를 떠나 온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리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력사를 거슬러보면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민족해방투쟁이나 새 사회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그 첫걸음부터 자주적인 결단과 독자적인 로선이 없이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었던 전인미답의 길이였다. 력사발전의 정상적인 단계를 거치지 못한채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우리 나라의 형편은 식민지반봉건사회의 특수한 사회경제적조건 및 계급관계로 말미암아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하였다. 선행고전의 어느 갈피에도 조선의 실정에 부합되는 그 어떤 리론이나 경험도 없었다.

게다가 1920년대 우리 나라 혁명운동의 실태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해방이라는 시대적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던 초기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화할 대신 대중과 동떨어져 령도권쟁탈과 말공부만 일삼고있었으며 대중을 단결시킨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벌싸움으로 분렬시켰다. 또한 이들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여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하였으며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구체적현실을 외면하고 기성리론과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고 하였다.

일찌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비범한 통찰력으로 우리나라 혁명운동에서 나타나고있던 심각한 문제점들을 꿰뚫어보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 그리고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발견하시였으며 그를 출발점으로 하여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20세기 력사의 흐름을 인민대중이 지배와 굴종, 예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시대로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으며 력사상 첫 자주의 강국을 탄생시킨 위대한 시대사상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의 심원한 원리는 주체위업의 려명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력사적기간에 관통되여있으면서 전체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워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고 그에 의거하여 언제나 빛나는 승리만을 떨칠수 있게 한 불멸의 기치로 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을 뒤흔들며 높이 울려퍼진 항일의 총성은 자주적인 무장투쟁로선이 낳은 결실이였다. 국가적후방

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었던 그처럼 엄혹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동양의 맹주》라 자처하던 제국주의신흥군사강국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은것도 자력독립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전인민적인 결사항전을 과감히 전개하였기때문이다.

지난 세기 40년대 중엽은 조선의 운명과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였다. 당시 렬강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으로 식민지에서 벗어난 아시아의 약소국들이 강대국의 후원밑에 《민주적제도속에서 교육》되여야 하며 조선사람에게는 《완전한 독립을 얻기 전에 약 40년간의 수습기간》이 필요할것이라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바로 이러한 시기 수천년의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길을 밝힌 방략이 명시되였다.

우리는 될수록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일떠세우려고 한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는 력대적으로 사대주의가 망국의 근원으로 존재해왔다. 새 조국을 건설할 때는 사대주의로 인한 피폐가 절대로 없게 하자는것이 우리의 결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새 조선건설의 근본원칙을 뚜렷이 밝힌 불멸의 대강이였다.

견결한 자주의 원칙과 신념으로 신생조선은 남들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저마끔 대국들의 처마밑에 들어서던 해방직

후의 착잡한 정세하에서 자주, 련합, 자유, 부강, 혁명, 평화로 특징지어지는 조선식민주주의, 진보적민주주의를 자기의 정치로선으로 채택하였으며 자주독립국가의 현실적담보인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도 새 조국건설의 열의로 앙양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

자주는 우리 조국을 존엄높은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세운 기적의 원동력이다.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여 재가루만 흩날리던 전후시기 대국주의자들의 횡포한 간섭과 압력, 그에 편승한 반당종파분자들의 도전은 매우 엄중하였다. 게다가 미국과 그 앞잡이들의 《북진》소동으로 말미암아 안팎의 정세는 극도로 첨예하였다.

이처럼 험난한 국면에서도 공화국은 인민의 절실한 요구와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독자적인 정치강령과 로선들을 채택하고 그를 일관하게 관철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 4월테제로 아로새겨진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와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사대와 교조를 철저히 배격하고 창조

와 건설의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사회주의건설강령이였다.

경제분야에서도 기회주의자들의 《통합경제》, 《국제분업》 로선을 단호히 배격하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농업협동화방침 그리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비롯한 독창적인 전략적로선과 방침들을 련이어 제시하고 자력갱생의 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완강히 실천함으로써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천리마의 속도로 남들이 걸은 수백년을 단 14년으로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당시 공화국의 한 신문은 《말그대로 빈터였던 이 나라에 력사상 처음으로 강력한 기계공업, 발전된 경공업기지를 창설한것은 불과 몇해만이였던가. 아무리 세여보아도 겨우 여섯손가락안팎이다. 기와장 하나 성한것이 없던 곳에 현대적 대도시, 평양을 불과 7년만에 건설한 조선, …2 000년간에 해놓은것보다 여섯배나 더 많은 관개면적이 불과 다섯달사이에 불어났다. 평양국제호텔에서 한주일간 묵어간 일본의 한 기자는 그 맞은켠에서 솟아오르는 6층아빠트를 하루 한층씩 사진찍어가다가 떠나가는 날에는 조립이 끝난 마지막층을 찍어가지고 귀국하였다.》라는 기사를 실어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과 투쟁모습을 소리높이 전하였다.

프랑스의 한 저명한 기자는 조선인민의 자력갱생과 불굴의 투쟁에 감동되여 《이 세상에 기적이라고 할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사조마냥 재더미속에서 소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조선의 복구와 건설일것이다.》라고 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거창한 변혁의 력사속에서 공화국은 조상대대로 물려온 세기적락후와 빈궁을 털어버리고 자주, 자립, 자위의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조선인민은 창조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가는 자주적인 인민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기적을 낳는 힘있는 인민으로 성장하였다.

자주의 길은 누구나 선택하고 갈수 있는 탄탄대로가 아니다. 자주적으로 사는것이 정의롭고 보람있는 길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리치이지만 많은 나라들이 큰 나라에 의존하는것은 간고한 시련의 고비를 이겨낼수 없기때문이다.

지난 세기 동유럽나라 사람들속에서 류행되였던 하나의 유모아가 있다.

동유럽의 어느 나라 수반이 대국의 수반으로부터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다. 뜻밖의 선물을 받고 무척 기뻐하면서 자동차를 살펴보던 그는 순간 의아해졌다. 자동차라면 응당 있어야 할 운전대가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그래서 자동차에 운

전대가 왜 없는가고 물었더니 대국의 수반은 자동차의 앞에 달린 갈구리를 보았는가, 그 갈구리에 바줄을 매서 련결시키고 당신은 편안히 앉아있으라, 내가 앞차를 몰고 가겠으니 당신은 그저 끌려오면 된다고 말하였다.

운전대없는 자동차, 운전사가 없는 차는 견인차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 자기가 목적한 곳은 어디이든간에 진창이면 진창, 벼랑이면 벼랑 남이 끄는대로 따라다녀야만 하는 그런 자동차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것이다.

사회주의의 련쇄적붕괴라는 20세기말의 비극적사태는 이것을 현실로 증명해보였다. 자주의 원칙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순간도 놓지 말고 굳세게 틀어잡아야 할 운전대이다. 이것을 놓치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망쳐먹게 된다는것이 력사가 남긴 교훈이다.

사회주의조선은 창조와 건설의 전 행정에서 항상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소한 실패와 좌절도 없이 승승장구만을 거듭해올수 있었다.

장장 수십여성상을 헤아리는 공화국의 력사에는 운명적인 선택의 고비들이 적지 않았다.

자주적대를 지키느냐, 또 다른 굴종과 예속의 멍에를 쓰느냐.

그때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조선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추호의 양보도 몰랐다.

만약 눈보라 사나운 만주벌판에서 조국해방의 사명을 망각하고 남들처럼 열하원정의 길에 올랐더라면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되였을것인가. 눈앞의 어려움과 귀맛좋은 유혹에 빠져 쎄브에 명줄을 걸었더라면 사회주의의 운명은 또 어찌될번하였는가.

력사와 현실은 조선이 택한 자주의 길이 언제나 천만번 정당한것이였음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지난 세기 90년대는 공화국에 있어서 가장 준엄한 고난의 시기였다.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되는 피눈물의 대국상을 당한 조선인민에게 설상가상으로 세계사회주의시장의 붕괴와 몇해째 년년이 겹쳐든 자연재해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 식량난이 덮쳐들었다. 이를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사회주의도 빠르면 석달, 늦어서 3년안으로 끝장날것이라고 어리석게 망상하면서 공화국에 대한 정치외교적압력과 군사적위협공갈, 경제적봉쇄의 도수를 부쩍 높였고 진보적인류는 조선의 앞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세계의 예측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자주의 터전에 억세게 뿌리박은 세상에 둘도 없는 주체의 사회주의는 살아남는것 그자체도 기적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고난과 시련을 강행돌파하고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새 세기 산업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최첨단을 지향하는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섬으로써 사회주의강국에로 도약할수 있는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닦아놓았다.

만일 공화국도 남들처럼 큰 나라의 등에 업히워 국가를 창건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주체의 사회주의는 이 세상에 태여나지도 못했을것이며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함께 조선이라는 국호도 벌써 오래전에 빛을 잃고말았을것이다. 비록 가는 앞길에 미증유의 시련이 가로놓여있다 해도 남의 의사와 처방을 따르지 않고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내다보며 자기의 주견과 독자적인 발전방식을 확고히 견지하여온데 사회주의조선이 끊임없이 전진발전해나가는 근본비결이 있으며 조선인민이 간직하고있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사대와 교조, 지배주의가 만연되던 지난 세기에 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그 결단도 참으로 담대한것이지만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살판치는 엄혹한 환경속에서 시종일관 자주적대를 굽힘없이 창조와 건설을 배심있게 떠밀어온 공화국의 현실은 현대정치사에 특기할 기적이다.

자주의 성새로 거연히 솟아 빛나는 현대조선의 력사는 불굴의 담력과 기상, 가장 정확한 령도력으로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존함과 잇닿아있다.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요충지에 위치한것으로 하여 대국들간의 리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여온 조선반도에서 오래동안 신조처럼 간주되여온 뿌리깊은 사대와 교조는 자주의 출현을 억제하는 화근이였다.

장구한 세월 이 땅을 유령처럼 배회하며 조선민족의 정기를 어지럽히고 그 전도를 암울하게 하던 사대와 교조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히 끝장나게 되였다.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혁명신조였고 혁명방식이였으며 혁명실천이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그것을 실현하자면 사대와 교조를 배격하고 창조와 건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철리를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

그이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모든 문제를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시였다. 자주의 원칙을 일관하게 확고히 틀어쥐고 건당, 건국, 건군의 대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전후복구건설,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였으며 다른 나라 당, 국가들과의 관계도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발전시키시여 공화

국의 대외적권위와 존엄을 높이 떨치고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그대로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자주시대의 사상리론적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시였으며 자주로 존엄높은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슨 문제를 하나 대하시여도 기성리론이나 경험에 대한 기계적인 모방과 교조적인 태도를 허용하지 않고 철저히 독창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시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도 없었던 선군이라는 새로운 시대어가 태여나고 그것이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조국의 운명과 미래를 수호한 필승의 보검으로 빛을 뿌릴수 있은것도 모든것을 인민의 의사와 요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적인 신념과 의지, 담대한 결단과 실천력이 있었기때문이다.

정녕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절세의 위인상의 뚜렷한 상징으로, 성스러운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대어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신조이며 실천방식인 자주, 여기에는 이 세상 그 어느 명인도 견주지 못할 투철한 주체의 신념과 의지가 있고 가장 열렬한 애국, 애족, 애민이 있으며 자주의 새시대를 앞장에서 개척하시고 조국과 민족앞에, 인류

의 자주위업실현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들의 거룩한 혁명생애가 응축되여있다.

자주는 인간이 자신을 깨닫게 하는 운명의 횃불이고 창조와 건설의 비약을 일으키는 거대한 동력이며 위대한 나라, 위대한 인민을 낳는 기적과 변혁의 대명사이다.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아래 자주의 횃불을 높이 추켜들고 식민지약소국으로부터 일약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일떠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100년사는 자주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목숨처럼 여기는 나라는 지구의 어느곳에 있든 그 어떤 시련과 도전에 부닥치든 자기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갈수 있다는 진리를 세계앞에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누리에 존엄떨치는 자주의 강국

세계는 오늘도 쉬임없이 길을 찾고있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편견으로 세계를 좌우지하려는 렬강들의 강권과 전횡으로 말미암아 국제관계가 지배와 예속, 억압과 굴종의 관계로 압축되여 명백한 정치지형도를 그리고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자존을 지키고 발전을 도모해나가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세기와 세대를 이어 오늘도 자주강국의 위상을 만천하에 떨쳐가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의 모습은 이 물음에 주는 가장

완벽한 대답으로 되고있다.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제 마음대로 롱락하는 제국주의의 행태가 그 어느때보다 로골화되고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공화국과 같이 자주적대가 강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자력으로 담보해나가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누구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자주의 강국,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불패의 보루로 위용떨치고있다.》

《령토의 크기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작은 나라인 조선이 세계정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은 보통의 상식으로써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조선은 확고히 세계정치의 중심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최근년간 지구를 뒤흔든 조선의 주동적이고 결단성있는 조치들은 이 나라야말로 그 누구도 굴복시킬수 없는 자주적대가 강한 나라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난관이 중첩되는 조건에서도 조선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강대국으로서 세계의 자주력량을 선도해나가고있다는것은 리해하기 힘든 신비가 아닐수 없다.》

…

세계도처에서 무수히 울려나오는 격찬과 선망의 목소리들은 극적으로 변화된 조선의 전략적지위와 종합적국력에 대한

뚜렷한 반증으로 된다.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이 경이적인 현실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공화국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자주의 로선과 정책이 안아온 력사의 필연이다.

공화국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 들어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8년간은 대단히 강도높은 투쟁과 파감한 전진의 련속이였다. 자주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은 항상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전진하여왔지만 정의와 부정의간의 투쟁이 그처럼 심각하게 벌어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의 생사존망이 판가리되는 중대하고도 운명적인 고비들마다에서 공화국은 언제나 주저없이 자주와 존엄의 길을 택하였다.

공화국의 자주적신념과 배짱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것은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방해와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평화적우주개발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오늘 공화국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명성을 높이 떨치고있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로부터 《광명성-4》호에 이르는 여러차례의 위성발사들을 성과적으로 단행하였으며 2016년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

기지상분출시험에서 성공을 거둔 사실이 보여주듯이 세계적인 위성운반능력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수 있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적토대를 가지고있다. 특히 첫 위성발사에서 단번성공이라는 신화적인 기록을 창조하였을뿐아니라 첨단과학기술의 종합체인 인공지구위성을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제작하고 그 발사도 자기 땅에서 자체의 힘으로 진행하는 나라라는 사실은 조선의 높은 우주개발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이 눈부신 성과는 순탄한 환경속에서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인공지구위성은 해당 나라 종합적국력의 힘있는 과시로 될뿐아니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주개발사업에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경쟁적으로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리고있다. 국가의 존엄과 민족의 슬기를 떨치고 경제기술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우주개발사업은 필수적인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의 인공지구위성발사만을 한사코 반대하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평화적우주개발사업은 첫걸음부터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공화국에 있어서 우주정복의 길이 단순히 경제기술사업이기 전에 혁명의 길, 자주의 길로 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적대세력들은 인공지구위성개발관련 기술 및 설비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것으로써 조선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약화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는 한편 공화국의 위성발사의지를 꺾어보려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공화국에서 인공지구위성발사가 박두할 때에는 무턱대고 《장거리미싸일시험발사》라고 우겨대면서 최신정탐장비들을 동원하여 정보자료들을 수집한다, 이지스함선들을 배치하여 《요격》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복닥소동을 피웠는가 하면 성공적인 위성발사이후에는 유엔을 내세워 보다 강도높은 《제재결의》들을 계속 조작해내군 하였다.

이러한 사태앞에서 적지 않은 나라들이 조선이 위성발사를 중지하라는 서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좋지 못한 후과가 차례질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였고 일부 나라들은 작은 나라가 위성을 발사하는데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였다.

하지만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평화적우주리용권리를 누구도 빼앗을수 없으며 국가의 존엄과 민족의 장래운명이 달려있는 우주개발사업을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공화국이 아니였다. 시련의 역풍을 박차며 만리대공으로 치달아오른 《광명성》들은 광활한 우주만리에 존엄높은 조선의 국호를 찬연히 아로새겼다.

만일 외세의 압력과 위협에 못 견뎌 굴종과 타협의 길을 택했더라면 우주정복은 한날 봄날의 꿈으로만 남아있었을것

이다. 자주의 억센 신념과 의지가 있었기에 공화국은 불과 20년도 안되는 기간에 청소한 우주개발국으로부터 우주강국에로 눈부시게 도약할수 있었다.

비록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고 형언할수 없는 위험이 드리운 길이지만 자주적신념과 배짱으로 톺아오른 령마루에서 맞이하는 영광은 이처럼 값높고 눈부시다. 공화국의 현실은 자주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가장 높이 떨칠수 있게 하는 근본비결이고 원동력임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인류가 동경하여마지 않는 자주의 길, 이 길은 바란다고 하여 누구나 쉽게 갈수 있는 길이 아니다. 반동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압력을 일격에 제압할수 있는 막강한 물리적힘을 갖추어야 하며 그러자면 자주적대가 강해야 한다.

오늘날 자주는 곧 군력을 의미하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번영을 위한 결단은 말이 아니라 강력한 총대로 담보되여야 한다. 힘이 안받침되지 못한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요구는 애달픈 하소연이나 넉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강한 군사력이 없이는 그 어떤 나라도 복잡다단한 국제정치무대에서 자기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고 종당에는 파국의 운명에 처하게 되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라크와 리비아의 실태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이 나라들은 지난 시기 풍부한 자연부원을 바탕으로 하여 군사력강화에 힘을 넣음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

사하였었다. 그러나 세계제패를 꿈꾸며 새로운 강국의 출현을 억제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집단적인 경제제재와 군사적위협공갈, 회유기만술책에 못이겨 전쟁억제력을 제스스로 허물어버리는 머저리짓을 한 결과 이라크와 리비아는 류혈적인 동란과 민족적참화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오늘도 그 후과로 인한 사회적침체와 위기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있다.

공화국에 가해지고있는 각 방면에 걸친 장기간의 제재와 압박은 이 나라들에 비할바없이 혹독하고도 위험천만한 격난이였다. 그러나 조선은 전대미문의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굽힘없는 자주적대를 세계앞에 과시하며 충격적인 특대사변들을 터쳐올렸다.

무진막강한 전쟁억제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온 한해동안 민족의 숙원을 가슴후련히 풀어주는 대경사의 날들을 련이어 맞이한 조선인민은 이해 11월 29일 마침내 최강의 국가방위력, 막강한 자위적억제력을 갖추는 반만년민족사의 특대사변을 안아올렸다. 어둠의 장막을 헤가르며 만리대공에 아득히 솟구쳐오른 위력한 전략무기의 장쾌한 불줄기는 곧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만난을 헤치고 굴함없이 전진하여온 조선인민의 승리의 길, 주체조선이 걸어온 자주의 길과 잇닿아있다.

한세기전 변변한 화승총마저 몇자루 없어 발톱까지 무장하고 포악하게 달려드는 침략자들앞에 적수공권으로 나서지 않

으면 안되였던 조선이 오늘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세계적인 렬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한 나라로 되였으며 오랜 세월 갈망해오던 평화수호의 보검을 수중에 틀어쥐게 되였다. 제국주의와의 결사적인 대결속에서 무진막강한 힘을 비축하고 평화에로 향한 정세흐름을 주도해나가는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영향력은 날로 확대강화되고있다.

오늘 사회주의조선이 지닌 최고의 존엄과 권위는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자주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자주의 넋과 기상으로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자랑찬 승리로 빛내여나가시는 현대정치가의 위대한 귀감이시다.

세계가 공인하고 칭송하여마지 않는 걸출한 정치가로서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불멸의 위인상은 그이께서 지니신 투철한 자주정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자주정신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살아나가려는 신념과 의지로 발현되는 정신으로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담보하는 정신적요인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자주정신은 한 인간의 운명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정치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적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자주정신은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정치가들, 국가지도자들

에게 있어서 더없이 중요하다. 자주정신이 투철한 정치가는 아무리 불리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남에게 구속되거나 의존함이 없이 독자적인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자체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간다. 그러나 자주정신이 결여된 정치가는 무슨 문제이든 남의 얼굴부터 먼저 쳐다보며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거나 남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치로 나라와 민족에게 치욕만을 준다.

지구상에는 지역대국, 군사대국을 자처하지만 목전의 리익만을 추구하거나 초대국의 위세앞에 전전긍긍하면서 악행에 대한 단죄의 목소리 한마디 제대로 내지 못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국가는 있어도 독자성과 자립성이 결여되여있고 덩치는 커도 자주적대가 없어 하수인으로 치욕과 곤경을 겪는 현실은 정치가들이 지니는 자주정신의 유무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강약진퇴가 결정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고계시는 투철한 자주정신은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도 따를수 없는 가장 숭고한 경지에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세워주신 자주의 나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애국의 심혼이 깃든 이 조선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만방에 떨치시려는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투철한 자주정신의 높이가 있다.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시였던 자주정신을 맥맥히 이어받아 주체조선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조선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음을 세계앞에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신 길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는것은 진리이고 법칙이며 과학이다, 이 길을 떠나는 순간에 조선의 존엄과 영예와 생명은 가치를 잃게 된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이다.

그 숭고한 넋으로 가슴 불태우시며 불면불휴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으로 새겨안으신 인민의 모습이 언제나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가장 훌륭한 인민에 대한 무한대한 사랑은 그이께서 지니신 견결한 자주정신의 원천이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중의 제일가는 사랑은 그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것이다. 힘의 론리가 횡행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무적의 힘을 마련하는것처럼 위대한 애국, 애족, 애민이 없다.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고 무시할수 없는 강국에서 살려는 인민의 세기적숙원을 실현하는 길, 국가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길은 억천만번 죽더라도 기어이 가야 할 길이기에 이른새

벽, 깊은 밤이 따로없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으신 높고 험한 령길과 풍랑사나운 바다길은 정녕 그 얼마였던가.

우리는 죽으나사나 성공시켜야 한다, 백번 실패하면 백번 다시 일어나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시며 우리의 탄도탄에는 우리 인민의 자주적존엄이 실려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형언할수 없는 고생길, 력사가 다 기록하지 못한 사선의 고비를 수없이 헤쳐넘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남모르는 헌신과 로고가 있어 조선의 국력과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위력한 주체병기들이 련이어 태여날 수 있었다.

자주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주체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투철한 자주정신은 조선로동당의 정치에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정확한 령도력을 발휘하여 조선인민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인도하고있다. 가장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여 인민대중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조선로동당의 자주정치는 자기 힘에 대한 드팀없는 확신에 기초하고있다.

자기 힘을 믿지 못하면 남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이 싹틀 뿐아니라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자신심도 가질수 없게 되는 법이다. 자주적대를 담보하는 투철한 신념과 배짱도 자기

힘에 대한 믿음에서 생겨나며 참다운 자주정치도 바로 자기 힘을 굳게 확신할 때 비로소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조선은 자기식의 발전방식을 가지고있으며 외부적인 지원이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의 앞날을 훌륭히 개척해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 열정을 가지고있다. 만약 자기의 리상과 포부가 없고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능력이 안받침되지 못하였더라면 조선은 믿음직한 안전담보력도 갖추어놓지 못했을것이며 세월을 주름잡는 비약적인 속도로 이 땅우에 펼쳐지는 거창한 전변의 새 모습과 인민이 향유하는 선진문명의 창조에 대해서도 생각조차 할수 없었을것이다.

지난해 4월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가 열리였다.

이날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를 조선혁명의 생명으로, 국가건설의 근본초석으로 하여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공화국의 어제와 오늘을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주의 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이 변함없이 견지하여야 할 국가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은 한평생 자주를 창조와 건설

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이어나갈것이며 오직 자기식, 자기 힘으로 국가와 인민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오리라는 확고부동한 의지의 선언이다.

우리 식, 우리 힘, 이것이야말로 공화국의 막강한 국력을 억척같이 떠받치고있는 기둥, 존엄의 최절정에로 힘껏 떠올려주는 지레대이며 바로 여기에 세상을 놀래우는 조선의 거대한 발전잠재력이 있고 주체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빛나는 승리가 있다.

하기에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을 위대한 주체사상, 민족자주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나라의 정치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며 경제와 국방, 문화의 모든 분야를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식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남의 식, 남의 풍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을것임을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최근년간 세계의 광범한 언론, 전문가들이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나라를 이끄신 몇해사이에 조선은 완전히 변모되였다, 그 전략적지위도 새로운 경지에 올라섰다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는 속에 전례없는 위인칭송의 열기, **《김정은**열풍》이 행성을 세차게 진감하고있다.

《김정은위원장은 사랑의 정치를 수놓아가시는 가장 리상적인 국가지도자》, 《모든 면에서 언제나 완벽하게 성공하시

는 정치의 거장》, 《**김정은**각하는 현대정치가, 현대군사가의 예지와 지략을 완벽하게 갖춘 매혹적인 정치가》…

동서방을 물론하고 지어는 적대와 대립의 관계를 깨뜨리며 끝없이 울려나오는 칭송의 목소리들은 조선의 위대한 힘의 진정한 의미와 거대한 무게에 대한 격찬이다.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사회주의조선은 오직 자기식, 자기의 힘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도도히 전진해 나아가고있다.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비상히 높아진 주체조선의 국력과 지위는 세계정치무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펼치신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공격외교, 세계외교사상 류례없는 광폭외교에 의해 국제적인 반제전선이 공고화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지형이 공화국에 보다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이러한 정세의 흐름을 타고 지금껏 조선을 멀리하고 반목하던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대화와 관계개선의 문을 두드리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진것은 국제정치질서가 사회주의조선을 중심으로 재편되여가고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8년 9월 9일,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가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되였는데 여기에

는 세계의 78개 나라와 16개의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에서 온 수백개의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공화국에 이렇게 많은 친선사절들이 찾아오고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기는 지난 20여년간 처음 있는 일로서 이는 나날이 높아만 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상을 만천하에 과시한 또 하나의 계기로 되였다.

지난 세기 초엽, 불운의 그 세월 우리 나라의 한 시인은 망국의 처지를 통탄하며 이렇게 절규한바 있다.

…
아! 조선아
왜 너는 남과 같이 크지를 못하였느냐
굳세지를 못하였더냐
어찌하여 남의 웃음거리가 되였더냐
아아 얼마나 내가 너를 저주하였으랴
네 배에서 나온것을 저주하였으랴
…

그때로부터 한세기가 흘러간 오늘 이 땅에서는 어떤 노래가 울려퍼지고있는가.

내 나라는 땅이 넓어 큰 나라더냐
주체의 태양 빛나 위대한 나라

이 땅은 삼천리라 끝이 있어도
내 나라는 넓이로 잴수 없어라
백두장군 높이 모셔 위대한 내 나라
…

예나 지금이나 조선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국력에서는 하늘땅과도 같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매에 격멸할수 있게 준비된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은 오늘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는 힘의 균형추로 되고 있으며 막강한 힘에 바탕한 전략적지위는 세계정치정세의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있다. 조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 국제정세의 흐름이 규정되고있는 것이 부정할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 사회주의조선을 축으로 이 행성이 돌고있다!

오늘의 세계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주는데서 이보다 더 적중한 표현은 없을것이다.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던 이 행성의 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원동력, 정의의 시대를 선도하는 주체조선의 위대한 견인력은 다름아닌 자주이다.

자주! 이는 평화와 진리를 갈망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와 친선의 사절들이 사회주의조선으로 구름처럼 모여들게 하고 거만

하고 횡포한 제국주의진영을 무릎꿇게 한 불가항력의 힘이다.

현시기 부강조국건설의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화국의 모든 노력은 적대세력들의 2중, 3중의 봉쇄와 압박속에서 자주냐 굴종이냐, 자존이냐 의존이냐를 판가름하는 운명적인 문제, 자기의 리상과 포부를 기어이 실현하느냐, 중도반단하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있다. 가장 치렬한 대결을 동반하는 이 투쟁은 그 승패여하에 따라 조선민족은 물론 진보적인류의 운명과 장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으로 하여 세인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있다.

온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 주체조선의 존엄과 기상이 높이 떨쳐지고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자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갈 우리 공화국의 드팀없는 립장과 의지가 만천하에 다시금 뚜렷이 천명되였다.

주체108(2019)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것이며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면서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것입니다.》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은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자주를 불변의 침로로 정하고 언제나 곧바로만 나아갈것이며 자력으로 부흥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라는 강력한 의지에 대한 엄숙한 선포로 된다.

사회주의조선의 2019년은 절세위인의 이 투철한 신념과 의지로 힘차게 전진하여온 투쟁과 위훈의 한해였다.

적대세력들이 조선을 기어이 굴복시켜보려고 선의를 악으로 갚으며 끈질긴 회유와 파렴치한 압박을 가해올 때에도 공화국은 화려한 변신을 위해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자존과 국력을 파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다, 오직 자력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어나갈것이라는 확고부동한 결심과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천명하였으며 국가의 자주권과 인민의 권익을 옹호함에 있어서 단 한걸음의 양보도 몰랐다. 공화국은 가증되는 애로와 난관앞에서도 굴함없이 완강히 돌진함으로써 삼지연시꾸리기 2단계공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를 비롯한 대규모의 건설공사들을 성과적으로 완공한것을 비롯하여 전국도처에서 생산과 건설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였다.

기적과 창조로 들끓던 격변의 2019년도 다 저물어가던 지

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국의 강대한 힘과 막강한 지위가 세계의 정상에 올라서고 주체위업수행의 일대 도약기가 펼쳐지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열린 이 회의는 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당중앙은 조선혁명의 거창하고도 줄기찬 전진도상에 직면한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강구할 취지에서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고 하시면서 조성된 대내외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세기를 이어온 사회주의조선 대 제국주의련합세력간의 대결은 오늘에 이르러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여 명백한 대결그림을 그리고있다.

적대세력들은 날로 장성강화되고있는 공화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이 고립압살하기 위한 출로를 제재에서 찾고있으며 여기에 명줄을 걸고 필사적인 최후발악을 다하고있다. 명백한 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체제전복과 무장해제가 실현되지 않는

한 공화국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기 위한 군사정치적위협은 절대로 끝이 나지 않을것이라는것이다.

제국주의진영과의 장기적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정세는 공화국이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힘을 보다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만일 제재해제를 기다리며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적들의 반동공세는 더욱 거세여질것이며 조선의 전진을 가로막자고 덤벼들것이다. 자체의 위력을 강화하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할수록 적들은 더욱더 커다란 고민에 빠지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승리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한다고,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과제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부문별과업과 구체적인 수행방도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

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것이다.

정면돌파전은 백두의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담대한 배짱을 체질화한 공화국만이 선택할수 있는 전진방식이다.

돌이켜보면 사회주의조선이 걸어온 력사적행정은 철두철미 시련의 역풍을 맞받아 용진해온 정면돌파전의 련속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독립을 위해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제국주의강적들을 상대로 전개한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도,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대와 교조, 기회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도 그리고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한 투쟁도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쟁취하고 지켜내기 위한 사생결단의 치렬한 정면대결전이였다.

이 과정에 무수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어오면서 공화국은 단 한치의 후퇴나 탈선, 단 한번의 양보나 타협도 몰랐다. 전진하면 승리하고 물러서면 죽음이라는 력사의 교훈과 진

리를 뼈에 새기고 준엄한 시련과 도전을 정면으로 강행돌파해온데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끊임없이 솟구쳐오른 힘의 비결이 있다.

이제 또다시 지금껏 헤쳐온 모든 고난과 역풍을 초월하는 최악의 난관이 가로놓여있을지도 모를 간고하고도 장구한 길을 헤쳐가야 하는 정면돌파전이지만 그 승산은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령도력이 있고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위력과 인민대중의 불굴의 정신력이 있으며 막강한 경제적잠재력과 무궁무진한 과학기술력이 있음으로 하여 공화국은 빛나는 승리의 새 력사를 청사에 아로새기며 세기의 상상봉으로 솟구쳐오르게 될것이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는 공화국의 자주강국건설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거대한 사변으로 되였다.

창조와 건설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주체적힘을 튼튼히 다지는데 있으며 자기를 강하게 하는 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뿐이다. 이것은 최근년간 조선인민이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세기를 주름잡으며 기적적인 승리를 이룩하는 나날에 다시금 실증한 력사의 철리이다.

국력의 상승을 더없이 촉진하고 주변정치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며 적대세력들에게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주는 위력한 주체병기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날로 장성강화되는 자립적경제토대…

시대와 력사가 흐르고 그 전진속도가 가속화되는데 따라 창조와 건설의 환경과 조건은 비록 달라질수 있어도 자력으로 주체적힘을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지난날에도 그러했지만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객관적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것이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정면돌파전을 벌려 객관적요인이 자기에게 지배되게 할것이다.

조선은 힘차게 전진하고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은 여전히 집요하고 부닥치는 난관도 만만치 않다. 고생과 투쟁이 없이는 위대한 승리를 가질수 없으며 혁명의 승리는 필연적이지만 그 어떤 장애도 곤난도 없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인민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장기적인 가혹한 환경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운 강의한 인민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는것이 조선인민의 억센 신념이다.

오늘날 초대국의 요구에 엇서나가고 그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되면 물질적풍요도 누릴수 없고 지어는 나라의 존

망도 위태로울수밖에 없다는 예속적인 굴종의식이 만연하고있는 이 행성의 한복판에 우뚝 서서 악의 제국의 면상을 보기 좋게 후려갈기며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견결히 수호해나가는 조선의 강용한 기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본보기, 모범으로 되고있다. 정의의 시대를 선도하는 주체조선의 투철한 자주적립장과 투쟁경험을 본받아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기의 존엄과 주권을 지키며 참다운 민족적독립과 부강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 나라들의 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강국의 꿈은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으며 나라마다 강국건설을 지향하고있다. 주체조선의 어제와 오늘은 정치에서 자주적대를 강하게 세우고 외세의 온갖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물리치며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가 마음먹은대로, 자기의 배짱대로 내민다면 작고 뒤떨어진 나라도 능히 세계적인 강국으로 솟구쳐오를수 있음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을 세기의 령마루에 우뚝 올려세우고 조선인민을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준 만능불패의 힘의 원천—자주!

가는 앞길에 천만시련의 역풍이 휘몰아친다 해도 조선인민은 자기가 선택한 주체의 항로, 자주의 궤도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며 이 길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할것이다.

2. 세상에 둘도 없는 일심단결의 나라

일심단결은 사회주의조선의 상징이고 불가항력적힘의 원천이다.

걸출한 령도자를 단결의 중심으로 모시였으며 만민을 공감시키고 결집시키는 위대한 사상과 사랑과 믿음의 정치에 기초하고있는 조선의 일심단결은 그 누구도 가질수 없고 흉내조차 낼수 없는 가장 빛나는 성공탑이다.

그 어떤 힘으로도 당해낼수 없는 일심일체의 거대한 위력으로 우리 공화국은 가장 공고한 정치사상적통일과 고도의 사회적안정을 이룩하고 력사의 험난한 풍파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자기가 정한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고 있다.

국가존립의 초석

지금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존재하고있다. 이들의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정치방식과 사회제도 그리고 력사와 문화, 언어와 피부색 등의 여러 측면에서는 각이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누구라 할것없이 가장 중요한 국사중의 하나로 내세우고 관심하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다름아닌 단결에 관한 문제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와 그 구성원들사이의 단결과 단합에 대하여 표방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며 또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은 없다. 단결을 이룩하면 목적하는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기때문이다.

이는 인류사회의 려명기로부터 전해오는 고금동서의 진리여서 사람들사이의 단결에 관한 문제는 지금껏 적지 않게 론의되여온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들중의 하나였다.

지난 시기 많은 철학가들과 문인들이 《약한 사람도 한데 뭉치면 강하다.》, 《개별적인 인간은 버림받은 로빈슨처럼 약하다.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치면 많은것을 할수 있다.》, 《만사람이 한사람씩 전진하는것은 백사람이 함께 나서는것만 못하다.》라고 말해온것은 사회생활에서 단결과 단합을 이룩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강조한것이

라고 볼수 있다.

단결과 단합에 대한 문제를 리론적인식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의 존립과 목적달성의 실질적수단으로 보려는 시도는 이미전부터 있었다.

19세기 말엽 우리 나라에서 일어났던 갑오농민전쟁때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지휘자들은 《보국안민》, 《폐정철폐》를 위한 투쟁에 일떠설것을 호소하는 《창의문》을 발표함으로써 짧은 기간안에 력량을 급격히 확대강화하고 분산적으로 전개되던 농민폭동을 전국을 뒤흔든 대규모의 농민전쟁으로 발전시켰다. 물론 이 봉기는 옳바른 지도와 정확한 전략전술의 결여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해서 실패하였지만 단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다.

그런가 하면 근세 중국부르죠아혁명의 지도자였던 손문은 민족, 민권, 민생을 내용으로 하는 삼민주의로 인민의 력량을 궐기시켜 수천년동안 존속해온 봉건군주제도를 청산하고 공화제를 수립하였으며 그후 신삼민주의를 내놓아 인민단결에 관한 사상에서 일정한 진보를 가져왔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학설은 혁명적단결에 관한 사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19세기 40년대에 발표된 《공산당선언》에서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내놓았다. 이 구호가 제기되면서부터 로동계급은 국제주의적단결의 기치

밑에 자기의 계급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맑스-레닌주의가 계급적단결의 리념을 제기한이래 그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위력한 무기로 되였다.

단결에 관한 문제는 이렇듯 오래동안 론의되고 정치실천에 구현되여왔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이를 첫째가는 정치적무기로 내세우지는 못하였을뿐아니라 단결과 단합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방도에 대하여서는 제기조차 하지 못하였다.

단결과 단합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량적집합이 아니다. 더더구나 강압적인 방법이나 금전의 힘으로써는 그 어떤 진정한 화합이나 안정도 이룰수 없다는것은 력사와 현실이 잘 보여주고있다.

단결과 단합이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자면 단결의 구심점, 중심이 있어야 하고 만민이 공감할수 있는 사상이 있어야 하며 그의 유기적결합을 담보하는 참다운 사랑과 믿음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력사무대에 무수히 출몰하여 리합집산을 거듭하였던 종래의 협소한 결집, 일시적인 집합체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참다운 단결, 일심단결이다.

주체80(1991)년 6월 5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메히꼬출판회사 위원장 겸 사장일행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일심단결을 통속적으로 표현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복숭아에 비유하여 말할수 있

습니다. 복숭아는 겉에 살이 있고 그속에 굳은 껍질이 있으며 그 속에 씨가 있습니다. 복숭아의 씨는 우리 당의 수뇌부와 같고 굳은 껍질은 당과 같으며 살은 대중과 같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심단결이란 말그대로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한덩어리로 뭉치는것을 말한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당과 대중이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유기적결합, 가장 공고한 단결이 바로 일심단결이다.

당과 대중이 수령을 하나의 중심으로 하고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결속되는것은 일심단결에서 기본으로 된다.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지 않는 단결은 그 어떠한것이든 당파적, 분파적리해관계에 의한 협소한 결집이며 대세의 흐름과 리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쉽게 깨여지고마는 일시적이며 기계적인 회합에 불과하다.

바로 위대한 령도자를 유일중심으로 하고 령도자의 사상을 유일한 사상적기초로 하여 당과 인민이 조직적으로,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친 조직적전일체, 사상적순결체라는데 일심단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일심단결의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수령과 전사, 령도자와 인민이 고결한 동지애와 의리심에 기초하여 뗄래야 뗄수 없는 혈연의 관계로 공고하게 뭉친 도덕의리적단결이라는것이다.

조직사상적인 단결은 숭고한 도덕의리에 기초한것으로 될 때만이 시련속에서도 끄떡없는 불변의것으로 되게 된다.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실성에 기초하여 맺어지고 높이 발양되는 고결한 동지애와 의리심은 엄혹한 시련과 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대중이 주저와 동요, 변심을 모르고 자기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된다.

이처럼 일심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수령의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이룩한 조직사상적단결을 숭고한 도덕의리에 기초한 단결로까지 승화시킨 력사상 가장 공고한 단결이다.

사회주의조선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일심단결을 완벽하게 실현한 나라이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 이것이야말로 조선식사회주의의 본질적구조》, 《주체사상이라는 지지점에다 일심단결이라는 지레대를 가지면 지구도 움직일수 있는 힘을 얻을수 있을것이다.》…

이것은 온 사회가 일심단결되여있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세인의 일치한 평가이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세계 진보적인류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조선의 모습이고 적대세력들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조선의 위용이다.

력사적으로 놓고볼 때 우리 나라에서는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썩은 정치로 하여 산생된 당쟁과 파쟁이 빚어낸 갈

등과 대립, 분쟁이 오래동안 존재해왔다. 이것은 민족의 발전을 심히 억제하고 국력을 쇠약케 함으로써 종당에는 망국을 초래한 화근으로 되였을뿐아니라 이후의 력사발전에도 막대한 해독을 끼치였다. 국치의 암운속에서 령도권쟁탈을 노리고 각양각색의 종파분자들이 벌린 피투성이파벌싸움의 후과로 민족해방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력량이 사분오렬되여 헛된 피를 흘리고 쓰라린 좌절과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것도 그 단적인 실례이다.

그러던 이 땅에 일심단결의 새 력사는 어떻게 밝아왔던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우리 나라에서 단결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절감하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 쓰라린 민족사의 교훈과 령도권쟁탈로 대중을 분렬시키고있는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의 실태를 깊이 분석하시고 오직 단결만이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고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유일한 출로라는것을 확신하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사상 처음으로 단결은 곧 혁명이고 혁명은 곧 단결이라는 진리를 밝히시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고 령도자의 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가장 공고한 단결을 힘있

는 무기로 하여 승리의 새 력사를 빛나게 개척하여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이어 일심단결을 자신의 혁명철학으로, 조선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그 강화발전에 한평생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의 위력은 단결의 위력이라는 사상을 천명하시였으며 인민대중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에 기초할 때 온 사회의 일심단결이 참답게 이루어지고 더욱 확고히 다져지게 된다고 보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자!》라는 구호를 조선로동당이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행동의 지침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인민대중과 어깨겯고 언제나 고락을 함께 나누시였으며 이 나날에 더욱 공고히 다져진 일심단결, 혼연일체를 민족만대의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주시였다.

참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과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하여 후손들에게 남기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쌓으신 업적중에서도 가장 특출한 업적으로 된다.

일심단결은 존엄높은 우리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립을 굳건히 떠받치고있는 초석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힘의 원천으로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가 일심단결이고 두번째가 군력이라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일심단결은 공화국을 떠받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공화국의 창건으로부터 그 강화발전에 이르는 전 로정은 단결의 힘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무엇보다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석같은 통일단결의 기초우에서 전체 조선민족의 총의를 반영하여 창건된 명실공히 단결의 위대한 결과물이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자!

이는 해방된 조국강산에 활화산처럼 분출하는 인민의 애국열을 한데 모아 건국사업에로 불러일으킨 력사적인 호소였다.

1948년 8월 25일,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북남조선총선거가 승리적으로 진행되였다.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북조선에서는 인민대중의 정치적열의와 로력적투쟁이 비상히 앙양된 분위기속에서 전체 유권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하여 212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이와 달리 남조선에서는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광란적인 테로와 살벌한 폭압소동으로 말미암아 비밀리에 서명을 받는 간접선거의 방법으로 총유권자수의 77.52%가 선거에 참가하여 먼저 1 080명의 인민대표를 선출하였으며 그들이 해주에 모여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열고 360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하였다.

북남총선거의 승리에 기초하여 이해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하였으며 9월 9일에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해오던 자주독립국가건설위업의 성취!

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단결의 지론과 그 실현을 위해 기울이신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정체이며 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을 열렬히 공감하며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선 북과 남 온 겨레의 산악같은 단결력의 산아이다. 만약 단결의 이 힘이 없었더라면 복잡다단하고 준엄했던 해방정국에서 건국의 열정이 그토록 높이 발휘될수 없었을것이며 인민이 주인된 새 나라는 세상에 탄생하지조차 못하였을것이다.

공화국의 국호는 물론 국기, 국장과 국가를 비롯한 국가상징들에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애국의 기치아래 묶어세우려는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리념이 깃들어있다.

일심단결은 공화국이 력사의 험난한 풍파를 다 이기며 조국사수전,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기적의 힘이다.

남조선의 어느 력사학교수가 쓴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첨단기술을 모방하기는 어렵지 않다. 선진국을 따라앞서고 국민소득을 높이는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북에서만 볼수 있는 령도자와 국민의 혼연일체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어느 위인도 재현해낼수 없을것이다. 그것은 북만이 유일하게 독점한 천하유일의 재보이고 핵무기도 당해낼수 없는 천하유일의 무기라고 생각한다.》

전체 인민이 령도자를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혈연적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은 원자탄보다 더 위력하다. 원자탄의 위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일심단결의 위력에는 한계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이고 주체조선의 《특허무기》, 절대병기라고 말할수 있다.

오직 공화국만이 가지고있는 천하유일의 무기, 일심단결이 발휘하는 위력은 얼마나 거대한가.

간고하였던 항일전의 나날 조선인민은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재생의 구심점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뭉쳐 피어린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타승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1950년대의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 불리웠던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에서도 청소하였던 공화국의 인민과 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단결의 힘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버리고 조국의 자유와 독

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1990년대 중엽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공화국인민들의 생활형편은 이루 말할수 없이 어려웠다. 식량사정 하나만 보더라도 자연재해로 인한 알곡손실이 막대한것으로 하여 인민들은 항일전쟁사에 혹심한 굶주림의 고장으로 기록된 처창즈근거지에서처럼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대용식품》이라는 눈물겨운 낱말이 생겨난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식량뿐아니라 전력, 생활필수품 등 모든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를 두고 외부에서는 어차피 조선이 붉은기를 내리우고 《개혁》, 《개방》에로 나가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조선이 제국주의의 검은 파도를 이겨내지 못할것이며 앞으로 세계에는 사회주의국가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것이라고 서둘러 단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어렵다고 하여 붉은기를 내리우지 않았으며 다른 곳을 넘겨다보지도 않았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자기 수령과 생사운명을 같이할 철석의 신념을 안고 사회주의조국, 령도자의 품을 떠나지 않았다.

《믿어주십시오. 장군님!

저희들은 굶어죽으면 죽었지 장군님을 간직한 이 심장은 절대로 팔지 않을것이며 얼어죽으면 죽었지 장군님품을 떠나 남의 집 지붕밑으로는 한발자국도 들어서지 않을것이며 단두

대우에서 매맞아죽으면 죽었지 장군님노래를 순간도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공화국의 평범한 시인부부가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렸던 편지의 한구절이다.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심정이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이 간직하고있는 절대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령도자는 인민을 굳게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일심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형언할 수 없이 가혹한 환경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낸 자주적인민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높이 떨칠수 있었다.

오늘도 조선인민은 노래 《조선의 모습》을 사랑하며 누구나 즐겨 부르고있다.

…
세찬 폭풍 몰아쳐도 흔들림없고
우리 세대 바뀌여도 변함없으리
일심단결은 우리의 모습
일심단결은 조선의 모습
당을 따르는 오직 한길에
아 영원하리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적힘

주체조선의 불굴의 기개는 온 누리를 진감하고있다. 바람이 불어야 기발이 날리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듯이 고난의 역풍이 불어오면 올수록 사회주의붉은기는 구김없이 더더욱 거세차게 나붓기고 조선이라는 그 이름은 자주와 존엄의 대명사로 인류의 초점을 모으고있다.

현 세계는 대단히 복잡다단하고 혼란스럽다. 지금껏 이 행성은 어느 하루도 평온한적이 없었지만 지금과 같이 패권쟁탈과 국력경쟁이 최극단으로 치닫고 그로 인한 불안과 위기의식이 증대된 시기는 흔치 않았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동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요동치고있는 이 행성우에서 사회주의조선은 푸르청청한 거목인양 우뚝 서서 대세의 흐름을 주도하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난관앞에 흔들리고 시련앞에 맥을 놓고 주저앉기를 고대하며 적대세력들은 고립압살의 포위환을 겹겹이 둘러치기에 여념이 없을 때 과연 어떻게 되여 이런 일이 일어날수 있었는가.

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시종일관 자기식의 발전방식을 견지하고있다. 령도자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웅략들을 펼치고 인민은 언제나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하

고 받들어 실천에 옮기는것은 오직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현실로 되고있다. 《천만사람 말을 해도 한목소리요 천만대오 걸어가도 한걸음일세》라는 노래가사도 있듯이 일심일체의 가장 공고한 정치적지반에 토대한것으로 하여 인민의 행복과 조국번영을 위한 담대한 결단과 구상들이 기적적으로 실현되고있는것이다.

일심단결의 힘으로 자연의 대재앙을 이긴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를 통해서도 그에 대해 잘 알수 있다.

2016년 8월말, 나라의 북변 두만강연안일대에서는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져내려 이곳에 위치한 6개의 시, 군들이 막대한 재해를 입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초보적인 조사에 의하더라도 수백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였으며 총 2만 9 000여동의 살림집이 파괴되여 수만여명의 주민들이 한지에 나앉은것을 비롯하여 초래된 인적, 물적, 경제적피해는 실로 참담하고 엄청난것이였다.

이를 기화로 적대세력들은 당시의 큰물피해가 최악의 재앙이기때문에 빠른 복구는 전혀 불가능할것이며 더우기 려명거리건설에 이미 많은 힘을 소모한 북으로서는 심리적쇼크상태에 빠져있을것이라는 악담을 늘어놓았고 지어는 그 무슨 《위기설》이라는것까지 요란스레 떠들어댔다. 그리고는 핵선제공격위협과 제재봉쇄의 도수를 부쩍 높여 공화국이 피해복

구사업에 힘을 집중할수 없게 함으로써 저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해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공화국에서는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기적적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이 발표되였다.

이것은 결코 아무나 쉽게 내릴수 있는 결심이 아니였고 누구나 취할수 있는 조치가 아니였다. 당시 발생한 태풍10호의 영향으로 두만강연안과 린접한 나라들은 물론 태풍이 경과한 여러 지역에서도 동시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이 혹심한 피해후과를 단시일안에 가셔버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다.

경제력을 자랑하는 대국들, 부국들도 선뜻 내리지 못한 용단을 추호의 주저도 없이 공화국이 내렸다. 그것도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훌륭한 보금자리를 일떠세울 웅대한 작전을 펼치였다.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로 신속히 전환하고 낮과 밤이 따로없이 사생결단의 치렬한 건설대격전을 과감히 전개함으로써 불과 두달 남짓한 기간에 두만강연안의 북변천리에 수십여개의 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을 새로 일떠세우는 경이적인 현실을 펼쳐놓았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이룩된 기적적승리의 근저에는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고계시는 탁월한 령도자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의 힘이 자리잡고있다. 재해의 후과를 가시기 위한 철야대격전이 벌어진 60여일기간에 령도자의 부름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드는 인민과 군대의 무한한 충정심을 바탕으로 하는 공고한 단결과 전투적이며 희생적인 일본새,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며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화목한 대가정의 고상한 풍모가 유감없이 발휘되였다.

그 어떤 대재앙도, 그 어떤 난국도 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바로 이것이 함북도 북부피해복구과정에 다시한번 뚜렷이 실증된 진리이다.

이렇듯 위력한 일심단결의 힘은 조국의 지평선을 변화시키고 세인을 경탄케 하는 천지개벽의 새 모습을 끊임없이 펼쳐놓았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여 불과 몇해사이에만도 미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려명거리와 같은 현대적인 거리들, 사회주의문명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공

간들, 류경안과종합병원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과학기술전당 등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신화적인 건설속도로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라 몰라보게 달라진 나라의 면모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결사관철하고야마는 조선인민의 헌신적노력이 깃든 자랑찬 창조물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고많다. 지난해에만도 삼지연시꾸리기 2단계공사가 완공되여 백두산아래 첫 기슭에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문화도시의 전형, 인민의 리상향이 펼쳐졌으며 양덕지구가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희한하고 현대적인 온천명소, 세상사람들 누구나 다 와보고싶어하는 문화휴양지로서의 황홀한 자태를 선보였다.

그런가 하면 해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여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 흥겹게 울려퍼지는 이 땅의 그 어디서나 사회주의바다향기, 물고기비린내가 진하게 풍기고 전야마다에서는 다수확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는것과 같은 놀라운 현실도 펼쳐졌다.

오직 전진, 전진 또 전진해나가는 과정에 마련한 그 모든 값진 재부들은 단순히 경제적장성을 의미하는 지표이기 전에 한 국가, 한 나라 인민이 지니고있는 의미심장한 힘의 분출로서 한두번의 파동으로도 국가전체가 휘청거리는 현 세계에

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사실 공화국이 봉착한 도전은 남들 같으면 얼마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앉을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이였다. 아무리 막대한 부와 힘을 축적한 세계의 그 어느 초대국이나 렬강이라 할지라도 1년이 아니라 단 한달동안만 조선인민이 겪고있는것과 같은 엄혹한 환경에 놓인다면 불피코 사회전체가 총파산국면에 처하여 밑뿌리채 뒤흔들리고 전 령토가 걷잡을수 없는 대동란과 류혈참극에 빠져들고말것이다.

그런것을 조선인민은 70여년을 강용히 이겨내고있을뿐아니라 부국강병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멈춤없이 나아가고있으니 상상을 초월하는 이 불가사의한 현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국력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케 하여주고있다.

지구상에는 제나름의 국력을 자부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누구는 넓고 비옥한 령토와 무진장한 자원을, 또 누구는 발전된 생산력과 방대한 군사력을 뽐내거나 첨단과학기술력을 국력평가의 주요징표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구대국, 자원부국, 령토대국, 경제대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 등의 용어들이 널리 쓰이고있다.

앞에서 언급된 모든것들이 국가의 존재와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로 되는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나온 인류력사의 갈피에는 광대한 령토와 풍

부한 인적, 물적자원을 가지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쇠퇴와 몰락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된 나라들의 실례가 허다하게 기록되여있다.

오늘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물질적부가 증대될수록 인간과 사회가 날이 갈수록 더욱 부패타락하고 취약해지고있는데 대한 개탄과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고도성장》과 《물질적풍요》를 요란스럽게 광고하는 서방세계에서부터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뿐만아니라 현시기 일부 나라들이 초대국의 날강도적인 강권과 전횡앞에서 체통값을 변변히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세인의 실망과 허탈감을 자아내고있다. 결코 자원과 재부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군력이 약해서도 아니였다.

이러한 현상들에 립각해볼 때 국력에 대한 종전의 견해와 기준을 가지고서는 한 나라, 한 인민의 진정한 힘을 정확하게 평가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력사의 모든 기적은 황금이 낳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으로 굳게 뭉친 인민이 창조하는것이다.

주체조선은 강력한 국가발전력과 인민의 참다운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론리, 새로운 정의를 세계앞에 실천으로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제국주의의 폭제를 짓누르고 민족부흥의 새 전기를 마련한 전략적결단의 빛나는 승리와 촘촘히 조여드는 사상초유의 압박공세를 썩은 새끼오리마냥 뿌려던지며 펼쳐진 경이적인 전변의 모습들은 인간의 힘은 사상의 힘

이고 사상의 힘은 단결의 힘이며 단결의 힘은 무한대이라는 조선로동당이 밝힌 주체의 힘의 철학이 발휘하는 거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자본주의변호론자들의 물질만능론과 폭제의 우위론에 언제나 사상과 단결의 만능론으로 대답하고 있다. 물질적재부의 축적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정도, 무장장비의 우렬만을 절대시하는 시각으로 본다면 제국주의련합세력에 맞서 장기간의 대결전을 벌리고있는 공화국은 이미 자기의 존재를 끝마쳤어야 한다는 결론이 주어진다. 그러나 당당히 존재하고있으며 자주의 강국으로 나날이 장성강화되고 있는것은 공화국이 그 모든것을 릉가하는 강력한 힘을 체현하고있기때문이다.

《세계에는 부유하다고 하는 나라도 많지만 강권과 전횡앞에서는 다 굽신거리는것이 례상사로 되고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조선만은 다르다. 그것은 령도자가 위대하고 그이를 지지하는 인민의 힘이 보통 강하지 않기때문이다. 부인할수 없는것은 이런 국가단결력이 어느 시기,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된 일이 없는것이다. 정확히 말해서 그것을 실현은 고사하고 흉내낼수 있는 나라조차 현재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조선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유럽의 한 인사가 터놓은 진심의 토로이다. 이것은 비단 그 한사람만의 심

정이 아니라 어떤 의도에서 출발하였든지간에 공화국의 현실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결같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기도 하다.

인류가 바라는 가장 리상적인 국가는 사상적일색화에 기초하여 모든 공민들이 일심일체를 이룬 나라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 국가가 출현한이래 어느 나라도 전사회적인 사상적일치에 대하여서는 제기조차 하지 못하였다. 만민을 공감시키고 하나로 묶어세울수 있는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고 우월한 사상과 정치가 없기때문이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심으로 하여 인류사상사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가장 과학적인 지도사상을 국가정치리념으로 내세우게 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발전행로는 주체사상을 국가정치철학으로 확립하고 국가건설과 활동전반에 구현하여온 력사이며 그것이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로, 인생관으로 전환되여온 과정이다. 공화국은 주체의 사상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그 실현에 커다란 힘을 넣어왔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언제나 선차적인 힘을 넣음으로써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공고한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실현할수 있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사회전반이 하나의 사상으로 결속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분파행위와 민족문제를 비롯한 복

잡하고 골치아픈 내부문제들로 하여 진통을 겪고있다. 만일 공화국이 자기의 똑똑한 정치리념이 없이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영향을 받았더라면 일심단결로 강위력한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었을것이다.

사상적일색화에 기초한 일심단결, 이는 그 무엇으로써도 살수 없고 몇천개의 핵탄두에도 비할수 없는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적힘이다. 이 거대한 힘이 있어 공화국은 참혹한 자연의 대재앙과 전쟁의 난파도와 같은 엄혹한 시련의 고비들도 주저없이 맞받아 헤쳐넘으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줄기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물질적재부들은 있다가도 없어질수 있고 국력경쟁에서는 뒤떨어졌다가도 앞설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일심단결은 그 누가 지어낼수도 없고 흉내조차 낼수도 없으며 없애버릴수는 더욱 없는 최강의 위대한 힘의 실체이다. 일심단결이야말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창조와 건설의 폭풍우속에서 억세게 단련되고 성장한 영웅적인민이 있는 이 땅에서만 실현가능한 주체조선의 제일국력이며 조선식의 최강의 생존방식, 불멸의 승리법칙이다.

오늘 조선인민모두의 가슴가슴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이든 못할것도, 두려울것도 없다는 남다른 확신과 배짱으로 충만되여있다. 세상사람들이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힘이라고 격찬하는 일심단결이라는 재부가 있기때문이다.

공화국의 명망있는 한 문필가는 온 사회가 공고한 전일체를 이루고 최악의 조건에서 언제나 최상의 성과만을 이룩해가는 사회주의조선의 불가항력적힘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이렇게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이 행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고무할만 한 유일무이한 절대병기, 절대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론한다면 우리는 다름아닌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친 우리의 위대한 일심단결이라고 긍지높이 선언한다.》

주체조선의 절대병기, 불가항력적위력인 일심단결!

이 무한대의 위력은 언제나 이 땅우에 눈부신 기적들과 행운을 불러 사회주의조선을 광명한 미래에로 힘차게 떠밀어주고있다.

일심의 대오는 굳건하다

단결은 국가의 발전과 흥망성쇠를 가늠할수 있게 하는 척도라고도 할수 있다. 령도자와 인민대중, 사회성원들 호상간에 어떤 뉴대가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얼마나 공고한가를 보면 그 나라의 발전잠재력과 미래를 예측할수 있는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단결된 국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며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인민이 이기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제일국력인 일심단결은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의 고결한 충성과 신뢰심에 근본바탕을 두고있다. 단순한 조직적단합이나 사상적결합이 아니라 끝없는 매혹과 철석같은 믿음으로 굳게 뭉친 단결, 바로 이것이 조선의 일심단결이다.

믿음!

정은 피보다 진하고 사랑은 무쇠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정과 사랑보다 더 강하고 힘있는것이 바로 믿음이다. 정과 사랑도 믿음으로 주는것이 더 열렬하고 뜻도 믿음으로 나누는것이 더 견결하며 단결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것이 가장 공고하고 위력하다.

하다면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것인가.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람을 믿는다는것은 자기 마음을 다 준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시면서 나는 믿음으로 동지를 구하고 믿음으로 일심단결의 대오를 꾸려나간다, 믿음으로 충직한 혁명가들의 대부대를 꾸리는것이 나의 정치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믿음을 받기 전에 믿음을 먼저 주며 한번 믿음을 주면 끝까지 믿고 인간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믿음의 철학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치에 그대로 구현되고있다.

일심단결을 최강의 무기로, 강국건설위업실현을 위한 백승

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인민대중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창조와 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위대한 심장속에는 뼈가 부서져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민의 믿음이며 인민의 믿음이 끊어지면 생명의 피줄이 끊어지는것이고 그 믿음이 있다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불덩이같은 신념이 언제나 세차게 맥동치고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믿음을 제일 귀중한 재부로 여기고 인민을 위해 혼신의 열과 정을 다 바치고 계신다.

2015년 9월초, 라선시에서 큰물피해복구사업이 한창일 때에 있은 일이였다. 그때 이곳의 일부 주민들속에서는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더 크고 좋은 집을 새로 지어준다는 소식을 듣고 보수하면 얼마든지 쓰고살수 있는 집을 제손으로 헐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참혹한 피해상황을 놓고 적대세력들은 쾌재를 올리고 이곳에 거처하던 외국인들은 한달동안에 피해를 가셔낼수 있겠는가고 머리를 기웃거리던 때에 누구보다도 재해복구에 앞장서야 할 주인들이 아닌가.

여러 일군들이 나라에 보탬을 주지는 못할망정 제 리속을 채우려고 한 그릇된 처사를 문제시하면서 엄하게 처벌하려고 하였다.

몸소 머나먼 피해복구현장에 나오시였다가 제기된 사실을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들에게 당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것입니다. 당에 대한 인민들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제일 소중합니다. 재부중에서도 제일 귀중한 재부가 인민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믿음이면 더 바랄것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인민들의 그 믿음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우주와도 같이 무한한 도량과 믿음의 세계를 잘 알수 있다.

인민에 대한 그이의 믿음은 차별을 모르는 절대적인것이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을 다해 품어주는 다심한 어머니처럼 아픈 상처를 안고있는 사람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따뜻이 감싸주며 손잡아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이다.

사람들은 오늘도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구절구절 뜨겁게 되새겨보군 한다.

설사 엄중한 과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99%의 나쁜 점이 있고 단 1%의 좋은 점, 량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량심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

옳바른 지도자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버려지고 방황하며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고달프게 생활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조선인민처럼 열화같은 사랑속에 복된 삶을 누려가는 행운아들이 또 어디 있는가.

믿음은 천하를 얻게 한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참다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며 단결이 공고화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은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불에 타도 곧음을 버리지 않는 참대처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일편단심 붉은 마음만을 굳게 간직한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키워내는 자양분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11월 9일부 《로동신문》에는 한편의 기사가 실리였다. 파도사나운 날바다우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끝까지 지켜낸 무역짐배 《장진강》호의 기관장 김명호의 소행에 대한 기사였다.

남다른 육체적장점을 가진것도 없고 겉보기에 평범하고 소박해보이는 인간이 과연 무슨 힘으로 차디찬 풍랑을 이겨낼수 있었는가.

인간이라면 대개 생명의 위험앞에서 엄습해오는 공포와 무

력감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생사가 갈리는 긴박한 환경에서 본능적으로 행동하였다고 해도 누가 추궁할 사람도 없다.

하지만 그는 달리는 살수 없는 사람이였다. 망망대해에서 38시간동안이나 정처없이 홀로 표류하던 그 시각에조차 그는 기약할수 없는 앞날에 대한 비관에 빠져있은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며, 별들이 총총한 밤에도 북두칠성 빛나는 조국의 하늘가를 더듬어 찾으며 마음과 의지를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반드시 구원될수 있고 설사 죽는다 해도 영생하는 삶을 누릴수 있다는 철석같은 믿음, 한몸이 열백쪼각으로 흩어진대도 절세위인들의 권위를 결사옹위하고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순결한 도덕의리심이 육체적능력의 한계를 초월하게 한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이였다.

결코 김명호기관장 한사람만이 아니다. 광란하는 자연의 대재앙속에서도 가산이나 귀중품이 아닌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만을 정히 품어안은 북변땅인민들,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계시는 령도자의 안녕만을 삼가 축원하며 현지의 날씨상태를 알아보고 조국에 돌아오신 그이께 기쁨을 안겨드리려 대고조와 증산의 열풍을 일으켜나간 전국각지의 근로자들…

어려울 때일수록 돋보이는 불같은 충성, 멀리 떨어져있을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그리움, 그 어떤 외풍에도 끄떡없는 고도의 사회정치적안정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키고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래야 볼수 없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소할수밖에 없는 소행이 널리 보편화된 사회, 그러한 소행들이 만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찬양받는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

얼마전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믿음의 뉴대를 잇고 사는 나라는 아마 조선밖에 더는 없을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들을 하늘처럼 내세워주시는 령도자를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하늘과 태양으로 조화되는 이 숭고한 관계를 조선인민은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부르고있다.》

하나의 대가정, 바로 이것이 령도자와 인민이 혈연의 정을 잇고 령도자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받들어 충성과 의리를 다하는것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고있는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주체조선의 진모습이다.

지난 세기에 여러 철학자, 사상가들은 의식변화의 장기성과 물질변화의 단기성에 대해 력설하여왔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성인은 한생을 가면서 되지만 부자는 하루아침에도 된다.》는 말도 그러한 인식이 반영된것이라고 볼수 있다. 실제로 단기간에 경제의 《고도성장》과 《기적》을 이룩한 나라들이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에 사상강국을 일떠세운 나라가 몇

이나 되는가고 묻는다면 답이 주어지기가 어렵다는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것을 놓고 유럽의 한 인사는 경제강국건설보다 어려운것이 군사강국건설이고 그보다 더 어려운것이 정치사상강국건설이라고 하면서 조선이 이룩한 특출한 국가건설성과에 찬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만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세우는것은 세상의 수많은 명인, 정치가들이 간절히 바라면서도 이루지 못한 소원이다. 그 꿈을 실현해보려고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두가지 즉 공포와 리익이라고 하면서 그에 집착한 권력자도 있고 인정에 울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하여 《선정》을 베푼 위정자도 있으며 인재 한사람이 만명의 백성을 대신한다고 하면서 인재를 널리 등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려고 시도한 정치가도 있었다. 하지만 돈과 강권, 가짜 선정으로는 사람을 움직일수 있으나 그들의 마음만은 틀어쥘수 없다. 대중을 강제로 내몰수는 있을지언정 그들의 심장을 발동시킬수 없으며 결국 정치에서 성공할수 없는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철저히 인간에 대한 진실성, 성실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고 동지를 동지로 대하는 여기에 참다운 믿음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간고한 항일전쟁의 나날에 있었던 사실을 회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인민의 심장속깊이에로 침투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이 받아들이는 통행증은 단 한가지밖에 없으니 그것이 바로 진심이다. 진심만이 우리의 피와 인민의 피를 하나의 동맥속에 융합시킬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만사를 성공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깨우쳐주고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운명공동체를 이루는 문제는 법률이나 세뇌, 금전에 의해서는 해결될수 없다. 인민은 자기들에게 진정을 바치는 지도자만을 열렬히 지지하며 그와 함께라면 가는 앞길에 험난한 진펄길이 가로놓여있다 해도 주저없이 웃으며 따라나서는 법이다.

오늘 세계는 이 진리로 맥동치는 위대한 전통의 계승을 직접 목격하고있다.

인민의 믿음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하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하나의 행복찾아 머나먼 길 왔던가 명예를 바라고서 이 길 따라 왔던가라는 노래 《전사의 길》을 자주 외워보군 하시는 그이께서는 자신을 한 나라를 이끄는 령도자이기 전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실현해야 할 사명을 지닌 충직한 전사로,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창조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으로 간주하고계신다. 그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랑을 주어도 열화같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정을 주어도 육친의 정을 초월하는 진정을 바치시며 불면불휴의 낮과 밤을 이으시였다.

이 나날들에 마련된 하나하나의 고귀한 결실들은 하늘이 준 우연도 아니고 자연부원의 덕택도 아니다. 조국과 인민을 가슴에 안으시고 남모르는 고뇌와 심혈을 기울이며 심신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물겨운 고생과 헌신, 크나큰 로고와 맞바꾼 위대한 승리이다.

조국과 민족앞에 쌓으신 불멸의 공적은 하늘에 닿았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항상 인민앞에 무한히 겸허하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도 그이께서는 시종일관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을 피력하시면서 하늘같고 바다같은 우리 인민의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기만 하면서 언제나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훌륭한 인민을 섬기고 모시고 투쟁하는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간직하고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설사 온몸이 찢기고 부서진다 해도 그 믿음만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킬것이며 그 믿음에 끝까

지 충실할것을 다시금 엄숙히 확언하시였다.

진정 하늘도 감복할 위인의 거룩한 진정이다. 인민을 위해 한생토록 멸사복무하시려는 의지의 선언이다.

그토록 인민을 존대하고 열렬히 사랑하시는 령도자를 어느 누가 따르며 받들지 않을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 하나라도 기쁨을 드릴줄 알고 한가지라도 그이의 걱정을 덜어드릴줄 아는 참된 인간으로 삶을 빛내이려는 조선인민의 패기와 열정은 하늘땅을 진감하고있다.

약동하는 그 기상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서방은 조선의 전진을 막아보려고 갖은 비렬한 모략과 술수를 일삼고있다. 적대세력들은 그 모든 책동의 예봉을 일심의 성새에 균렬을 내기 위한데로 집중시키고 방대한 정보모략기구들과 방송선전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조선인민의 사상적신념을 허물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고있다.

제재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적대세력들이 봉쇄의 포위망을 바싹 조이는것은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는 한편 보다 중요하게는 이를 통해 국가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야기시켜 인민들을 령도자의 품에서 떼여내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맨발로 바위를 차는것과 같은 부질없는짓이다. 원쑤들의 책동은 걸음마다 좌절을 면치 못하고있으며 일심단결의 성벽에서 한개의 성돌도 뽑아내지 못하였다.

몇해전 카나다에서 살고있는 한 동포는 인터네트에 올린 글

에서 제재의 최종목표를 조선의 《붕괴유도》에 두고 여기에 집착하고있는 서방의 유치하고도 단순한 셈법이 매번 실패를 거듭하고있는 원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다.

《북의 일심단결은 령도자와 인민이 혈연의 뜻과 정으로 굳건히 이어진 운명공동체라는데 그 방점이 있다. 이런 운명공동체는 그 어떤 무기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깨뜨릴수 없다. 단편적실례로 부모와 자식의 혈연을 끊는 해법이 과연 동서고금 세상 그 어디에 있는가.》

옳은 말이다. 일심단결의 성새를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적대세력들이 이 말을 입에 올리기를 제일 꺼려하고 현실을 인정하는것을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것은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진실이고 그를 압도할 능력이 전혀 없기때문이며 또 그것이 세계에 전파되는것을 두려워하기때문이다.

조선의 일심단결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있다. 일심단결을 당과 국가존립의 초석으로, 조선혁명의 최강의 무기로 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무슨 사업을 하나 조직하고 사람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를 처리하는데서 그것이 일심단결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것을 따져보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심중히 대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조선로동당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에서 큰물피해복구사업

을 단순히 자연의 피해를 가시는 건설공사나 생활복원에만 귀착시키지 말고 당창건 75돐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 일심단결을 다지는 혁명적명절로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으로 되도록 지향시킬데 대하여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태풍9호에 의한 자연재해복구전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에서도 피해복구사업을 자연재해를 털어버리기 위한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복구건설과정만이 아닌 중요한 정치사업과정으로,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이고도 세련된 령도아래 열화같은 충성과 신뢰가 인민의 마음속에 드놀지 않는 신념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일심단결의 성새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날이 더욱 억척같이 다져지고있다.

조국청사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자욱을 아로새겨가시는 나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랑이 있고 덕이 있고 믿음이 있기때문에 이 나라는 억척부동으로 굳건하며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끝없이 전진하는 원동력과 무조건 이기는 법칙, 영원히 끄떡없는 힘이 다름아닌 사랑과 덕과 믿음이라는것은 만난역풍을 헤치고 강국건설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우리 당의 령도사가 증명한 산 진리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세찬 폭풍속에서도 흔들림없고 세대가 바뀔수록 더욱 강력

해지는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의 일심단결.

이 땅에 일심단결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그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도 만수대언덕에 거연히 서시여 세기와 세대를 이어 련면히 계승되고있는 혼연일체의 장엄한 화폭을 굽어보고계신다.

그 거룩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조선인민이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안는 력사의 진리가 있다.

강국의 징표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대륙간탄도로케트와 같은 군사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 가장 숭고한 사랑과 믿음이야말로 일심일체의 가장 공고한 단결을 낳고 이 단결은 한 나라, 한 민족을 강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울수 있다는것을.

3.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오늘 조선인민은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는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있다.

이 위대한 시대의 근본특징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의하여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민헌신의 력사가 더욱 줄기차게 흐르는 시대, 공화국의 인민적성격이 가장 뚜렷이 부각되는 시대라는데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 이 말속에 공화국이 펼치는 모든 정치의 본태가 맥박치고 값높은 영광을 받아안은 인민의 긍지가 비껴있으며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조선의 양양한 전도가 기약되여있다.

인민을 가장 신성한 존재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인간을 존대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여왔다.

수수천년을 바라오던 민족의 이 세기적숙망은 인민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우는 숭고한 화폭들로 충만된 우리 조국땅우에 눈부신 현실로 펼쳐졌다. 인민이 가장 신성한 존재로 떠받들리우는 나라,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가 다름아닌 사회주의조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이를 통해서도 공화국의 인민적성격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이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되고있음

을 잘 알수 있다.

사회주의조선의 인민적성격은 그 어디에서나 두드러지게 표현되고있다. 피어린 투쟁속에 일떠서고 진리로 뭉쳐진 억세인 힘으로 번영해가는 이 나라의 국호도 《인민공화국》이고 정권도 인민이 주인된 《인민정권》이며 군대도 인민을 보위하는 《인민군대》이다.

인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특출한 공로를 세운 지식인들과 체육인, 예술인들의 삶도 《인민》이라는 고귀한 부름과 결부된 칭호로 빛나고 인민문화궁전과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가장 훌륭한 창조물들의 명칭도 《인민》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빛나고있다. 거리를 누비는 버스들과 봉사시설을 비롯하여 인민이 리용하고 인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곳들마다에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글발이 뚜렷이 새겨져있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값높은 정치생활과 평등한 물질생활, 건전한 사상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조선인민의 존엄높고 행복한 모습이 이 구호속에 함축되여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조선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고있는것은 바로 이민위천의 사상이다. 이민위천은 국가건설의 근본리념이고 모든 로선과 정책작성의 기초이며 국가활동의 출발점으로 되고있다.

이민위천이란 말그대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뜻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긴다는것은 곧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존엄있는 존재로 여기고 떠받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민위천의 사상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롭고 귀중한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기는 견해와 관점, 세상만사를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할데 대한 립장과 태도가 집대성되여있다.

예로부터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고 일러왔다. 그만큼 백성을 돌보고 백성의 마음을 얻어 이루어지는 정치는 가장 리상적인 정치로 간주되여왔다. 그래서 《백성이 첫째요, 왕권은 둘째》라는 말도 생겨났지만 이러한 주장이 구현된적은 어느 시기에도 없었다. 오히려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인민은 《말하는 동물》, 《말하는 기계》, 《자본의 철쇄에 묶이운 노예》로 치부되여왔다. 착취계급과 그 대변자들에게 있어서 인민이란 《여우의 교활성》과 《사자의 발톱》으로 다스려야 할 통치의 대상, 《비리성적》이고 《무지몽매한 존재》로서 력사발전에 아무런 작용도 할수 없는 착취의 대상일뿐 다른 그 무엇도 아니였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홀시는 단지 반인민적인 통치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였다.

로씨야의 대문호 레브 똘스또이는 생전에 고리끼와 같은 비범한 인간들이 어떻게 무지몽매한 백성들속에서 태여나는지

알수 없다고 말하였다. 자기 작품들에 각계층의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평생 노력해온 똘스또이였지만 수천수만의 로씨야 인민들을 《하느님》의 곁으로 이끌려고 노력하였지 마지막까지 인민의 힘과 지혜는 믿지 못하였다.

장구한 력사속에서 천대받고 버림받던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이민위천!

동서고금의 어느 위인도 내세울수 없었던 숭고한 좌우명속의 인민은 그 어떤 초인간적인 존재, 특수한 몇몇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였다. 장구한 세월 백성이라 불리워온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였다. 가난에 짓눌린 만경대사람들과 거리에 떨쳐나 피범벅이 되면서도 독립만세를 웨치던 3.1인민봉기 참가자들, 잊을수 없는 은인이였던 교하의 아주머니와 눈보라 사나웠던 천교령의 로인, 해방후의 나날로부

터 한생토록 논밭머리와 기대앞에서 만나보시였던 수많은 사람들, 바로 이 땅에 생을 둔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이의 인민이였고 수령님의 하늘이였다.

인민이 하늘이라는 이 지론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기초에 놓여있으면서 언제 어느때나 인민을 위하여 거대한 힘을 발휘하게 한 정신적원천이였다.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교훈으로 삼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력사의 풍파를 다 이기시며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고 이 땅우에 력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새 나라를 일떠세우시였다.

아득한 옛적부터 인류는 하늘을 가장 신성한 존재로, 제일가는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고대에짚트인들은 신전을 지어놓고 해마다 태양신에게 막대한 제물을 바쳤으며 마야인들은 한번에 무려 2만여명이나 되는 노예들의 심장을 도려놓고 하늘에 행운을 빌었다고 한다. 인까족도 하늘과 한발자국이라도 가까이에 살면서 신의 은총을 더 많이 입으려고 안데스산줄기의 해발 2 743㎜나 되는 곳에 마츄삐끄츄와 같은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였다. 이러한 하늘숭배의식을 악용하여 지배계급은 저들을 《하늘의 아들》로 자처해나섰고 신권을 통치수단으로 백성의 머리우에 군림하였다.

인민이 곧 하늘이라는 인민관은 력대 반인민적통치자들의 위선과 전횡에 종지부를 찍고 력사의 창조자이며 주체인 인민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준 인류력사의 첫 발견이고 사변이였다.

일찌기 엥겔스는 유물사관과 잉여가치학설을 내놓은 맑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생물계의 발전법칙을 해명한 다윈의 진화론과 비교하면서 한평생에 이런 발견을 한가지만 해도 대단할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물론 이러한 과학적발견들이 인류의 계급적해방과 문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력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은 인류발전과정에 대한 물질중심의 해명이나 생물계의 진화법칙을 밝혀낸것과는 대비가 되지 않는다. 수수천년 오랜 세월을 두고 무지와 위선의 장막에 가리워 빛을 잃었던 인민의 참모습을 깨우치고 그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것은 수십억 인류의 운명개척과 자주적발전에 획기적기여를 한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리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정치철학으로 천명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에서 인생의 가장 큰 긍지와 보람

을 찾으시였다.

인민을 끝없이 존대하고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견해와 관점이 얼마나 투철한가 하는것은 그이의 10대인민관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① 가장 열렬히 숭배하는 《하느님》은 인민

② 가장 높이 존경하는 선생은 인민

③ 제일 힘있는 존재는 인민

④ 제일 재능있는 창조자는 인민

⑤ 제일 강한 무기는 인민의 일심단결

⑥ 가장 큰 념원은 자주성이 실현된 인민의 락원건설

⑦ 가장 큰 기쁨은 인민의 행복

⑧ 가장 큰 괴로움은 인민의 불행

⑨ 가장 큰 분노는 인민의 존엄과 리익에 대한 침해

⑩ 제일 사랑하는 좌우명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렇듯 숭고한 인민관은 위대한 장군님으로 하여금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실수 있게 한 근본요인의 하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혈전만리를 헤치며 피바다에서 구원해주신 인민, 불바다에서 지켜주고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애지중지 품어안아 자주적인 삶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신 제일 귀중한 존재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철학을 명실공히 인민대중중심의 철학으로 발전풍부화하여 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가장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주시였으며 인민을 하대하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나 타협도 모르시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극악한 포위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의 집을 대를 이어 지켜내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애민헌신의 업적가운데서 가장 특출한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인민과 사회주의 조국을 지켜 춘하추동 사시장철을 언제나 선군장정의 길에 계신 장군님의 옷자락은 쏟아지는 눈비와 흐르는 땀으로 언제 한번 마를새 없었다. 그 나날들에 새겨진 풍랑사나운 초도에로의 항해길과 미끄러지는 야전차를 어깨로 밀고 오르신 오성산의 벼랑길, 쪽잠과 쥐기밥, 색바랜 야전솜옷에 깃든 이야기와 같은 눈물겨운 만단사연들을 어찌 말과 글로써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크나큰 헌신과 로고가 있어 가없이 펼쳐진 조국의 푸른 하늘을 침략의 불구름도 가릴수 없었고 은혜로운 해와 별 찬란히 빛나는 그 하늘아래서 인민은 존엄높고 자주적인 삶을 누릴수 있었다.

인민은 하늘이다!

위대한 인민적수령들께서 비범한 통찰력과 거창한 혁명실천을 통하여 발견하고 실증하신 이 진리는 인류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주체102(2013)년 1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과 리념이 그 위대한 계승으로 하여 광휘로운 빛발을 뿌리는 력사의 순간이였다.

이 사변적인 현실앞에서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온 세계가 칭송하여마지 않는 불세출의 대성인들과 평범한 인민을 나란히 놓는다는것이 과연 있을법이나 한 일인가.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지위를 가장 신성한 경지에로 우뚝 올려세워주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업적이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시였다.

세인을 경탄시킨 이 사변적인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인민관이 얼마나 숭고한 경지에 이르고있는것인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 절대적인 복무정신,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정치의 근본핵이 있고 그 어느 정치가도 따를수 없는 특출한 령도풍모가 있다.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 무슨 일에서나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

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 발이 닳도록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여야 한다.

—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위대한》이라는 부름과 함께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그이께서 안고 사시는 인민은 미래를 개척하는 력사의 생눈길을 장구한 기간 굴함없이 헤쳐나가는 가장 정의롭고 강인한 투사들, 무에서도 열, 백을 만들어내는 남달리 지혜롭고 불가능을 모르는 창조자들이며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답고 고상한 품성의 소유자들이다. 조선인민처럼 고결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수령의 령도를 백옥같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받들어나가는 인민은 찾아볼수 없다.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색과 실천으로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은 바로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매혹과 존경, 믿음으로부터 용솟고있다. 이렇듯 훌륭한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초불처럼 불태우시려는것이 그이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시였다.

나는 시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를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울수만 있다면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후대들이 걸어갈 길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고 말하고싶습니다!

한알의 모래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인민의 나라를 세상에 떨치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서슴없이 바쳐 조국의 밝은 미래를 가꾸는 뿌리가 되시려는 가장 고결한 인생관과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이 이 한마디 말씀속에 다 함축되여있다.

모든 사색과 실천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끊임없는 심혈과 로고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신 사상리론적예지로 빛발치고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온천문화휴양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시려 2 000여건이나 되는 형성안을 지도해주신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분출되였으며 위험천만한 전략무기시험장들에도 서슴없이 나서실수 있게 한 고결한 희생정신으로 발현되였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루빨리 사회주의만복을 누리게 하시려 분분초초를 한시간, 열시간맞잡이로 분투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일과에는 애당초 휴식일, 명절날이란 없다.

행복에 겨워 웃음짓는 인민의 모습에서 최상최대의 기쁨과 만족을 찾으시고 인민이 겪는 고생을 한시바삐 덜어주시려 수백리 먼길도, 험한 진창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과 정력적인 헌신에 떠받들려 오늘

공화국에서는 나라형편이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천만금도 아낌없이 돌려지고있으며 《멸사복무》, 《인민대중제일주의》, 《최우선, 절대시》와 같은 시대어들과 더불어 인민의 충복, 심부름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더욱 깊이 자각한 일군들이 대중의 리익과 편의 보장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를 대를 이어 아름답게 가꾸어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애민헌신에서 전체 인민은 이 땅우에 위대한 사랑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리라는것을 깊이 확신하고있다.

인민 또 인민

정치가 사회를 인도하는 기능이라면 정치리념, 정치방식은 사회의 성격과 발전전도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이다.

정치리념, 정치방식이 어떤가에 따라 해당 사회가 누구를 위하고 누구에게 의거하며 누구에게 복무하는 사회인가 하는것이 명백히 규제된다. 금권정치, 강권정치가 판을 치는 자본주의사회가 1%의 특권층에게는 《천당》이지만 99%의 대중에게 《지옥》으로 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는 인민을 위한 정치로 되여야 한다.

하지만 사회주의사회라고 하여 다 인민적인 정치가 실시되는것은 아니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데는 인민을 중시하는 정치, 인민에게 복무하는 정치를 실시하지 못한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

사회주의리념에 충실하고 사회주의본태에 부합되는 참다운 인민적정치의 본보기는 절세위인들의 이민위천사상과 인덕정치가 빛나게 구현된 우리 공화국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이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사상이다.

예로부터 정치라는 말은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써왔다. 하지만 공화국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인민과 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사랑과 헌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2(2013)년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정치를 애민헌신으로 일관시켜나가는 우리 국가활동의 근본원칙, 근본방식이 뚜렷이 명시되여있다. 지구상에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지만 혁명 그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식화하고 국가건설과 활동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하게, 일관하게, 완벽하게 구현해나가는 나라는 오직 우리 공화국뿐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인민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가장 철저한 인민중시의 정치이다.

정치의 감화력과 위력은 인민에게 부여하는 지위와 인민의 힘을 발동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인민을 정치의 주인, 담당자로 내세우는 정치는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인민의 창조적인 힘과 지혜를 발동시키지만 인민을 정치의 대상, 수단으로 보는 반인민적인 정치는 인민이 등을 돌리게 하고 그들의 창조력을 마비시킨다.

공화국의 정치가 만인이 공감하며 지지하는 절대의 힘을 지닌 정치로 되는것은 인민을 가장 신성한 존재로 떠받들며 철두철미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는 정치이기때문이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사회주의국가의 국풍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신의 제일가는 정치적신앙으로 간주하시는 령도자를 모시여 더욱 확고한것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일군들에게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다. 일군들이 군중을 대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기신 그 위대한 인민이 바로 자기앞에 있다는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숭고한 뜻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이 철저히 구현되여 오늘 공화국에서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당과 국가의 존재방식으로 되고있으며 모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

는 구호의 참뜻을 심장속에 새기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 편의를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다. 지난 8월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에서 혹심한 큰물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곳의 일군들은 집을 잃은 수재민들이 정권기관청사들에서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하고 자기들은 비바람부는 야외에 천막을 쳐놓고 사업하면서 피해복구전투를 벌려나갔다. 비단 이곳만이 아닌 다른 재해지역들마다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볼수 있었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모든 일군들이 주인의 자리에는 언제나 인민을 내세우고 심부름군의 위치에는 항상 자신들을 세우며 인민의 리익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돌보고 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잘 알수 있다.

공화국은 인민에 대한 믿음을 가장 귀중한 재부로 여기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고있다.

인민의 힘을 굳게 믿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이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정치로선이다. 장장 70여성상에 걸치는 오랜 력사적로정에서 공화국이 사소한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수 있은것은 바로 창조와 건설의 전 과정에서 인민대중의 무한대한 힘과 열정을 최대로 발양시켜왔기때문이다.

현시기 공화국은 주체위업수행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정세는 의연 긴장

하고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은 참으로 엄혹하다.

과연 무엇을 믿고 누구에게 의거하여 준엄한 난국을 타개해나갈것인가.

공화국은 변함없는 믿음의 철학으로 인민을 용진하는 총진군대오의 앞장에 내세웠다.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그 어떤 물질적재부나 억대의 자원이 아니라 수백만 근로대중의 앙양된 열의와 창조적노력에 의거한 거창한 애국투쟁으로 규정한 여기에 공화국이 맞이하게 될 또 하나의 자랑찬 승리의 담보가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가장 열렬한 인민사랑의 정치이다.

정치의 진가는 어려운 때 검증되는 법이다. 최근 몇해동안에만도 조선인민은 준엄한 시련을 수없이 겪었다. 하지만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떠나 자기의 존재와 혁명의 진일보에 대하여 단 한시도 생각해본적이 없는 세상 제일 따뜻한 손길이 항상 곁에 있어 비록 고난과 슬픔은 있을지언정 앞날에 대한 비관과 절망에 모대기는 사람은 있어본적이 없다.

공화국에 있어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것은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확고히 틀어쥐고 실행하여야 할 최급선무, 가장 영예로운 사업이다. 인민들이 당한 재난을 하루빨리 가셔주기 위해 수도의 당원들을 피해복구전선에로 부르는 령도자의 공개서한이 발표되고 자연재해

와 악성비루스로부터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회의들이 련이어 소집된것은 인민의 불행과 고통은 순간도 방치될수 없으며 소중한 인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에 없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견결한 의지가 국가정치에 철저히 구현되고있는 사회주의조선에만 고유한것이다.

공화국에 있어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가장 중대한 사업, 유일한 존재방식으로 되고있다.

멸사복무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근본핵이다. 지금껏 세계정치사에는 멸사복무라는 말자체가 없었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지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시대어이다.

멸사복무를 존재방식으로 하는 공화국의 진모습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데서 가장 뚜렷이 발현되고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조선로동당이 사회주의강국건설로선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전심전력하고있는것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귀중한 인민들이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는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는 높은 리상과

포부가 맺은 자랑찬 결실들중의 하나가 바로 지난해에 준공을 선포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이다.

이곳은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휴식기지로서의 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추고있다. 실내온천장과 야외온천장, 스키장, 승마공원, 려관을 비롯하여 치료 및 료양구획들과 체육문화공간들, 편의봉사시설들 등 모든 구성요소의 실용성, 호상결합성, 조형예술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온천문화휴양지가 웅장하게 건설됨으로써 사회주의문명창조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였다.

인민을 위해 마련된 또 하나의 선진문명의 창조물은 세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건축물이 매우 수준이 있고 특색이 있다.》

《눈판우의 온천은 정말 훌륭하다. 또 물고기치료는 상당히 고급하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이다. 눈오는 날의 온천은 정말 대단하다. 부러워 죽을 지경이다.》

《인민의 행복, 명랑한 웃음소리. 느낌이 매우 좋다.》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인민을 보았다.》

…

조선이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그 의미를 깎아내리는데 습관된 적대국의 언론들까지도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준공을 두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의 사회

주의가 어떤것인가를 말로써가 아니라 현실로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세계최상급을 견주는 조선인민의 문명상은 이미 미래형으로부터 현재형으로 되였다고 격찬하였다.

자고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고 하였다. 한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것도 쉬운 일이 아닐진대 전체 인민이 기쁨과 즐거움속에 살아가는 나라는 과연 얼마나 부강하고 힘있는 나라이겠는가.

바로 그러한 나라 다시말하여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자는것이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지향하고있는 최고의 리상이고 목표이다. 그를 통해 달성하려는것은 세상에 부럼없는 만족한 삶을 누리며 기쁨과 행복에 겨워 웃음짓는 인민의 모습이며 대대손손 복락을 누리는 지상락원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뜨겁고 강렬해지는것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이다.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나가야 하는 오늘의 정면돌파전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되고 인민들과 후대들이 모두가 무병무탈하고 문명생활을 누리면 그보다 더 기쁘고 힘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수도의 제일가는 명당자리에 인민의 소중한 건강과 안녕을 보다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가 마련되고있다.

어찌 그뿐만이겠는가. 올해에 련이어 들이닥친 큰물과 태풍

으로 혹심한 자연의 재앙을 당한 나라의 곳곳에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발전한 시대적수준에 맞는 번듯한 새 도시, 새 마을들이 비약적인 속도로 일떠서고있다. 이 놀라운 현실을 두고 밥짓는 속도보다 더 빨리 살림집이 솟아난다고, 이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 생겨서 좋다고 했다는 어느 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진솔한 목소리, 그 어디라 할것없이 재난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한 곳곳마다에서 터져오른 《로동당 만세!》의 목메인 웨침은 세상풍파를 다 막아주고 따뜻이 감싸안아주는 가장 위대한 어머니에게 드리는 열화같은 감사의 인사이다.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의해 우리 공화국에서는 전례없이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인민적본태가 변함없이 고수되고있다.

사회주의가 인민의 세상이라고 하여 인민적본태가 저절로 고수되는것은 아니다. 력사적교훈은 당과 국가가 어떤 정치를 실시하는가에 따라 그 본태가 지켜질수도 있고 변색될수도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8년간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업적가운데서 가장 큰 업적은 이 땅우에 사회주의기치가 더 붉게, 더 거세차게 나붓기게 한것이다.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가장 우월한 전반적12년제무료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해마다 현대적인 새 거리, 선경마을들이 일

떠서 평범한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차례진것과 같은 감동적인 화폭들은 자본주의가 아무리 돈주머니를 흔들어대도 흉내조차 낼수 없는 일이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에서 당과 정부가 취하는 조치들에 신경을 도사리면서 그 무슨 《체제이완》과 《변화》의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헛된 망상과 기대를 털어버리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참다운 인민관, 인민철학이 사회생활전반을 지배하고있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집권당과 인민정권의 존재방식으로 되고있기때문에 사회주의국가제도의 인민적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인민의 존엄이 짓밟히고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저속한 치부와 향락에 도용되거나 돈이 인간을 타락시키는것과 같은 사회풍조가 공화국에서는 도저히 발붙일수 없다.

수십여년간 공화국에 대한 최악의 제재봉쇄가 지속되는것으로 하여 인민생활에서는 애로가 적지 않지만 조선인민은 공화국정권을 변함없이 굳게 믿고 따르고있다. 그것은 준엄한 시기에도 인민의 안녕을 억척같이 사수하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거창한 사업을 중단없이 내밀고 인민의 아픔을 가셔주기 위해서라면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이는 공화국의 본태를 실생활로 깊이 체험하였기때문이다.

창건된 첫날부터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인민의 운명을 품

어안고 만사에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게 의거하는 위대한 어머니당!

오로지 인민 또 인민이라는 불변한 신념으로 맥동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의해 공화국공민들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보람찬 삶을 빛내여나가고있다.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근로인민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것으로 하여 광범한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지만 공화국에서처럼 전체 인민이 자기 제도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애착을 가진 나라는 찾아볼수 없다.

공화국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전인민적감정을 반영한 노래들이 적지 않은데 그중의 하나가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이다. 이 노래는 조선인민이 누리는 값높고 보람있는 생활을 그대로 담은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주의는
인민이 주인되여 복받은 세상
사랑과 행복이 꽃으로 피여
보람찬 우리 삶이 밝은 빛을 뿌리네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주의는
누구나 배우며 일하는 세상
온 나라 인민이 한가정 되여
세상에 부럼없이 즐거웁게 산다네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자기 제도에 대한 조선인민의 열렬한 사랑의 밑바탕에는 사회주의는 버리면 죽음이며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나아가는 여기에 밝은 미래가 기약되여있다는 굳은 확신이 자리잡고있다.

사회주의는 사회적환경과 기풍이 건전하고 사람들사이에 화목하며 온갖 불평등이 없는 인민의 락원이다.

사회주의는 공상으로만 존재하던 그때부터 착취와 억압이 없는 세상, 평등하고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표상이고 대명사였다.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그때로부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에서 종국적으로 해방된 조선인민은 장장 수십여년세월 국가의 혜택속에 누구나 꼭같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평등한 생활을 누려왔다.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사회성원들사이에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기풍이 확립되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다. 뿐만아니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하에서 국가는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고상하고 건전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참인간이 될수 있도록 온갖 조건과 환경을 다 보장해주고있다.

이에 대해 외국의 한 인터네트홈페지는 《조선특유의 사회현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누구나 마음껏 배우고 일하며 태여나서부터 사회의 관심속에 인간의 권리를 지켜가는 조선에서는 나라를 위하여, 사회의 번영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것을 호소하는 목소리만 크게 울려나올뿐 사회제도에 대한 울분과 저주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치료비, 집값, 세금 등 분노할 조건이 없기때문이다.》

꽃밭속에 오래 앉아있으면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하는 법이다. 사실 조선인민이 흐르는 생활과 더불어 평범하게,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례사롭게만 여기는 이 모든것을 자본주의세

계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다.

2017년에 한 국제기구는 세계의 8대부호가 세계인구의 절반이 가지고있는것과 맞먹는 자산을 소유하고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기구는 보고서에서 부호와 빈곤간의 모순이 우려하던것보다 더욱 깊어졌으며 자산이 부호들에게 집중되는것으로 하여 대가를 치르는것은 절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였다.

일전에 서방의 한 사회학자가 자본주의사회에 만연하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마태효과》(Matthew Effect)라고 명명한바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자본주의제도하에서 빈부격차는 언제 가도 해소될수 없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뿐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불평등은 비단 경제생활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차별과 인종차별 역시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녀성이라는 리유로 희롱과 폭행,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남자들과 꼭같은 로동을 하고도 훨씬 적은 보수를 받고있다. 유색인종, 소수종족들이 멸시와 천대속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선거권의 제한을 받고있을뿐아니라 최근 미국에서 또다시 일어난 흑인살해사건이 보여주듯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로 일어나고있다.

자본주의가 빚어내는 가장 큰 죄악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말살하고 타락시키는것이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TV오

락편집물가운데서 80%가 류혈적인 살인내용을 담고있으며 매일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에 방영되는 편집물가운데서 폭력장면은 시간당 평균 8～12번이나 펼쳐지고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기형적이며 비인간적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들을 공공연히 묵인조장함으로써 사람들을 정신육체적타락과 도덕적부패에로 부추기고있다.

두엄더미에서 오염되지 않은 생신한 화초를 바랄수 있겠는가.

자본주의의 사회적, 제도적환경은 물질만능과 약육강식의 론리에 환장한 개인리기주의자, 《폭력문화》에 길들여진 범죄자, 색정과 변태에 물젖은 정신적불구자, 비관과 절망에 빠진 자살자,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들을 낳는 온상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변호론자들조차 자본주의사상이 인간성의 상실과 문화의 퇴폐를 가져왔다고 개탄하면서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는것은 우연치 않다.

인간은 돈과 재물만으로는 살아갈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황금이 지배하지 않았던 그때가 황금의 시대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랑과 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빛과 공기처럼 소중하다. 이것이 결핍되여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랭혹한 사회는 서로 잡아먹고 먹히우는 약육강식의 동물세계이고 온기 한점 없는 인간불모지일뿐 사람사는 세상이라고 말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아픈 상처를 입은 사람일수록 더욱 관심하

고 따뜻이 껴안아주는 사회, 인간본태가 살아있고 청순한 인성으로 보살핌과 나눔이 있으며 이웃에 대한 배려가 미덕으로 자리잡은 화목한 대가정이다.

《조선에는 고독증에 걸려있는 사람도 없고 과로증으로 신음하는 사람도 없다. 이곳에는 아무런 방조도 받지 못하는 사람, 홀로 버림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서방에서는 외로운 결과로 오는 자살과 마약중독, 청소년범죄를 제거하지 못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

조선의 무신론자들이여! 그대들은 어머니사랑의 품에서 살면서 그것을 사회주의혁명이라고 말하고있다.》

서유럽의 한 문필가가 남긴 이 글은 여태껏 자기가 살아온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아름다운 인간들이 사는 세상, 미덕의 화원을 직접 목격하고 터친 심리적충격과 깊은 감동의 토로이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진정한 인민의 세상이다.

공화국에서는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 간부도 인민을 위해서만 존재가치가 있는 인민의 심부름군, 충복이며 그들의 구호는 명실공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다. 정권기관도, 병원도, 학교도, 희한한 문명의 별천지들도, 제일 경치좋은 곳에 자리잡은 휴양소, 료양소들도 다 인민을 위해 일떠서있다. 려명거리, 창전거리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

에서라면 온 가족이 먹지도 입지도 않고 일생 벌어도 꿈조차 꿀수 없는 고급주택들을 평범한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내주는 제도적혜택은 변함이 없고 인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전적으로 보장해주는 시책들도 굳건히 존재해있다.

이것은 오직 조선식사회주의만이 가진 매력이고 자본주의는 상상도 못하고 흉내조차 낼수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몇 안되는 특권층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여있다. 선거제도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자본주의세계에서 선거는 막대한 자금이 소비되는것으로 하여 《금전오락》으로 불리우고있다. 2018년에 있은 미국에서의 중간선거는 사상 제일 돈이 많이 든 선거로 기록되였는데 2014년에 비해 35%나 더 많은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상원 의원석을 얻는데는 평균 1 940만US$, 하원 의원석을 얻는데는 평균 150만US$의 자금이 든다고 한다.

항시적인 실업과 빈궁의 위협을 받고있는 평범한 근로대중은 이것을 감당할수 없다. 결국 이것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가주권과 사회관리에 참여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자본의 손에 장악된 정권이 어떤 정책을 작성하고 실시하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겪는 온갖 불평등과 무권리가 바로 여기에 기인되며 이것으로 해서 인민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질수 없다.

사회계급적견지에서 볼 때 자본주의의 기초는 자본가계급이다. 그런것으로 해서 자본주의는 99%에 달하는 절대다수를 배제하고 1%라는 극소수에 뿌리를 박고있는 불균형적이며 위태로운 사회구조를 이루고있다.

이처럼 거꾸로 선 사회제도가 절대다수가 터뜨리는 증오와 분노의 세찬 폭풍에 휘말려들게 되면 밑둥잘리운 고목처럼 되리라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조선인민은 장장 70여년세월 사회주의와 자기의 운명을 함께 하면서 세세년년 갈망하고 념원하던 모든것을 다 성취하였다.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가장 보람있고 평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화목한 대가정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숨결도 하나, 발걸음도 하나가 되여 더욱 좋아질 래일을 향하여 줄기차게 나아가고있다. 이 모든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오늘의 존엄높고 행복한 삶의 전부이며 아름답고 광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다.

사회주의는 달리될수 없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선택,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온 공화국의 력사적총화이며 불변의 진로이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자기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사회주의 우리 집이라 스스럼없이 부르는 고마운 제도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자신들의 귀중한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사랑과 열정으로 미래를

부정의의 질서가 만연하고있는 오늘의 국제무대에서 조선은 의연 세계언론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로골적인 무시와 비방을 일삼는 서방진영의 보도매체들조차 외면할수 없게 하는것이 조선으로부터 매일처럼 들려오는 경이적인 소식들이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적대세력들의 제재장벽에 파렬구를 내며 전해지는 자랑찬 경제건설성과들, 나라의 지평선을 변모시키며 련이어 일떠서는 멋쟁이건축물들,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인간들의 이야기…

가장 악랄한 위협과 공갈, 무차별적인 제재와 압박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있다. 세계가 이제 더는 조선이 처절한 시련속에서 헤여나지 못할것이라고 오판한적도 한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공화국은 시련과 도전을 과감히 뚫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굴함없이 전진하고있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이 달라붙어 수십여년간이나 초강도의 위협과 압박을 가해온 조선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건재할수 있으며 붕괴되기는커녕 나날이 더 강해지고있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

랑,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불같은 애국의 열정이 간직되여있기때문이다.

자기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지칠줄 모르는 투쟁력과 용감성을 발휘하며 활화산처럼 분출하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 아직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류례없는 시련속에서 검증되고 높이 발현되는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은 그 무엇에도 비할바없이 가장 강렬한것으로서 세인의 경탄과 놀라움을 자아내고있다.

공화국에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충만된 조선인민의 지향과 의지가 무엇인가를 잘 알수 있게 하는 하나의 부름이 있다.

《시대의 전형들처럼!》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는 건설장의 속보판에도, 피끓는 심장의 맹세가 분출하는 청춘들의 웅변모임에서도, 로동자합숙의 오락회시간에도 자주 오르는 이 말은 약동하는 시대에 태여난 새로운 시대어라고 할수 있다.

시대어를 가리켜 그 시대를 들여다보는 창문이라고도 말한다. 세월을 주름잡으며 질풍처럼 전진하는 비약의 시대를 구가하는 이 부름에는 애국적인 삶을 가장 숭고한것으로 간주하고 나라의 부강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려는 조선인민의 사상감정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지난해에만도 공화국에서는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거창한 투

쟁속에서 10명의 시대의 전형들이 배출되였다. 그들은 공화국공민이라면 누구나 애국의 본보기로 삼고있는 시대의 선구자, 위훈의 창조자들이다.

그들의 나이와 성격, 일터와 사는 곳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이들이 새겨온 고결한 헌신과 값높은 위훈의 자욱자욱을 음미해보느라면 공통적으로 찾아보게 되는것이 있다.

자기 힘을 믿으라!

누가 보건말건 묵묵히!

분발하고 또 분발하라!

이것은 성실한 땀과 피타는 노력으로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사회와 집단앞에 실천으로써 증명한 시대의 전형들의 애국의 목소리이고 삶의 모습이며 심장의 당부이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시대의 전형들이 발휘한 애국의 넋과 투쟁정신, 일본새를 본받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이 과정에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를 인생의 더없는 긍지와 보람으로 여기는 참다운 인간들이 수없이 태여나온 사회를 감동시키고있다. 그들중에는 경제강국건설에 지혜와 정열을 바치는 근로자들도 있으며 한생을 바쳐 조국의 푸른 숲을 성실히 가꾸어가는 산림보호원들도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 청년들이 번화한 도시를 찾아갈 때 탄광과 발전소건설장으로, 외진 산골과 섬마을학교의 교원으로 탄원하는 미덥고 끌끌한 젊은이들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평양의 정든 집을 떠나 최전연초소에서 병사들을 위해 가장 진실하고 성실한 땀과 지성을 바친 김희련녀성도 저 하늘의 뭇별처럼 무수히 많고많은 참된 인간들중의 한사람이다.

10여년간 5 700여마리의 염소, 980여마리의 돼지를 비롯한 많은 집짐승을 길러 210여t의 고기와 300여t의 염소젖을 생산.

녀성의 몸으로 이루어놓았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 현실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더우기 끌날같은 맏자식을 잃고도 주저앉지 않고 헌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그 정신적힘은 폭풍같은 사회적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두 자식을 초소에 세운것만으로 긍지를 찾던 나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보게 된다. 안온한 집에 앉아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어머니가 되여서는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는 진리를 깨우쳐준 김희련녀성에게 감사를 드린다.》

《김희련녀성에 대한 기사를 읽고 행복의 기준을 달리하게 되였다.》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 김희련녀성과 끊임없는 마음속 대화를 나누며 보답의 맹세를 가다듬고 애국의 한길을 진함없이 달려가겠다.》

…

소박하고 평범한 한 녀성의 애국적소행에 대한 반향은 대양건너 머나먼 곳에서도 울려나왔다.

《김희련녀성의 모습에 고개가 숙어진다. 그 이야기는 온 나라 사람들로부터 진심어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력사와 함께 두고두고 전해질것이다.》

한 재미동포가 김희련녀성의 소행에 접하여 쓴 글 《아들을 영생의 언덕으로》의 한 대목이다.

필자는 글에서 북녘동포들이 너도나도 김희련녀성의 소행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그의 정신을 따라배우려고 하는것은 사회전체가 그러한 정신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있기때문일것이다,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김희련녀성과 같은 애국자가 나올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서로 믿고 돕는 인간다운 사회, 덕과 정이 흐르는 대가정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북의 사회주의제도는 김희련녀성이 무수히 나올수 있는 좋은 토양으로 된다. 북은 실제로 애국자와 영웅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에 맞서서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고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되는것이 수많은 영웅과 애국자들의 피와 땀이 없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이런 토양에서 김희련이 나온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것이다.》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 보석과도 같은 애국의 넋들이 모이고모여 거연한 성새를 이룬 공화국의 현실에 대한 평가이다.

부강조국건설의 지나온 년대기들마다에는 조선인민이 흘린

애국의 진한 피와 땀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가장 야만적이고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어렵고 곤난한 속에서도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는 훌륭한 인민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남들이 걸어온 수세기를 단번에 도약하여 강대한 힘을 비축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조국과 애국자들사이의 관계는 거목과 뿌리사이의 관계와 같다고 말할수 있다. 든든한 뿌리가 없는 나무가 거목으로 성장할수 없듯이 조국도 뿌리와 같은 애국자들이 없으면 강성번영할수 없다. 조국이라는 거목이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부강번영하자면 뿌리와 같은 애국자들이 많아야 한다.

은혜로운 조국의 품,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은 애국자의 대부대를 키워내는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되고있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가장 신성하고 위대한 어머니품이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에게 국가주권과 사회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있으며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소중히 빛내여주고있다.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도 인민

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여 누구나 배울 걱정, 치료받을 걱정, 쓰고살 걱정, 일할 걱정을 모르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었으며 오늘도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인민들이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해주었으며 강대한 조국의 훌륭한 미래를 안아오기 위해 적극 투쟁하고있다.

진정한 조국은 인민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는 곳, 위대한 수령이 마련해준 인민의 나라이다. 조국이 없으면 자기들의 행복도 미래도 없음을 잘 알고있기에 조선인민은 조국을 어머니라 정겹게 부르며 자기의 운명도 미래도 모두 맡기고 귀중한 모든것 지어는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고있는것이다.

자기들이 몸담고 사는 국가사회제도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함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구호가 인생관화되여있고 사회성원들사이에 서로 돕고 이끄는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 또한 애국적소행들이 적극 발휘되게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생산과 건설에서 앞서나가고있는 단위들, 전형단위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여 새로운 전형단위들을 창조하기 위한 따

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애국의 불길이 전사회적범위에서 세차게 고조되고있는데 이것은 개인주의, 본위주의가 만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조선특유의 사회현상으로 되고있다.

조선인민이 발휘하고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헌신은 숭고한 애국주의에 그 원천을 두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진실하고 열렬한것으로 되고있다.

일반적으로 애국주의라고 할 때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상관점과 립장 또는 정신을 말한다. 하지만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새겨진 애국주의는 애국주의 일반이 아니라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부강하게 하는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소중히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애국주의, **김정일**애국주의이다.

김정일애국주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총매진하고있는 조선인민의 마음속에는 한생을 조국의 뿌리로 사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이 깊이 간직되여있다.

김정일장군님은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룡남산마루에서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신 그날로부터 인간이 겪을수 있는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시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멈춤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사회주의제도의 정당성과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한 위대한 장군님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은 고난을 이기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조국땅 그 어디에나 력력히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의 륭성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높이 발휘된 숭고한 애국의 넋과 의지를 **김정일**애국주의로 명명하시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한생이 사회주의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빛을 뿌리도록 하여주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으로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를 이룬다.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에 바탕을 두고있으며 숭고한 후대관으로 일관된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

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부어주는 힘있는 원동력이다.

김정일애국주의를 불씨로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다.

이로부터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김정일**애국주의 교양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고 폭넓게, 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현실에 발을 붙이고 구체적실정에 맞게 진행하여 광범한 근로대중의 애국열, 투쟁열이 최대로 발양되도록 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자신을 늘 비추어보면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할줄 아는 참된 인간들이 끊임없이 태여나고 공화국은 역풍을 길들이며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찬 보폭을 내짚고있는것이다.

정녕 절세위인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정일**애국주의는 오늘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추동력일뿐아니라 대대손손 길이 전해갈 민족의 고귀한 넋이고 사상정신적유산이다.

현시기 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의 감정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하여 보다 큰 노

력을 기울이고있다.

그를 위해 강국의 위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국풍을 창조하고 실생활에서 높이 발양해나가도록 하는데도 깊은 주목을 돌리고있다. 뿐만아니라 《조선의 국가상징》과 같은 도서들과 **김정일**애국주의의 기치높이 성실한 땀과 노력, 지혜와 열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노래 《조국찬가》, 《우리의 국기》를 비롯한 기념비적명곡들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존엄과 국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서 발전하고있는 시대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을 천명하신것은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근로대중의 사랑과 헌신의 열정을 총폭발시키는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에는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와 현실을 열렬히 긍정하고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는 애국정신이 응축되여있고 강국건설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이 담겨져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를 사상정신적기초로

하고있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열의를 비상히 분발승화시키고 사회주의의 전진비약을 촉진시키는데서 위력한 정치사상적무기로 된다.

이 위력한 무기가 있어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두렵지 않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것이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억척의 신념이다. 불타는 조국애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대업실현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위대한 인민이 있기에 사회주의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광명한 미래는 오직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만이 안아올수 있다. 인민은 영원한 존재이며 가장 큰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조선은 이 진리를 반영한 지도사상으로 무장되고 조국에 대한 사랑과 애국의 열정에 넘쳐있는 인민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뿌리박은것으로 하여 그 어떤 대국도 지닐수 없는 거대한 힘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인민이 심장으로, 온넋으로 따르고 받드는 국가는 필승불패이다.

4. 자력자강으로 전진하는 나라

오늘 공화국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창조와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류례없는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이 자기가 마음먹은것을 실천에 옮기며 국가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해나가고있는것은 결코 조건과 환경이 남달리 유리해서가 아니다.

수십년간 다져온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토대와 능력있는 과학기술력량, 자력갱생을 체질화하고 애국의 열의로 피끓는 영웅적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이야말로 우리 국가의 귀중한 전략적자원이며 무에서도 열, 백을 창조하는 신비한 능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립경제의 위력으로

몇해전 어느 한 나라의 출판물이 북조선은 슈퍼콤퓨터와 노트형개인용콤퓨터, 액정TV, 스마트폰, 각종 공업용정밀기구 그리고 피아노나 바이올린, 손풍금 등의 악기들과 심장수술용의료기구들을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몇 안되는 공업국가들중의 하나이라는데 대해 지적한바 있다.

공화국이 올라선 국력의 높이, 부국강병을 지향하고있는 조선의 경제발전수준을 가늠해볼수 있게 하는 평가이다.

사실 일정한 경제적토대를 가지고있는 나라라고 해도 국가의 생존과 강화발전에 요구되는 각종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한다는것은 대단히 힘에 부친 일로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인구도 많지 않고 령토도 크지 않은 공화국이 그것도 장기간에 걸친 가장 엄격한 경제기술적봉쇄속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내고있는 현실은 실로 경이적인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킨 조선의 신비로운 기적은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해 이룩된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란 한마디로 말하여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중공업 및 경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국내수요를 기본적으로 국내생산으로 충족시킬수 있고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이 나라의 경제토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수 있을뿐아니라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대외무역도 원활하게 발전시킬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은 비단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자기의 존재와 지속적발전을 도모하자면 자체의 든든한 밑천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강력하고 자립적인 경제토대이다. 강력한 자립적경제토대를 축성하는것은 단순히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것일뿐아니라 정치적자유와 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기 위한 실질적담보인 경제적자립을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서 보다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이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을 위한 물질적기초로 된다.

경제적예속이 정치적예속을 낳는다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불피코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의 속국, 추종국가로 전락되게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현대판노예의 신세를 면할수 없게 된다. 지난 시기 적지 않은 나라들이 간고한 투쟁을 벌려 독립을 달성하고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것으로 하여 또다시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신식민지로 전락된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경제적자립을 예속과 굴종의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2의 해방투쟁》이라고 하는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화려한 변신을 꿈꾸며 다른 나라의 《원조》에 기대를 거는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인 나라들은 례외없이 민족산업이 파산몰락하고 값비싼 자원이 헐값으로 수탈당할뿐아니라 경제의 명맥이 외래독점자본에게 쥐여져있기때문에 국가사회생활에서 주체성과 독자성을 견지할수도 없다. 진정한 정치적독립을 이룩하고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려면 반드시 경제적자립을 이룩해야 한다.

경제적자립은 또한 자위적국방력건설의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지나온 력사는 침략의 마수가 언제나 자체방위력이 미약한 나라들에 먼저 뻗치고있었음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제힘으로 자기를 지킬 군사적힘을 갖추는것은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남에게 의존해서는 언제 가도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할수 없다. 외부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려면 필수적으로 현대적이며 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자체로 만들어낼수 있는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결코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과 환경에서 순풍에 돛 달듯이 순탄하게 진행된것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사회발전의 정상적단계를 거치지 못한 우리 나라의 경제적토대는 말할수 없이 미약하였다.

20세기 초엽 우리 나라의 산업실태에 대하여 《조선근대경제사》에는 이렇게 서술되여있다.

《…금속제품생산과 광업이 생산수단 특히 로동도구의 생산과 직접 결부되지 못하였다. 철제품, 놋제품은 주로 소비품들이였고 로동도구는 간단한 농기구생산에 국한되였으며… 석탄은 개발시초에 불과하였고 그것마저 대부분 소비적수요에 돌려졌다.》

자료에 의하면 1905년에 우리 나라의 전체 공업동력은 기껏해서 227hp에 불과하였다. 1911년에 전국적으로 비록 명색뿐이지만 그래도 조선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이라고 할만 한것은 겨우 86개로서 대부분 수동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진행하

고있었으며 거기에서 일하는 조선인기술자는 모두 132명뿐이였다고 한다.

해방후에도 나라의 경제형편은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략탈정책의 후과로 말미암아 빈터나 다름없었다. 변변한 기술자도 없었고 국고는 텅 비여있었으며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식민지경제토대마저 일제가 패망하면서 깡그리 파괴해버리였다. 그후에 있은 3년간의 전쟁은 이 땅의 모든것을 참혹하게 파괴해버렸다. 말그대로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는 재더미뿐이였다.

나라의 경제토대가 미약한것도 문제였지만 외부의 간섭과 압력은 자립경제건설을 더더욱 어렵게 하는 중대한 도전과 장애로 되였다.

적대세력들이 가혹한 제재봉쇄로 조선의 경제건설을 가로막아나섰으며 대국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 역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못마땅해하면서 각방으로 압력을 가하였다. 여기에 편승하여 내부에 숨어있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하면서 당과 정부의 경제건설로선을 시비중상하고 반대해나섰다.

그러나 공화국은 재더미를 헤치고 봉쇄와 압력을 짓부시며 자립경제건설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불과 9일만인 1953년 8월 5일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는 중공업의 선차적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

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갈데 대한 전후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제시되였다. 이것은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의 복구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독창적인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기도 하였다.

중공업의 우선적발전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적발전, 이는 경공업을 먼저 발전시켜 자금을 축적한 다음 중공업을 건설하거나 일정한 기간 중공업을 강행적으로 건설한 다음 경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경제건설에서 하나의 공식처럼 되여있던 당시로서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본적 없는 전혀 새로운 경제건설로선이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단순히 전후복구와 먹는 문제, 입는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서 제시된 로선이 아니였다. 목전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처럼 어려운 전인미답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될것이였다. 그러나 모든것이 령상태에 놓인 전후의 형편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중공업의 우선적발전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한것은 이 길만이 튼튼한 자립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제것을 가지고 제땅에서 후손만대를 이어가며 가슴펴고 떳떳이 살아갈수 있는 옳바른 길이기때문이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따라 공화국에서는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토대를 창설하는것과 함

께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지방공업의 병행적발전, 자체의 인민소비품생산기지 축성, 농촌경리의 다각적발전, 기술적개조 추진, 공업화의 기초축성 등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쌓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였다. 뿐만아니라 자립적공업체계를 이루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공업생산구조 완비, 자체의 튼튼한 원료, 연료, 동력기지 축성,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 추진, 철도의 전기화 실현, 민족기술인재의 대대적육성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공화국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계승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새로운 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자립적경제토대와 경제구조를 고수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치의 탈선도 몰랐다.

이렇게 마련된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우에 자랑찬 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섰다. 지난 세기 80년대에 현대공업의 정수라고 하던 1만t프레스와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들어낸것도, 세상사람들이 오늘도 《20세기의 기적》이라고 격찬하는 방대한 규모의 서해갑문건설을 불과 5년만에 완공하는 세계갑문건설력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을 창조한것도 주체공업의 위용을 절감하게 하는 대표적실례들이다.

특히 공화국은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쥠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획기적으로 강화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를 가지였

다. 이것은 공화국이 CNC설비들을 자체로 개발할수 있는 능력 다시말하여 그것을 설계, 제작할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전시기에는 공업국가라고 하면 공업이 농업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를 말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현대공업국가를 정의할 때 특히 CNC기계를 만들수 있는가 없는가를 해당 나라의 경제기술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보고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CNC공작기계를 만드는 나라들이 적지 않지만 첨단급의 설비를 만드는 나라는 불과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급형, 저원가형의 표준형 CNC기계만 만들고있는데 그나마도 자체로 개발생산하는 기업들은 얼마 없고 도이췰란드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에 막대한 자금을 주고 사온 설계도면에 의존하고있다고 한다.

공화국은 이미 1990년대에 2～4축의 표준형CNC공작기계를 만든데 이어 2000년대에는 5축가공중심반과 고성능형의 8축, 9축CNC공작기계를 련이어 개발하였으며 2010년에는 CNC공작기계기술에서 가장 앞선 단계에 이른 최신형의 어미기계인 9축 선삭가공중심반을 만들어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공작기계는 자동차공업과 선박공업, 우주 및 항공공업, 국방공업을 비롯한 나라의 경제력, 국방력강화의 심장부를 이루는 전략설비로 되고있다.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쥠으로써 불과 수십년의 력사를 가진 공화국의 기계제작공업은 가장 발전된 나라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획기적성과들의 귀중한 담보로 되였다.

이처럼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가 있음으로 하여 공화국은 지난 세기 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과 같은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도약대를 튼튼히 다질수 있었고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와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이 창조와 건설을 배심있게 추진시켜나가고있다.

2008년 파국적인 금융위기가 온 세계를 휩쓸고있을 때 어느 한 나라의 통신이 이런 글을 전한적이 있었다.

《이 무시무시한 동란속에서도 태연하게 있을것은 북조선뿐이다.》

수백년의 력사를 자랑하던 거대은행들과 독점체들이 련이어 쓰러지고 그 여파로 절대다수의 나라들과 기업들이 아우성치고있을 때에 발표된 한토막의 기사가 국제사회에 던진 충격은 자못 큰것이였다. 여기에는 공화국이 건설한 자립적민족경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무시할수 없는 세계의 평가와 인정이 있다.

한세기전 국제박람회장에 짚신과 지게밖에 내놓을것이 없

었던 조선의 국력은 오늘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섰는가.

무적의 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이는 국력의 최절정에 올라선 공화국의 지위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를 굳건히 떠받치고있는 자립적민족경제의 저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이다.

물론 공화국의 경제규모는 크다고 볼수 없다. 하지만 튼튼한 자립적토대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국가의 생존과 발전, 인민의 행복을 위한 모든것을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낼수 있는 강위력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11월 20일 미국 동서문화쎈터의 한 연구사가 외교안보전문잡지 《디플로매트》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외부의 강압이 통하지 않는 경제구조가 조선으로 하여금 최강의 억제력을 갖출수 있게 한 요인중 하나로 되였다는 내용의 분석을 제기한것도 자립경제의 위력에 대한 반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종합적국력의 집합체라고도 말할수 있는 인공지구위성도 그렇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인공지구위성과 그 발사수단인 운반로케트를 만들자면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전자공학, 기계공학, 조종학, 우주공학, 체계공학 등 여러 분야의 현대응용과학기술은 제쳐놓고라도 위성제작에 들어가는 전자부분품과 기계적장치만 해도 이루 헤아릴수 없다. 운반로케트를 제작하는데는 수천℃의 고온에서도 견딜수 있는 내

열성재료, 연료에 의한 부식이 없는 내부식성재료 등 여러종의 특수재료들과 각종 고압용기들, 뽐프들, 조종변들과 계기들이 있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수만가지 부속품을 가공, 제작해야 할 고성능CNC기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운반로케트의 심장이라고도 할수 있는 발동기제작기술은 사소한 기술이전도 철저히 금지되고있는 《흐르지 않는 기술》로 간주되고있다.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좌우하는 특급비밀로 보호되고있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있는 나라들사이에도 핵심기술루출이 엄격히 통제되고있다. 때문에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수준에서 제노라 하는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들의 운반로케트를 빌려 자기의 인공지구위성을 우주궤도에 올려놓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은 위성제작으로부터 발사에 이르는 모든 공정들, 나사못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비와 부속품들을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보장하였다. 이것은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경제부문구조를 갖추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자립적 경제토대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강철의 신념,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해 마련되고 고수되여온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날이 갈수록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렬강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전략적패권을 추구하며 군사력증

강으로 세계정세를 위험계선에로 각일각 몰아가는 지금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공화국은 얼마나 자신만만한가.

제국주의자들이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명줄을 움켜쥐고 전횡을 부리는 때에 자립경제의 힘으로 역풍을 맞받아 자력부강의 길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은 얼마나 당당한가.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것으로 하여 공화국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자주의 강국으로 세인의 찬탄을 불러일으켰다.

《오직 마음에 들게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는 조선이다. 조선은 완전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누구에게도 예속되여있지 않다.》

《이전에 조선이 쎄브에 들지 않고 자립경제를 주장한다고 하여 시비가 많았지만 쎄브에 들었던 나라들은 다 망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 조선만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있다. 조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성공한 나라이다.》

최근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취해지고있다. 특히 자립경제를 떠받치는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발전에 큰 힘을 돌리고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이미 산소열법용광로에 의한 주체철생산체계가 확립되고 련관생산단위와 공정들을 신설확

장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둠으로써 생산정상화가 이루어지고있고 또 그를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들도 활발히 진행되는 등 강철공업의 주체화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전망이 열리고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도 국내원료와 자재에 철저히 의거하여 각종 화학제품들을 수요대로 중단없이 생산해내는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 자원절약형, 기술집약형, 개발창조형의 다방면적인 생산체계를 갖추는것을 주체화된 화학공업의 새 부문구조로 명시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이미전부터 진행해오던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빠른 기간안에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것과 함께 회망초에 의한 탄산소다생산공정과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공정의 확립 등 새로운 원료에 의거한 화학공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들도 전망성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아직은 경제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지만 공화국의 발전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그 어떤 봉쇄도 압력도 조선이 나아가는 길을 변경시킬수 없으며 자립경제를 질식시킬수 없다.

수십년간 다지고다져온 자립적경제토대야말로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과 무궁번영을 담보하는 귀중한 전략적자원이다.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앞세우고

오늘 공화국은 경제전선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다. 세계가 공인하는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공화국이 경제강국건설이라는 또 하나의 전략고지에 승리의 기발을 꽂게 되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하는것은 시간문제이라는것이 기정사실화되고있다.

과학기술은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동력이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데서 중핵적인 문제인 원료와 연료, 설비의 주체화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힘은 과학기술력이다. 과학으로 발전하고 살아가는 현시대에 과학기술을 떠난 경제발전이란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더우기 적대세력들의 경제기술적봉쇄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조건에서 자강력을 급격히 증대시키며 모든 부문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

현시기 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고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첨

단돌파전이 전례없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공화국이 벌리고있는 첨단돌파전은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사상전, 두뇌전이다.

이것은 첨단돌파전이 과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한 폭발시켜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이 경제발전도 사람의 준비정도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되게 된다. 첨단과학분야를 개척하고 현대적설비를 연구제작하며 그것을 다루는 존재는 다름아닌 사람이다.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유능한 인재가 준비되지 않고서는 경제강국의 상상봉에 올라설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리치이다.

인재란 뛰여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분야에서 한몫 담당할만 한 재목이 되는 사람, 사회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자기의 두뇌로 일감을 찾고 한계에 도전하며 새로운 착상을 내놓을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인재이다.

사회발전에서 인재들이 노는 역할은 비할바없이 크다. 인재가 사회력사발전, 나라와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존재인것으로 하여 《문명은 인재들을 애타게 찾는 장구한 과정》, 《인재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는 말도 생겨났다.

인재가 없는 사회는 별이 없는 하늘과 같고 인재가 많은 나라는 광명으로 가득찬 우주와 같다는 말이 있다.

특출한 재능을 가진 인재들이 많으면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할수 있고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는 군사적힘을 가질수 있다. 인재가 많은 나라는 부흥하고 강대해지기마련이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 필요한 인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있다. 높은 우대조건으로 인재들을 끌어당기거나 비싼 가격으로 그들을 사들이는 인재수입, 인재쟁탈이 나라들사이에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정의롭고 강력한 과학기술력량을 가진 나라와 민족에게 강대하고 꺼질줄 모르는 힘이 있다.

일찍부터 인재중시, 과학중시를 국가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문제로 내세우고 빛나게 실현하여온 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전선을 강국건설의 제일척후전선으로 정하고 그 주력군으로 다름아닌 과학자, 기술자들을 내세우고있다.

부언하건대 공화국은 자기식의 우월한 인재양성의 토양에서 키워낸 능력있는 과학기술력량, 인재대군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강국에로의 비약적인 발전과 그 실현의 휘황한 미래는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강국건설의 주력부대로서 인재대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체조선의 존엄과 운명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애국자중의 애국자부대이라는것이다.

지식인들은 과학자이기 전에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하고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닌 열렬한 애국자여야 한다.

높은 과학기술지식도 투철한 정치사상적준비가 안받침될 때 조국과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할수 있다. 우리 민족이 낳은 계응상, 리승기와 같은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천재적인 두뇌에 앞서 열렬한 애국심과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닌 사람들이였다.

세계적으로 인재류출, 두뇌류출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 있는 오늘 이 땅에서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주체조선의 과학자들에게는 사회주의조국이 있다는 신념의 웨침이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하루이틀도 아니고 때로 몇십년도 걸릴지 모를 과학탐구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참된 인간들이 바로 주체조선의 지식인들, 인재들이다.

공화국의 지식인들은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할뿐아니라 높은 과학기술적자질과 재능을 지닌 보배들이다.

조선사람의 두뇌가 비상하다는데 대해서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천성적으로 뛰여난 두뇌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체계에서 열심히 배운것으로 하여 공화국의 과학기술인재들은 민족의 우수한 기질을 그대로 체현하고 현대과학기술로 무장

한 유능한 재사들이다. 이들중에는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걸고 첨단설비의 프로그람을 자기식으로 새롭게 개발하여 생산을 보장함으로써 엄청난 액수의 기술봉사료를 요구하던 기술재세군들의 코대를 납작하게 눌러버린 연구사들도 있고 제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설계도면 한장도 없는 현대적설비를 사진 한장만 가지고 훌륭히 만들어낸 기술집단도 있다. 참으로 총명한 두뇌와 특출한 실력으로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널리 떨친 사실들을 다 꼽자면 아마 끝이 없을것이다.

이처럼 미덥고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의 헌신적노력과 투쟁에 의해서 공화국에서는 첨단산업분야를 개척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공장, 기업소들이 계속 일떠서고있는것과 같은 귀중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건설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창조적힘과 열정에 의거할 때 더욱더 활력있게 추진될수 있다. 인민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인재들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전체 인민을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지닌 유능한 실력가, 힘있는 창조자로 키워 우리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하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이다.

그 뜻에 떠받들려 공화국에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

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두가지 체계를 통하여 실현되고있다. 하나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같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와 통신 및 원격대학교육, 정규적인 학습체계를 통하여 실현되며 다른 하나는 기술학습과 기술전습체계를 통하여 실현된다.

현시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서 원격교육이 중요한 몫을 맡고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교육이 원격교육과 결합되고 중요대학들에서의 통신교육이 원격교육으로 전환되여 높은 수준에서 교육이 진행될수 있게 되였다.

공화국에서 원격교육은 2010년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였는데 지금은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건축대학, 평양기계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들에서 활발히 운영되고있다. 2015년에 제1기 졸업생들을 배출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은 첫 개교식때 수십명에 불과하던 학생수가 오늘은 수만여명을 헤아리고있다. 지금은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가 확립되여 시공간의 제한이 없이 손전화기나 판형콤퓨터와 같은 정보단말장치로도 원격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였으며 그 지망자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이와 함께 각지의 생산단위들에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들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을 위한 중요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이곳에서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지식을 마음껏 습득할수 있게 됨으로써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며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인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보급망을 형성하여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이 중앙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도록 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의도가 철저히 관철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요구되는 인재들을 충분히 확보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실천에서 뚜렷이 증명되고있다. 올해의 몇달사이에만도 320여명의 로동자들이 학위학직증서, 발명증서, 창의고안증서를 수여받았다. 인민들이 선호하는 《매봉산》상표로 유명한 원산구두공장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지난해 상반년기간에 70여종의 새로운 신발들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한것은 그 단적인 실례로 된다.

사회주의조선의 전진속도가 빨라질수록 그것을 멈춰세워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준동은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제재항목에 쌀이나 원유보다도 첨단과학기술의 이전과 교류를 차단하는 조항부터 박아넣으며 경제기술적봉쇄를 끈질기게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과학기술만 있으면 먹을것도 나오고 입을것도 나오며 남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다는데 대한 반증이나 같다. 적

대세력들은 조선이 세월이 흐를수록 낡고 뒤떨어져서 나중에는 석기시대가 사라져버렸듯이 사회주의의 사상과 제도와 력사가 저절로 종말을 고하기를 바라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왕가물에 바다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것과도 같은 어리석은 기대가 아닐수 없다.

현시기 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관점과 일본새를 국풍으로 철저히 확립해나가고있다.

국풍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해당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지향과 관점, 투쟁기풍과 생활풍조라고 할수 있다.

과학기술중시를 국풍으로 확립한다는것은 누구나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여기는 관점을 지니고 모든 문제를 과학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과학발전의 담당자가 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가 일떠서고 연풍과학자휴양소, 미래상점 등이 훌륭히 건설된것은 과학기술인재들을 금싸래기처럼 아끼고 그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 연구조건을 보장해주고있는 공화국의 과학중시기풍을 잘 알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부문별과학기술전시회, 발표회, 성과전람회들에 전문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수많은 일군들이 적극 참가하여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출품하고있으며 전사회적으로 수자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는 사실들을 놓고서도 과학기술중시를 확고한 국풍으로 수립해나가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잘 알수 있다.

과학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라면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이라고 할수 있다.

오늘 세계적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을 중시하고 여기에 관심을 돌리고있지만 공화국에서처럼 교육사업을 중요한 국사로 틀어쥐고나가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공화국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법령에 따라 2014년부터 교육기간이 종전보다 1년 더 늘어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소학교학제를 1년 늘이고 6년제중학교를 각각 3년제의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갈라서 운영한다는것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학교와 교실들을 새로 지어야 하고 교구비품들을 갖추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기때문이다. 일전에 유네스코가 교육기간을 1년 연장하면 국민소득이 1% 장성한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하였듯이 누구나 그 우월성에 대해 인정은 하면서도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는것도 바로 이런 리유에서이다.

나라의 경제형편이 아직은 어려운 속에서도 가장 우월한 교육체계를 운영하고있는 사실은 교육발전에 대한 공화국의 지향과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교육의 질을 최단기간내에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리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따를수 없는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자는것이 공화국이 내세운 원대한 목표이다.

이에 따라 평양교원대학이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교육인재양성의 원종장으로 훌륭히 꾸려졌으며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선진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창안, 도입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올해에 전국각지에 190여개의 정보기술부문 기술고급중학교들을 새로 내오는것과 같은 조치들도 취해졌다.

올해 4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을 실시할데 대하여》가 채택됨으로써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법적토대가 더욱 공고히 다져지게 되였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인재강국에로 도약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는 자랑찬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공화국의 청년대학생들이 국제적인 프로그람경연무대들에서 어머니조국의 영예와 민

족의 슬기를 남김없이 떨치고있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세계 수십여개 나라에서 수만여명의 대학생,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국제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인 《코드쉐프》경연에서 공화국의 청년대학생들이 해마다 여러차례에 걸쳐 우승의 성과를 거둔데 이어 올해 7월에도 **김일성**종합대학의 대학생이 경연의 최고점수인 1 000점 만점을 받아 영예의 1위를 쟁취한 사실, 지난해 11월 중순에 진행된 제44차 국제대학생프로그람 아시아심양지역 경연에서 1개의 컵과 2개의 금상, 2개의 문제풀이속도상을 쟁취함으로써 국제대학생프로그람 세계결승경연참가자격을 획득한 사실 등을 놓고서도 공화국이 배출한 인재들의 지능수준, 지적잠재력이 과연 어떤 높이에 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뿐만아니라 2018년의 제27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7개의 금메달을 쟁취한데 이어 지난해에 진행된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는 11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28개의 메달을 쟁취하고 나라별종합순위에서 단연 영예의 제1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를 경탄시켰다.

공화국의 과학교육사업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발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과학중시사상과 로선을 빛나게 이으시여 이 땅우에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비약하고 번영하는 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과학기술로 발전하고 과학기술로 살아가는 현시대에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세기를 주름잡아 도약해나가야 한다시며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세계를 굽어보는 야심만만한 배짱과 민족적자존심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사람은 밥을 먹고 크고 과학은 실패속에서 솟구쳐오른다고 하시며 힘과 믿음을 더해주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랑의 금방석에 앉혀주시며 온갖 열과 정을 다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은정은 총명하고 실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안아키운 자양분이다.

과학이 없이는 미래가 있을수 없다!

이 숭고한 뜻과 의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이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였으며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로 내세워주시였다. 나라의 과학교육사업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실 웅지를 안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신 그이의 무한한 사색과 심혈의 자욱자욱을 다 이야기하자면 정녕 끝이 없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전략적구호는 사회주의조선의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오늘 공화국의 전체 인민은 과학으로 비약하고 과학으로 번영할 조국의 밝은 미래를 락관하고있다.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조선의 앞길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으며 경제강국의 높은 봉우리에도 반드시 승리의 기발이 나붓기게 될것이라는것이 조선인민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맥박치고있는 억척의 신념이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최근년간에 공화국에서는 황해남도물길과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순천린비료공장을 새로 일떠세우고 평양종합병원과 단천발전소건설,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사업 등을 면밀히 추진시키고있는것을 비롯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수많은 대건설사업들이 활기있게 진행되고있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뜨락또르와 자동차,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 지하전동차들이 달리는것과 같은 자랑찬 현실들이 펼쳐지고있다.

최악의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있는 공화국이 세인의 예상을 뛰여넘으며 이 땅의 방방곡곡에서 창출하고있는 기적의 이름들은 같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안아올린 뿌리는 하나, 자력갱생이다.

현시기 공화국에서는 창조와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력갱생의 투쟁정신과 일본새를 더욱 높이 발휘해나갈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자력갱생을 사회주의의 존립의 기초, 전진과 발전의 동력으로,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으로 내세우고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그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잘 알수 있는것이다.

무엇보다도 자력갱생은 나라의 자주적존엄과 인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유일무이한 창조방식이다.

국가와 인민에게 있어서 존엄과 삶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으며 그것은 오직 자기의 힘, 자기의것으로만 지킬수 있다. 자기가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제힘으로 자기를 지키며 자기의 밑천으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갈 때에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할수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도 살아나갈수 있다.

자존과 의존이라는 말은 비록 한 글자가 다르지만 그 내용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단순히 생존방식이나 운영방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를 판가름하는 사활적인 문제로서 그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여하에 따라 주인과 노예의 처지가 규정되는것이다. 남에게 의존하는데 습관되면 자그마한 난관앞에서도 맥없이 주저앉게 되며 남의것은 다 좋게 보고 자기의것은 다 나쁘게 보는 청맹과니가 되고만다. 이렇게 되면 설사 돈더미우에 올라앉았다 해도 제힘으로 일

떠설수 없고 언제 가도 남을 따라앞설수 없으며 결국에는 남의 손발노릇을 해야 하는 처지에서 영영 벗어날수 없게 된다.

비록 가시덤불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전인미답의 간고한 생눈길이지만 조국의 전진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힘들어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것이 바로 자력갱생의 길이다.

또한 자력갱생은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 번영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도이다.

자력갱생은 곤난이 겹쌓인다고 하여 주저하고 동요하거나 뒤떨어졌다고 하여 락심하지 않는 불굴의 투쟁정신이며 끊임없이 자기 힘을 키우고 세계를 앞서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위력한 창조방식이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공화국이 100년이 걸려도 절대로 일떠서지 못한다는 적대세력들의 궤변을 짓부시고 전후의 빈터우에서 《승리－58》형자동차와 《천리마》호뜨락또르를 만들어낸것이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해마다 평균 19.1%의 높은 공업생산장성률을 기록하며 단 14년만에 공업화를 실현하고 아시아의 힘있는 공업강국으로 도약하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한것은 결코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이룩된것이 아니였다. 세상사람들이 살아숨쉬는것마저 기적이라고 일컫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기계제작공업의 첨단을 돌파하고 국력의 상징, 첨단과학기술의 정수인 인공지구위성발사에서 단번성공의 신화를 창조한것

과 같은 눈부신 성과들은 남이 도와줄것만을 바라면서 가만히 앉아있었더라면 언제 가도 이룩될수 없었을것이다. 자력갱생궤도우에서 천리마가 날아올랐고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이 탄생하는 민족사적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공화국의 강국건설위업은 보다 강력한 발전동력을 요구하고있다. 그 결정적인 전진동력은 어떤 외부적요인이나 신묘한 처방이 아니라 오직 조선인민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에 있다.

이 세상에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며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은 인류력사의 어제와 오늘이 실증해주는 철리이기도 하다. 자기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하려는 나라들사이의 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남의 힘을 빌어 잘살아보겠다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력사를 돌이켜보아도 아직 그 어느 선진국이 후진국들에 경제적번영을 선사한 전례가 없으며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자기 손으로 번영의 씨앗을 뿌려 가꾸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있다.

가장 확실한 번영의 길은 재부의 축적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발전의 확고한 주체가 되는데 있으며 그러자면 반드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자랑찬 창조와 위훈으로 수놓아진 부강조국건설사의 전 로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이 되여온

자력갱생의 전통과 정신은 오늘 번영의 보검이 되여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조선인민의 거세찬 진군을 더욱 힘있게 떠밀어 주고있다.

오늘의 시대는 어제날의 새것이 얼마 못 가서 낡은것이 되고 최신기술도 불과 며칠만에 뒤떨어진 기술로 밀려나는 시대이다. 남들이 10년, 20년 그렇게 수십년을 경주해온 발전과 번영의 길을 단 몇년안팎에 따라앞서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무엇보다도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자기 민족이 결코 남보다 못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높이 떨치겠다는 굳은 각오와 의지는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고 앞서나가기 위한 노력의 성과를 담보하는 정신적무기라고 할수 있다.

자력갱생의 정신은 자기의 힘과 자원,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 최첨단돌파의 정신으로서 자주와 자존을 생명처럼 여기는 조선인민의 기질과 배짱에 맞는 창조원칙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에서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확립하던 때의 사실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은 기술도입과 설비제작 및 운영이 극히 어려운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프로필렌, 공기, 증기를 반응시켜 아크릴산을 합성하는데 원료들의 배합비률을 조금만 잘못 조작하여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 막대한 피해를 빚

어낼수 있기때문이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경제가 발전하고 돈이 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아크릴산공업을 창설할 엄두를 쉽게 내지 못하고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질좋은 각종 칠감들과 토지개량 및 수분보충제인 테라코템까지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정은 보기에도 흐뭇한것이지만 그 창설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많은 나라들이 저마끔 이 공정개발에 뛰여들었다가 출발의 첫걸음도 제대로 떼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는 사실은 헤쳐야 할 고난과 시련이 어느 정도인가를 예고하고있었다.

당시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 불과 다섯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나라만이 독점하고있는 첨단기술이였다. 그래서 공화국의 기술대표단이 어느 한 나라에 갔을 때에도 그곳 사람들은 생산설비로부터 100㎜거리안에 접근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나마도 뻐스에 태워서 한바퀴 돌아보게 하는 방법으로 공장을 참관시키고는 돌아갈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칠감을 사다가 쓰는것이 좋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의 과학자로서의 민족적자존심이 백배로 치밀어올랐다. 조선의 아크릴계칠감공업이 태여나느냐 마느냐 하는 운명의 대결전속에서 이들은 불가능에 도전해나섰다.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이 근육처럼 불끈해졌고 민족적자존심이 세차게 끓어올라 무서운 정신적폭발을 일으켰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설계로부터 설비제작과 조

립에 이르는 모든 공정들을 불과 다섯달동안에 끝냈으며 특히 남들은 여러해가 걸려서야 완성했다는 폭발구역감시조종체계를 불과 수십여일만에 구축하여 칠감생산공정을 안전하게 관리운영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뿐만아니라 수입해야만 한다던 아크릴산합성공정의 분산형조종체계와 방대한 PLC조종프로그람, 대면부프로그람까지 모두 새롭게 작성하여 견본모방형이 아닌 개발창조형의 칠감생산체계를 단번성공으로 확립하였다. 프로필렌직접산화법에 의한 아크릴산합성기술을 자기식으로 개발도입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화학공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토대가 축성되고 칠감생산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고히 장악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동양에는 값진 재물이 끝없이 쏟아져나온다는 신기한 보물단지 《화수분》에 대한 전설이 있고 서양에는 무엇이든 담아두면 그것이 계속 새끼를 쳐서 물건이 넘쳐흐른다는 《풍요의 뿔》에 대한 신화가 있다.

하지만 자력갱생, 이것은 전설속의 신화가 아닌 현실속의 신비한 전설이다. 기존의 정치개념이나 경제학적인 수자로써는 도저히 가늠할수 없는 주체조선의 저력과 무한대한 발전잠재력은 다름아닌 자력갱생에 근본원천을 두고있다.

땅속의 자원은 쓸수록 줄어들기마련이지만 자력갱생이라는 자원은 쓰면 쓸수록 계속 늘어난다. 자체로 큰 산을 넘는 과정에 힘은 더욱 커지고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배가되며

그것은 제2, 제3의 기적을 낳는 원천으로 된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 때 국가와 인민의 자강력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폭발하면서 최단기간에 최상의 부를 창조할수 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가는 조선인민의 자력갱생정신을 더욱 높이 분발시킨 또 하나의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입니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력사입니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입니다.》

이것은 자강력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밀고나가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였다.

하기에 당대회가 끝난 직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먼저 찾으신 곳도 각지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전시장이였다.

새형의 80hp뜨락또르와 5t급화물자동차, CNC기계, 에네르기절약형변압기, 채취설비들과 농기계를 비롯한 수많은 기계제품들을 돌아보시면서 그이께서 가장 만족해하고 귀중히 여기신것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을 다른 나라의 견본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것이 아니라 자기식, 자기힘으로 제작한 바로 그것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시장에 출품된 기계제품들은 자강력이 제일이며 자력자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준다고,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오늘 누구도 공화국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조선이 강대해지며 흥하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형편에서 오직 자력갱생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나라의 부강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강원도인민들이 이룩하고있는 귀중한 성과들을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현시기 강원도는 자력갱생대진군의 전렬에 서서 시대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강한 도》로 불리우고있다. 이전시기에는 국가의 도움만 바라보던 강원도가 오늘은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창조와 건설의 동음을 기운차게 울리며 제발로 걸어나가는 도, 사회주의강국건설사를 빛내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탄생시킨 자랑높은 고장으로 되였다.

최근년간 강원도에서는 도자체의 력량으로 원산군민발전소와 강원도양묘장, 강원도농업과학연구소, 원산남새연구분소, 강원도수산사업소, 강원도예술극장, 강원도12월6일소년단야영소, 송도원청년야외극장을 비롯한 많은 건축물들을 훌륭히 건설하거나 개건하였으며 여러개의 중소형수력발전소건설도 동시에 밀고나가는 등 큰 규모의 대상건설사업들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통이 크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세멘트와 강재는 물론 자그마한 문손잡이에 이르기까지 시공과 내부장식에 필요한 자재, 설비들을 모두 자기 고장에 흔한 원료와 연료를 리용하여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쓰고있는것이 조건과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생산과 건설을 마음먹은대로 내밀고있는 중요한 비결이다.

지난해 12월말 강원도자력갱생전시관이 새로 건설되여 문을 열었는데 개관당시에만도 이곳에는 도안의 전력, 금속, 건재, 화학공업, 농업, 경공업, 수산, 산림부문 등의 많은 단위에서 자력갱생기지를 꾸려놓고 생산과 건설에 적극 리용하고있는 670여종에 수천점에 달하는 제품들이 전시되였다.

사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강원도의 경제적토대와 조건은 다른 도들에 비해 대단히 미약하여 국가에 별로 보탬을 주는것이 없었다. 그러나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육성하여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양시킨것이 짧은 기간에 그토록 놀라운 결실을 가져왔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다 주저앉았던 안변요업공장이 수십가지의 타일과 위생자기, 기능성보온재를 생산하는 보배공장으로 전변되고 콕스와 수입전극이 없어 애로를 겪던 문천강철공장이 자기 지방에 흔한 원료와 연료자원에 의거하여 강철생산을 정상화해나가는 힘있는 공장으로 다시 태여났으며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 인공잔디생산공정이 꾸려져 그 덕을 단단히 보고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전기와 샘물, 소금문제를 해결한데 이어 식량과 땔감, 강재와 세멘트, 기초화학제품, 각종 마감건재들을 비롯하여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것들을 자급자족하는 단계에로 도약하고있다. 자력갱생은 비록 힘들지만 그 진맛과 재미는 어디에도 비길수 없으며 제일 떳떳하고 보람차며 영예로운 길이라는것을 강원도사람들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하기에 그들은 지난해 4월 18일에 열린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강원도결의대회에서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걸고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자력갱생의 대고조로 단호히 짓뭉개버리며 자기 도를 자급자족을 제일먼저 실현한 선구자도, 가장 문명하게 제일 잘사는 부유한 도로 천지개벽시킬 결의를 다짐하면서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자력갱생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국풍으로 세워 후손만대에 물려줄것을 열렬

히 호소하였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진수로 하는 강원도정신은 사회전반에 파급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전체 인민을 거창한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자력갱생에 국가의 자주적존엄과 인민의 삶을 굳건히 지키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 번영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도가 있다. 그러므로 자력갱생문제는 결코 정세의 요구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일시적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전술적인 대응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전 로정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 문제로 된다.

지난해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것을 확고부동한 정치로선으로 재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력갱생은 남들이 걸어온 수세기를 도약한 주체조선의 사회주의건설신화를 낳은 위력한 추동력이며 불가능을 모르는 우리 식의 창조방식, 투쟁기풍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면서 자주적발전과 번영의 보검인 자력갱생의 혁명전통과 투쟁기풍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하여 자력으로 비약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전환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자기의 힘을 더욱 증대시켜 부강의 활로를 열고 이 땅우에 인민의 꿈과 리상을 반드시 꽃피우시려는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할데 대한 사상을 천명하시고 창조와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력갱생의 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약한 나라와 민족은 영원히 굽신거려야 하고 무한정 략탈당해야 하는 이 엄혹한 행성에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진로를 국책으로 선포하고 자기의 고유한 국풍으로 철저히 확립해나가는 나라는 오직 사회주의조선뿐이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의 가슴마다에서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신념과 의지,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손으로 사회주의조국을 세상에 보란듯이 아름답게 꾸려나가려는 불같은 열정과 희망이 활화산처럼 더욱 세차게 분출되고있다.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에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나가라!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열어놓기 위한 전인민적인 창조대전에서 자력갱생선구자의 영예를 높이 떨쳐나가는 조선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배짱이다.

늘어나는 우리의것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3분의 1(약 70개)이 이러저러한 제재의 영향을 받고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공화국이 가장 엄격한 제재를 받고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장기성과 포괄범위, 강도에 있어서 력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한 제재를 통해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자립경제를 질식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상곤난을 조성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종당에는 체제붕괴의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자력자강의 기치아래 창조와 건설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는 이 땅에서는 누구라 할것없이 류다른 감정을 시시각각으로 체험하군 한다. 자기의것이 날을 따라 늘어만 가는 자랑스러운 현실을 목격하면서 느끼게 되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 보람찬 창조적로동의 멋과 희열이다.

거리에 나서면 현대적미감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들이 사람들의 호평속에 시내를 누비고있다. 웅장화려한 평양의 전경을 한눈에 부감할수 있는 이채로운 유람비행봉사에 리용되는 초경량비행기들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이다. 민들레학습장들이 들어있는 《소나무》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

는 학생소년들이 입고있는 교복도 국내의 원료와 자재, 설비로 만든것이다.

어느 상점에 들려보아도 아이들의 놀이감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와 색갈의 신발과 가방들, 계절옷들 그리고 판형콤퓨터와 수자식TV를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들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갖가지 제품들이 매대를 빼곡이 채우고있다.

경이적이라고 해야 할것은 식료공업부문의 비약적인 발전모습이다.

《금컵》, 《경흥》, 《선흥》, 《송도원》, 《금산포》…

유정한 그 이름처럼 인민들의 기호와 입맛에 맞는 맛좋고 영양가높은 당과류와 식료품들이 어린이들의 귀여운 손에 쥐여져있고 집집의 식탁들을 풍성하게 하여주고있다.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분야에서부터, 제일 힘들었던 먹는 문제에서부터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 우리의 상표를 단 질좋은 식품들이 다른 나라의 제품들을 큰소리치며 압도하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경기복과 기자재들에도 《내고향》, 《대성산》상표가 새겨져있고 세계적인 명품들과 견주어보아도 결코 짝지지 않는 《은하수》, 《봄향기》, 《미래》, 《금강산》과 같은 화장품들이 사용자들의 대단한 호평과 인기를 모으고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의 전반 분야에 어느새 조

용히 그리고 깊숙이 자리를 잡아가는 이 모든것은 난데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것도 아니고 남들이 안겨준 선사품도 아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적발전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완강하고도 꾸준한 노력이 맺은 소중한 결실들이다.

2016년 5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분수령으로 되였다. 당대회에서는 경제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였으며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것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전략적로선으로 규정하였다.

당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에 따라 공화국에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이 더욱 힘있게 벌어졌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수입병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전개되였다.

수입병을 없애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깊숙이 도사리고있는 남에 대한 의존심을 송두리채 뽑아버려 창조와 건설의 전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수호전이다. 총대로 조국을 지키는것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자기 힘에 대한 신심에 넘쳐 끊임없이 자기의것을 창조해나가기 위한 총

포성없는 전쟁이 바로 수입병과의 투쟁인것이다.

이 땅 그 어디서나 사회주의의 운명과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수입병과의 전면대결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그 결과 오늘 공화국에는 안주절연물공장, 문덕애자공장, 룡악산비누공장, 강선비닐박막공장을 비롯하여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사업을 틀어쥐고 생산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단위들이 적지 않다.

원산구두공장의 경우만 놓고봐도 그렇다.

이 공장에서는 초림계탄산가스에 의한 염화비닐발포창생산공정을 확립하여 수입산 발포제를 전혀 쓰지 않게 됨으로써 종전에는 신발창생산에서 500대1이던 국내원료 대 수입자재의 비률을 500대0으로 만들어놓았다. 물론 순수 경제학적측면에서 따져보면 이것은 요란한 원가절약이나 생산장성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기의것이라고 떳떳이 자부할수 있는 창조물을 더 많이, 더 좋게 만들어내려는 창조기풍이 깃들어있다.

생산공정과 설비의 현대화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공화국이 추진하는 현대화는 남의 힘과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를 그대로 가져다놓은 현대화가 아니라 자체의 주체적인 력량과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이다. 이러한 현대화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국내의 연구개발단위, 생산단위들이 합심하여 설계제작한 현대적인 설비들로 공장, 기업소들의 면모

를 일신시키고 경공업이 발전하였다는 나라들에도 없는 자동양말꽂는기계와 무인화된 꽈배기생산공정을 완성한것과 같은 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였다.

가장 특출한 성과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혁신이다. 지난 시기 원료와 자재, 설비가 부족하면 국경밖을 넘겨다보며 수입항목부터 작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길을 돌려 제 나라, 제땅부터 살펴보고있다.

자기 힘에 대한 자신감을 깊이 새겨준 결정적계기들로 된것이 바로 지하전동차 1호와 《천리마-804》호뜨락또르의 생산이다. 다른 나라의것과 견주어도 전혀 짝지지 않는 현대적인 대중교통수단을 직접 리용하는 과정에, 나라의 륜전기계공업분야에서 하나의 혁명이라고도 할수 있는 유압식조향장치를 자체로 만들어낸것을 비롯하여 국산화비중이 98.7%에 달하는 뜨락또르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만들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의 신심은 백배해졌다. 이런 의미에서 지하전동차 1호와 새형의 80hp뜨락또르는 수입병을 뿌리뽑는 첫걸음, 자력갱생의 신호탄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오늘 지하전동차와 뜨락또르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지만 자기의것이라고 당당히 자부할수 있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뜨락또르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그 생산력사가 오래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유압식조향장치를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형편이다.

조선의 지하전동차, 뜨락또르처럼 불굴의 정신력에 의해 태여나고 그것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랑찬 창조물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듯 투철한 자력자강의 정신과 창조기풍에 의해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공의 돌파구가 열리고 이것은 그대로 생산적앙양에로 급속히 이어지고있다.

최근 공화국에서는 금속, 석탄, 건재공업과 경공업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단위들의 대렬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적대세력들의 악착한 제재로 말미암아 많은 제약을 받고 불리한 기상기후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지난해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는 전례없는 대풍을 마련하였다. 이미전부터 시작된 부흥의 전조들이 료원의 불길처럼 곳곳으로 파급되여나가면서 확실한 성장궤도를 그려가고있는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광범한 여론들은 현재 공화국의 경제가 기존의 인식을 송두리채 뒤집을 정도의 상상할수 없는 변화를 보이고있다고 하면서 지금 조선은 사상최강의 국제제재를 받고있다,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쓰러질 위태로운 벼랑끝에 서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적지 않은 경제분석가들도 조선에서 지난해 실질국내총생산이 증가한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면서 유엔의 제

재가 이어지고있지만 이 나라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다.

자기의것이 늘어난다는것은 단순히 량적장성에 대한 표상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만들려는 고심어린 노력의 결정체여서 그 소중함은 자못 크다.

현시기 공화국에서는 질제고에 대한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강조되고있다. 제품의 질은 곧 나라의 얼굴이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뿐만아니라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창조와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오늘의 시대적분위기에 비추어보아도 질낮은 제품의 대량생산은 결코 허용될수 없는것이다.

이로부터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생산할데 대한 높은 기준과 요구성이 명확히 제시되여있다.

2015년 봄, 공화국에서는 12월15일품질메달이 새로 제정되였다. 이 메달은 전국적범위에서 질제고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국제적인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들가운데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대외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제품, 국내에서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을뿐아니라 인민생활에서 실지 은을 내고있는 제

품, 자기 지방의 개성이 뚜렷하고 민족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제품들이 이 메달의 수여대상으로 된다.

전국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의 질제고를 틀어쥐고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따라세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지난해에만도 수십여개 단위의 많은 생산공정들이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여러 단위에서 생산되는 백수십점의 제품이 우수한 제품으로 새로 등록되였다.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은 화장품공업분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얼마전에 30여가지의 《은하수》화장품들이 유라시아경제동맹의 인증을 받았고 유럽의 이름난 화장품과의 대비분석에서 월등한것으로 평가된 《봄향기》화장품에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발명가증서와 금메달이 수여된것과 같은 사실들은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세계적인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확신과 긍지를 안겨준 계기로 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만 가는 자력자강의 귀중한 창조물들과 더불어 인민들의 생활은 나날이 문명하고 아름다워지고 있다.

사회주의문명의 상징인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이 훌륭히 일떠서 한겨울의 물놀이풍경이나 신사들의 운동으로 통용되는 승마운동의 대중화, 스키관광려행

과 같은 이채로운 풍경들이 생겨나고 일상생활속에 자리잡은 것도 이제는 벌써 몇년전의 일이다.

지난해 12월초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영광의 땅 삼지연시가 현대문명이 응축된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전변됨으로써 세상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에서 모든 건축물들의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삼지연시의 눈부신 전변은 유서깊은 성지를 로동당시대의 문명을 대표하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꾸리기 위해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과 령도의 빛나는 결정체이며 사회주의문명의 척도이다.

천지개벽의 새 모습과 더불어 이 고장 사람들의 생활도 몰라보게 달라져가고있다.

전후시기까지만 해도 이곳은 어설픈 기와집들만 몇채 있던 매우 궁벽한 산촌이였다. 이제는 오래된 일이지만 언제인가 이곳 사람들이 난생처음 수박을 보게 되였을 때 그것을 호박인줄로 알고 삶아서 먹었다는 이야기가 생겨날 정도로 문명과는 거리가 먼 외진 두메산골이였다.

그러던 삼지연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옛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사회주의리상향으로 훌륭히 변모되였다.

삼지연시에 4 000여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여 주민들모두가

한날한시에 훌륭한 살림집들을 받아안았으며 현대적으로 꾸려진 식당망, 봉사망들이 운영되고있다. 옥류관에도 짝지지 않을 베개봉국수집과 은정식당을 비롯한 상업봉사망들에서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과 들쭉음료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가지고 만든 음식들과 음료들을 봉사하고있는데 인민들이 좋아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천고밀림의 풍치에 잘 어울리게 건설된 밀림원과 천지원, 체육관들은 희한하고 친절한 봉사를 받으며 시간가는줄 모르는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고있다.

지금 량강도에서는 결혼식을 하는 신랑신부들이 삼지연시에 와서 사진을 찍고 평양의 문수물놀이장을 방불케 하는 현대적인 물놀이장과 베개봉스키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신혼려행을 하는것이 하나의 멋으로 되고있다. 지어는 자강도와 함경북도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것으로 하여 려관들이 모자라는것과 같은 《행복한 고민거리》도 자주 생겨나고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말에 준공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역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로서 여기서는 지금 각계각층의 평범한 근로인민들이 새로운 문화정서생활의 세계를 마음껏 활보하고있다.

올해 1월부터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문을 열었는데 각지에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 양덕땅이 생겨 처음 보는 인산인해가 펼쳐졌다. 이곳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한겨울의

야외온천욕과 치료용물고기 《친절어》의 특색있는 봉사도 받으면서 현대문명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현시기 공화국은 더욱더 왕성한 패기와 활력이 넘치는 비약적인 발전모습을 세계앞에 끊임없이 펼쳐보이고있다.

확언하건대 이것은 결코 적대세력들의 방해와 도전이 잠시라도 느슨해졌거나 그들에 대한 타협과 양보의 대가는 더더구나 아니다. 오히려 공화국의 자주적대는 더욱 높이 과시되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꺾어보려는 서방진영의 발악적인 제재와 압력, 봉쇄책동은 끈질기게 계속되였다.

하지만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들의 이 모든 부당한 행위는 공화국에서 소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있다. 세상사람들이 《대북경제제재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은지도 퍼그나 되였는데 북의 경제가 주저앉기는커녕 날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어 정말 제재를 하고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을 모를리 없는 미국이 《리성을 잃은 제재인쇄기》라는 비난과 오명을 무릅쓰고 시대착오적인 제재에만 집착하는데는 그럴만한 리유가 있다. 일전에 어느 한 나라의 외교관은 제재를 채택하는 리유는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로만 압력을 넣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력을 사용할수도 없을때 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때문이라는 평을 남긴바 있다.

나날이 강대해지는 공화국의 위력앞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진퇴량난에 빠진 적대세력들의 가긍한 처지가 용도폐기처분을 받은 제재에라도 운명을 걸지 않으면 안되게 하고있는것이다.

제국주의세력이 수백년동안 축적한 군사경제력 대 불과 수십년력사를 가진 조선의 자강력의 대결.

가시적인 력량대비가 불가능한 이 미증유의 대결에서 공화국이 이룩하고있는 값진 승리는 실로 력사의 기적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론리적인 설명이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 현실을 과연 어떻게 리해해야 하겠는가. 제국주의자들이 만능의 처방으로 간주하고있는 《제재만능론》이 어떻게 되여 조선에만은 통하지 않고있는가.

공화국은 수십년간 다져온 자립경제토대와 능력있는 과학기술력량, 자력갱생을 체질화하고 애국의 열의로 피끓는 영웅적인민의 창조적힘이라는 귀중한 전략적자원을 가지고있다. 억대의 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이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기에 적대세력들이 100년, 아니 그 이상의 제재를 가하며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뚫지 못할 난관이 없고 이루지 못할 포부가 없다.

서방세계에 잘 알려져있는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유명한 성구가 떠오르는 리유이다.

이로써 공화국의 강성부흥을 그토록 못마땅해하는 봉쇄망

의 파수군들의 허망한 노력이 물거품으로 될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론박할 여지가 없는 강력한 근거를 가진다. 핵으로 조선을 공갈하던 시대가 영영 끝장난것처럼 경제기술적봉쇄와 제재로 조선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유린말살하려던 시대도 불피코 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다.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을 최대의 국사로 내세우고있는 공화국은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실생활로 될 휘황한 미래를 이 땅우에 반드시 펼쳐놓고야말것이다.

지금 공화국의 민심은 전례없는 신심으로 충만되여있다.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림으로써 더욱 좋아질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리라는 신념의 목소리가 《행복의 래일》의 노래구절에 실려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

제손으로 뿌린 씨앗 피땀으로 가꿔온 우리
결심하면 모든것을 다 이룰 자신이 있다네
앞당기자 멋진 래일 광휘로운 우리의 래일
눈앞에 기다리는 행복인데 우리 왜 못 이루랴

…

5.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무적의 군사력은 나라와 민족이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나라들이 탐욕적인 외세의 롱락물로 전락되고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는 오늘의 랭혹한 현실은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켜주고있다.

공화국은 제국주의와의 가장 첨예하고 치렬한 대결전속에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는 최강의 힘을 비축함으로써 나라의 전략적지위와 종합적국력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으며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을 성취하고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영원한 평화와 발전의 길을 열어놓았다.

불패의 위용떨치는 자위의 성새

평화로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열망이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력사가들이 인류사를 가리켜 전쟁사라고 평하고있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평화와 행복에 대한 념원은 제대로 실현된적이 없었다.

다음의 통계자료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 B.C. 1496년부터 1861년까지의 3 357년동안에 3 130년이 전쟁기였다면 평화로웠던 시기는 227년밖에 안되였다고 한다.

—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37년동안에 470여차례의 국부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기간에 세계적범위에서 어떠한 전쟁도 없은 날은 26일밖에 안된다.

전쟁은 숱한 나라와 민족들을 력사의 진펄속에 무자비하게 파묻어버렸으며 엄청난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로씨야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인 레브 똘스또이가 평화를 갈망하여 창작한 장편소설의 제목을 《평화》라고 달았다가 전쟁이 인류에게 준 재난이 너무도 가혹한것이였다고 하면서 《전쟁과 평화》로 다시 고쳤다는 일화는 전쟁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인류전쟁들의 재난은 군사를 국가정사에서 뒤전에 미루어놓으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없어지며 백성이 노예가 된다

는 교훈을 남기였다. 창과 검을 벼리는 일보다 왕궁이나 황제의 치장거리에 더 관심을 둔 나라들, 총과 대포를 만들고 병사를 키우는 일을 소홀히 했던 나라들에 차례진것은 굴종과 멸망뿐이였다.

이것은 결코 력사책에서만 찾아보게 되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의 세계에서도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나라들이 침략과 전쟁의 세례를 받고 국가의 존재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있으며 혈육을 잃고 보금자리를 잃은 수천만의 피난민들이 살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가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그 어떤 정세의 파동에도 끄떡없이 창조와 건설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고 인민들은 안정되고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

사실 장기간의 정전상태에 놓여있을뿐아니라 정의와 부정의가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는 조선반도는 임의의 시각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전쟁발화점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 땅에서는 전쟁의 폭음이 한번도 울리지 않았다. 세계의 어느 누구도 공습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의 거리들을 목격한적이 없으며 피투성이가 된 혈육을 그러안고 몸부림치는 처절한 광경도 보지 못하였다.

조선반도전체를 장악함으로써 대륙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유일초대국》의 야심적인 세계제패전략이 변경되여서인가?

결코 그런것이 아니였다.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항시적으로 조성되고있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에서 근 70년간이나 평화적환경이 유지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침략을 억제하는 공화국의 군사적실력이 막강했기때문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공화국처럼 크지 않은 나라가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침략을 능히 억제할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갖춘다는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공화국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어온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강한 군사력은 수난많은 우리 민족사가 제기한 일차적인 요구였다.

력사를 거슬러보면 우리 민족은 외세가 몰아오는 끊임없는 전란의 풍운속에 시달려왔다. 19세기말—20세기초에는 식민지쟁탈을 위한 주변대국들간의 피투성이싸움이 우리 강토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조선에 대한 외세의 탐욕이 전쟁을 초래한 객관적요인이였다면 보다 근본적이며 주되는 요인은 당시 우리 나라가 힘이 약한데 있었다. 《힘없는 정의도 정의없는 힘도 다같이 무서운것》이라는 격언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호미와 화승총, 이것이 봉건수레를 끌고가는 조선이였다.》

지금으로부터 120여년전 우리 나라를 탐방한 어느 로씨야인이 남긴 글의 한 대목이다.

유미자본주의렬강들이 큰 함선과 성능높은 대포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있을 때 조선은 아직도 봉건의 오랜 잠에서 깨여나지 못하고있었다. 제힘으로 소총 한자루도 만들수 없었고 군사력의 기본징표인 병력수도 9 000명으로서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6 000t급이상의 군함만도 12척이나 보유하였고 대포와 기관총 등 현대적무장을 갖춘 륙군상비무력이 20만에 달하는 신흥군사강국이였다. 사실상 《시일야방성대곡》의 전주곡은 이미 이때부터 울리고있은셈이였다.

황궁 하나도 제대로 지킬 군대가 없는 나라, 타국의 군대들이 제 집 안방 드나들듯 무시로 강토를 침범해도 그것을 저지시킬 힘이 없는 무기력한 봉건조선의 운명은 장차 어찌될것인가.

한 나라의 황후가 궁궐안에서 외국테로단의 칼에 맞아죽고 일국의 주권을 대표하는 황제가 다른 나라 공사관에 1년동안이나 갇혀있는가 하면 임금의 아버지가 외국에 랍치되여 귀양살이를 하여도 오히려 사죄를 해야 했으니 나라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신식총과 대포로 무장한 왜나라침략자들이 강도적인 《조약》을 날조해내고 국권과 강토를 통채로 침탈하여도 그 어디에 항변 한마디 제대로 할수 없었던 조선민족이였다. 이런 우리 민족을 두고 자기 나라의 방어를 위해 손가락 하

나 쳐들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비웃은 나라들은 많았어도 강탈당한 국권을 회복시켜주겠다고 도와나선 나라는 없었다.

자기를 지킬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자기를 지켜낼 힘과 능력이 없으면 반드시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강한 군사력은 또한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전쟁책동이 갈수록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엄중한 정세로부터 제기된 사활적인 요구였다.

력대로 제국주의자들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전략적요충지대에 위치하고있으며 자주,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 요람기로부터 장장 수십여년세월 가장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시하여왔다.

그중에서도 군사적침략은 반공화국고립압살전략의 실현을 위한 주되는 수단이다. 지금으로부터 75년전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가로타고앉아 온 남녘땅을 하나의 거대한 군사기지로,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킨 침략적인 외세는 언제 한번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간섭과 무력침공의 야욕을 포기한적이 없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일어난 3년간의 전쟁, 60년대의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70년대의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조선반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군사적도발사건들은 《힘의 우세》에 환장이 된 제국주의자들

의 로골적인 침략야망을 낱낱이 보여주고있다.

조선속담에 불은 불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있다.

힘을 만능으로 여기는 침략세력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나라를 지킬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호소나 청탁에 있는것이 아니다. 강자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자앞에서는 포악해지는 제국주의의 횡포를 단호히 제압할수 있는 만능의 처방은 오직 강력한 물리적힘뿐이다.

방대한 침략무력이 전쟁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호시탐탐 침공의 기회만을 노리고있는데도 군력강화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것은 곧 자멸을 의미한다.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살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또다시 전쟁의 참혹한 재난과 아픔을 강요당하지 않으려면 군사적힘을 키우는것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에 준비되여야 한다.》는 말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항상 뼈에 새겨야 할 불변의 진리이다.

강한 군사력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자료에 의하면 B.C. 3200년부터 1964년까지의 기간에 세계적으로 도합 1만 4 513차례의 크고작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 무려 36억 4 000만명이 목숨을 잃었고 손실된 재부를 금으로 환산하면 너비 75㎞, 두께 10m의 금띠로 지구를 한바퀴 감을수 있다고 한다.

무차별적인 살륙과 파괴를 동반하는 전쟁의 참혹성, 그로 하여 초래되는 엄청난 피해를 실감할수 있게 한다.

평화는 건설이고 창조이며 행복이라는 말이 있다. 평화적인 환경이 성공적인 건설에로 이어진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오랜 기간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는 조선반도의 정세는 어느 하루도 평온한적이 없었다. 특히 《년례적》, 《방어적》이라는 외피를 쓰고 해마다 공화국의 면전에서 감행되는 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들은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군 하였다. 여기에는 공화국으로 하여금 마음놓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없게 하려는 적대세력들의 검은 흉계가 깔려있다. 한 외신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해마다 3월과 4월 두달동안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있는것은 이 시기가 조선에 있어서 바쁜 농사철이기때문에 청장년들이 군대에 나가있는 조건에서 그들을 농업부문에 돌릴수 없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까밝힌것은 우연하지 않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오늘의 세계에서 군사적힘을 키우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룩해보겠다고 하는것은 도적에게 집을 통채로 내말기고 발편잠을 자면서 벼락부자가 될 허황한 꿈을 꾸는것이나 같다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침략과 략탈을 생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책동

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담보하는 창조적로동의 귀중한 재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그리고 조선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해서도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수 없는 무적의 군력은 반드시 필요한것이다. 강력한 총대우에 국가의 존엄과 민족의 안전,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이 있다.

이로부터 공화국은 간고하고 시련에 찼던 건국의 첫 기슭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국방력강화의 길을 힘겨워도 주저없이 그리고 중단없이 걸어왔다. 남들이 국가방위를 강대국에 의탁하는 길을 택할 때에도, 기회주의자들이 검을 녹여 보습을 만들며 자기들의 본을 따르라고 압력을 가해올 때에도, 나라형편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국가의 힘, 무적의 군력을 키우려는 공화국의 지향과 의지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다.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공화국의 장구한 투쟁은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일관하게 관철하여온 과정이다.

자기를 지킬수 있는 힘을 키우자면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바로 여기에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을 고수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확고한 담

보가 있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은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적립장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한다는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물론 국방에서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자기 나라를 보위해줄것을 남에게 전적으로 의탁해서는 안된다. 어디까지나 자기 힘이 기본이며 자체의 힘이 준비되여있어야 외부의 지원도 은을 낼수 있는것이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자위적무장력을 가져야 하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무장대오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자체의 국방공업을 건설하며 후방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은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방략을 뚜렷이 명시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빛나게 관철되여온 자위적군사로선은 주체사상과 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으며 조성된 정세와 혁명전쟁의 력사적 경험, 현대전의 특성과 사회주의사회의 우월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독창적이며 정당한 로선이다.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방침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인류력사에 국가가 생긴이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위체계를 수립하는데 힘을 넣어왔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비무력과 제한된 군사진지의 강화에만 국한된것이였다. 간혹 백성을 무장시키고 후방을 강화하는 문제가 론의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이미 전쟁의 총성이 울리고 침략의 총탁이 나라의 대문을 들부셔놓은 다음에야 있은 일이였다.

그러나 공화국은 벌써 오래전부터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의 경험과 교훈 그리고 전선과 후방이 따로없이 전격적으로,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현대전의 요구와 륙지면적의 종심이 그리 깊지 않은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근거하여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민간무력의 강화발전과 전국의 요새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는 과정에 우리 공화국은 조직성과 규률성, 전투력과 무장장비수준에 있어서 웬만한 나라의 정규군을 릉가하는 강력한 민간전투무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대들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킴으로써 마침내 력사상 처음으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온 나라에 자위의 총검이 숲을 이루게 한 전인민적, 전국

가적방위체계는 나라의 방위문제를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킨것으로서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조선의 특출한 성과이며 적대세력들이 알수도, 상상할수도 없는 또 하나의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이다.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어느 한 나라의 고위군사대표단 단장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때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보았지만 이 나라처럼 전민이 무장되고 전국이 요새화되여있는 나라는 보지 못하였다. 조선은 틀림없는 군사대국이다.》

적과의 대결은 군사적힘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의 대결이다. 군사적타격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상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위력은 원자탄보다 더 강하다.

일전에 유럽의 한 교수는 《검과 정신》이라는 론문에서 제일의 정신적강자가 최후의 승리자로 된다는데 대해 주장한 바 있다.

옳은 말이다. 검은 꺾을수 있지만 정신은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다는 리유에서 정신적강자는 언제나 승자였다. 무장대오의 정신력, 정치사상적우월성이야말로 최신무기에도 비교할수 없는 무한대의 위력이라는것은 수적,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던 제국주의강적들을 타승한 항일대전과 조국해방전쟁을 통해서도 뚜렷이 실증되고있다.

《항일전은 **김일성**명장휘하의 정신적강군이 일본제국의 정

신적약군을 련전련패시킨 전쟁이였다.》(이전 쏘련신문 《이즈베스찌야》)

《나는 작은 나라 조선의 병사들의 불굴의 정신이 대아메리카제국의 땅크들을 헌쇠붙이로 만드는것을 직접 보았다.》(이전 쏘련보도국 대표 겸 《쁘라우다》지 조선특파원)

백절불굴의 정신력은 영웅조선의 자랑찬 전통이며 불패의 위력을 떨치는 자위적국방력의 첫째가는 위력이다.

특히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언제나 사상론을 중시하고 그를 철저히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조국보위의 주력군으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지닌 조선인민군의 정치사상적준비상태는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

준엄한 적구에서 최고사령관의 안녕만을 바라며 서슴없이 자폭의 길을 택한 열혈충신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웨치며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결사관철의 전위투사들,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구원하기 위해 물과 불속에도 주저없이 뛰여든 인민의 수호자들,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전우들을 구원해낸 가장 뜨겁고도 진실한 동지애의 소유자들이 다름아닌 인민군장병들이다. 이들의 모습에 굴함없는 전투정신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 도덕강군으로서 조선인민군의 영용한 기상이 력력히 맥박치고있다.

조선인민군의 정신적힘이 이렇다면 군사기술적위력은 또 어

떠한가.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에도 전시되여있고 열병식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현대적인 전투기술기재들과 무장장비들은 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그쯘히 갖춘 최정예무력, 무적필승의 강군인 조선인민군의 전투적위용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게 준비된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은 강력하고 현대적인 자립적국방공업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새 조선건설의 첫 기슭에서 위대한 수령님 걸으신 평천길과 더불어 그 터전이 다져지고 사탕알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신념에 떠받들려 자랑찬 발전행로를 이어온 주체적국방공업이 있음으로 하여 공화국은 세인이 경탄하고 부러워하는 강력한 군사적힘을 가질수 있었다.

비록 번쩍거리는 화려함이나 부유한 향락은 없어도 푼전을 아껴가며 마련하고 세대를 이어가며 더욱 억세게 벼려온 무쇠주먹이 있었기에 공화국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적권리를 굳건히 지키며 자기가 정한 길을 따라 굴함없이 전진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견지명한 령도와 천신만고의 심혈과 로고, 전체 조선인민의 헌신적투쟁에 의해 거연히 솟아 빛나는 자위의 성새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다.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수호하는 무적의 군대가 있고 자기 일터와 마을을 지켜선 무장한 인민이 있으며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져진 공화국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침범할수 없다. 강대한 군력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충만된 인민의 눈동자에는 언제나 가없이 펼쳐진 맑고 푸른 하늘이 비껴있다.

평화와 번영의 보검

정의와 진리가 승리하는것은 필연적이지만 그 어떤 장애도 곤난도 없이 성취되는것은 아니다. 고생과 투쟁이 없이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없는 법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이르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에 토대하여 인민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길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여기신 인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것이 바로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그러나 공화국의 희망찬 꿈과 약진의 기세는 첫걸음부터 엄중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하였다. 무시할수 없는 강한 군

사력을 보유한 조선이 이제 경제적부흥까지 이룩하면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완전히 거덜나게 되는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세계지배전략도 실현할수 없게 될것이라는 극도의 위구심에 사로잡힌 적대세력들이 조선반도정세를 험악한 지경에로 몰아간것이였다.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평화적우주개발활동과 정정당당한 자위권행사를 구실로 2013년 1월과 2월 두차례의 대조선《제재결의》를 련이어 조작해내고 방대한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들이밀어 지역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간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 모든것은 조선이 보다 강해지고 앞서나가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오직 저들의 리익과 패권다툼의 희생물로 영원히 남아있게 하려는 패권주의적인 흉심의 명백한 발로였다.

조성된 엄혹한 형세를 주동적으로 평정해나가자면 자체의 강력한 힘에 의거하는것밖에 다른 출로는 없다. 막강한 전쟁억제력,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는것만이 유일한 방책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는 국가의 힘을 최고의 수준에까지 도달시키기 위한 공화국의 투쟁사에 뚜렷한 한페지를 아로새긴 력사의 분수령으로 되고있다.

이 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시의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경제와 핵무력건설의 병진, 이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의 강권과 전횡, 폭제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할수 있는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마련하고 민족번영의 소중한 꿈을 성취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 천만번 정당한 선택이였다.

나라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정의의 선택임에도 이것은 보통의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서는 선뜻 나설수도, 끝까지 갈수도 없는 어려운 길이 아닐수 없었다. 령토의 넓이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크지 않은 나라가 가장 가혹한 경제기술적봉쇄속에서 자체로 해결해야 할 천문학적인 비용과 첨단과학기술도 감당하기 어려운것이였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강국의 등장을 차단하려는 적대세력들의 광기어린 발악과 그로 인하여 초래될 미증유의 고난과 시련을 각오해야 하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공화국은 국가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면서 국력강화의 어려운 길을 주저없이 택하였고 적대세력들이 《잘못된 선택》이니, 《진로변경이 불가피할것》이니 하는 갖은 비방을 퍼붓고 군사적위협과 경제적봉쇄의 도수를 최대로 높일 때에도 자기의 결심과 선택을 절대로 바꾸지 않았다.

견인불발의 신념과 의지로 역풍을 박차며 과감히 전진하여온 병진의 길우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성과들이 기적적으로 이룩되였다. 특히 2017년의 한해동안에 《3.18혁명》,

《7.4혁명》과 7.28의 기적적승리, 《9월의 열핵폭풍》, 《11월 대사변》과 같은 사변적인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터쳐올림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그토록 짧은 력사적기간에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갖추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7(2018)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리였으며 전체 인민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바라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였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당의 병진로선과 과학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이며 부강조국건설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준 력사적장거입니다.》

2018년 4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남들이 수십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력사적대업을 5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실현한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의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것으로써 강국건설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특기할 성과를 만방에 선포하였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 이것은 건국이래 가장 큰 산을 넘은것과도 같은 거대한 사변으로서 공화국이 자기의 힘을 자

기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시키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였으며 이로 하여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가 비상히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음을 의미하는것이다.

세계는 아직 어느 나라도 경제와 국방의 병진을 국책으로 선포하고 성과적으로 실현한 례를 알지 못하며 더우기 작은 나라가 항시적인 전쟁위험과 봉쇄, 유혹을 견제하며 자력으로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갖출수 있다는데 대하여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강행돌파하며 공화국이 쌓아올린 빛나는 성공탑은 작은 나라도 능히 강국의 존엄을 지니고 자주적으로 당당히 살아나갈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앞에 말이나 리론이 아닌 실천으로 립증하였다. 적대진영의 언론들조차 《약 3천만의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 세계적으로 제일 강대한 군사동맹의 위협에 직면해있고 장기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있는 조선이 세계제일의 국방력을 건설한것은 벗이든 적수이든 응당 세계의 존중과 격찬을 받아야 할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평가한것은 그 누구의 방조나 지원도 없이 오직 자체의 힘으로 가질것은 다 가지고 손에 쥘것은 다 쥔 조선의 담대한 배짱과 결단, 무한대의 저력에 대한 인정으로 된다.

인류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이 경이적인 현실은 탁월한 령도자의 정력적이고 현명한 령도, 열화같은 애국헌신을 떠나서 생

각할수 없다.

5천년민족사의 특대사변에 접하여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은 《우리 민족은 이 행성의 희망이며 미래》라는 제목의 론평에서 이렇게 썼다.

《오늘의 승리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그 필연의 한가운데 서계시는분이 바로 조선의 최고령도자이시다. 그이는 해외동포들을 포함한 우리 민족전체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다. 그이의 무비의 배짱과 담력, 타협없는 철의 의지가 바로 오늘 이 민족적경사를 이루어낸 핵심중의 핵심이다.》

인류정치사에는 부국강병을 지향하고 국방력강화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 력사적공적을 남긴 국가지도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의 최전방에서 군력강화의 험난한 초행길을 앞장에서 열어나간 령도자는 일찌기 없었다.

인민의 안전과 후대들의 안위를 책임지고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의식하면 단 한순간도 마음편하게 있을수 없고 쉴수도 없으며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천년만년 끄떡없을 안전담보력을 마련해주기 전에는 떠난 길을 순간도 멈추지 않을것이며 그 길에서 꺾이지도, 쓰러지지도 않을것이라는 억척불변의 의지로 군력강화의 험난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시련을 두려워할것이 아니라 맞받아 뚫고 헤쳐 기어이 승리

의 강자가 되여야 한다는 억센 힘과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신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아래 주체조선의 위력한 첨단무기들이 세상을 놀래우는 초고속의 속도로 탄생할수 있었다.

정녕 조국과 민족의 힘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특대사변, 유구한 우리 민족사에 처음 있는 대경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룩하신 만대의 공적을 칭송하는 격찬의 목소리는 남녘겨레들과 세계 곳곳의 동포들속에서도 높이 울려나왔다.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은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여시라고 하늘이 우리 겨레에게 보내준분이시다.》

《**김정은**위원장님은 과시 우리 민족의 영웅이시다.》

《백두산줄기 내려 천하제일명장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여 내 조국, 내 민족을 세상에 떨치시네.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 만세! 만세! **김정은**장군!》

…

그렇다.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주시고 후손만대의 앞길에 영원한 승리와 번영, 평화와 발전의 탄탄대로를 닦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정녕 만고절세의 애국자, 8천만 우리 겨레의 영원한 은인이시다.

그러면 오늘날 사회주의조선의 국력과 지위에서 일어난 극적인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강의 국가방위력건설의 력사적대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을 맞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날의 대성공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겹쌓이는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을 충실하게 받들어온 위대하고 영웅적인 조선인민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이라는데 대해 긍지높이 성명한바 있다.

값비싼 승리!

결코 무심히 들을수 없다. 이 다섯 글자속에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운 오늘과 무궁한 미래를 위해 바친 령도자와 인민의 천만고생이 그대로 응축되여있으며 주체조선의 존엄높은 긍지와 앞으로 행사하게 될 주권과 발전권의 거대한 폭과 깊이가 다 담겨져있다.

첫째로, 사회주의조선이 존엄높은 강국으로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서게 되였다는것이다.

지나온 력사를 돌이켜볼 때 나라들의 국력과 지위는 한차례의 세계대전뿐아니라 새로운 전략공격무기개발을 통해서도 변화되군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전략무기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뿐아니라 해당 나라의 국제적지위와 위상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도 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11월대사변》이 일어난 직후 서방의 한 언론은 세계는 명

백히 세력권재분할을 위한 또 한차례의 단계에 들어서고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이 보유한 막강한 힘과 능력이면 세계가 조선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데는 충분하다는데 대해 보도하였었다.

조선이 대국들의 지배와 간섭을 영원히 끝장내고 렬강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해나가는 책임적인 강국으로 되였다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황제폭탄》, 《절대병기》로 불리우는 수소탄시험이후 《조선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여 우리의 립장을 대변해주면 좋겠다.》고 한 유엔주재 발전도상나라 대표들의 주장은 대세를 평정할수 있는 세계적인 지위에 올라선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신뢰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세계의 수많은 언론, 전문가들속에서 이제 조선의 발언권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질것이며 빠른 시일내에 세계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조선이 세계의 흐름을 자주와 정의의 방향으로 이끌어나갈것이라는 분석과 전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있으며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충분한 론거와 설득력을 가지고 기정사실화되여가고있다. 강대국들에게 짓밟히워 약소민족의 설음을 통탄하던 피눈물나는 그 시절, 자기의 말과 글, 이름마저 다 빼앗기고 나라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비운의 그 력사가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것이다.

둘째로, 조선인민이 전쟁이라는 말을 모르고 영원한 평화

를 누릴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는것이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출현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처럼 가장 오래고도 직접적인 핵위협을 받아온 민족은 없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지난 세기 50년대에 단란한 가족이 생리별을 당하는 가슴아픈 비극이 생겨났으며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근 70년이 되여오도록 우리 민족은 어느 하루, 아니 단 한시도 마음놓고 편안히 살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적대세력들이 핵으로 조선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영 끝장나고말았다.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쟁 그자체를 방지하고 억제할수 있는 절대적힘을 가져야 했기에 공화국은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강인하게 이겨내면서 자기발전의 길을 꿋꿋이 걸어왔으며 마침내 제국주의반동들과 적대세력들이 가해오는 어떤 형태의 고강도압박과 군사적위협공갈에도 끄떡없이 자기를 지킬수 있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되였다.

전쟁은 넘볼수 있는 상대와만 할수 있는 무력충돌이다.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억제력을 보유한 공화국을 이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으며 건드린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를수밖에 없게 되여있다.

지난해에만도 공화국에서는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과 신형전술유도무기,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와 아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초대형방사포를 비롯한 첨단무기체계들을

련이어 개발완성하였다. 올해 10월에 성대히 거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은 우리 국가가 직면하고있거나 맞다들수 있는 그 어떤 군사적위협도 충분히 통제관리할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었음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자기식, 자기의 요구대로, 자기의 시간표대로 그 발전속도와 질과 량이 변해가고있는 정의의 무쇠주먹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것이며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것이다.

셋째로, 국가의 강화발전과 인민들의 유족한 생활을 위한 번영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는것이다.

무엇보다도 공화국은 강력한 자위적핵억제력을 보유함으로써 종전보다 더 많은 로력과 자금, 자재를 경제분야에 돌릴수 있게 되였다. 실제로 공화국에서는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부문들에 대한 투자와 지출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다.

올해 4월에 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해에 비하여 106.2%로 늘이며 과학기술, 교육, 보건, 체육부문에 대한 투자도 늘일것을 예견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된것은 그 실례로 된다.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한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은

이뿐이 아니다. 국방건설과정에 이룩되는 첨단과학기술들은 나라의 동력공업을 발전시켜 인민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전력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우주산업을 비롯한 새로운 첨단산업의 창설과 발전을 선도하고 전반적과학기술을 세계선진수준에로 끌어올리는 사업도 적극 추동하는 작용을 한다.

공화국은 나라의 경제를 급격히 장성시킬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이에 대하여 외신들도 강력한 지도력과 매우 근면한 인민, 풍부한 자원과 잘 준비된 과학기술력량이 있으며 이미 지난 세기 60, 70년대에 아시아의 손꼽히는 공업강국으로 도약했던 경험과 기초를 가지고있는 조선이 본격적인 상승궤도에 오르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강력한 경제실체로 될것이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이제 비로소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수 있는 결정적담보가 마련된 조건에서 주요전략지대, 자원지대를 타고앉아있는 공화국이 마음놓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면 최단기간내에 가장 빠른 경제적장성을 이룩하는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세계가 또다시 목격하게 될 조선의 자랑찬 성과를 추동하는 기적의 원천은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힘이다.

공화국이 처한 정세와 환경은 의연 어렵고 복잡하지만 조선인민은 최악의 방해와 도전을 다 이겨내며 위대한 승리를 앞당겨 이룩한 그 정신, 그 속도로 경제강국건설에서도 자

랑찬 승리의 개가를 올릴 불타는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있는 공화국은 강권과 압제의 상징, 지배와 패권의 도구였던 핵을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담보하는 정의의 수단으로 전변시킨것처럼 제국주의렬강들이 독차지한 온갖 풍요와 문명도 반드시 인민의것으로 바꾸어 놓을것이다.

존엄높고 륭성번영하는 강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한가득 느낄 때마다 우리의 후손들은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한 조선로동당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숭엄히 되새겨볼것이다. 피어린 투쟁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떠받치는 억센 기둥을 지심깊이 박아세운 선대들의 고귀한 위훈에 삼가 고개숙여 인사를 드릴것이다. 그리고 주체조선의 강대한 힘을 탄생시킨 력사의 기적들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선률과 화폭에 담아 세세년년 길이길이 칭송할것이다.

6. 계승성이 확고한 나라

오늘 세계는 사회주의조선의 눈부신 전변상에 대해서도 놀라고있지만 강력한 국가정치체제가 편파없이 계승되고있는것을 더 부러워하고있다. 그것은 계승성이 확고한 국가에 무한한 발전성과 창창한 전도가 있기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은 장장 수십여성상에 걸치는 창조와 건설의 전 행정에서 언제나 령도의 계승문제, 혁명전통계승문제, 후비대육성문제를 특별히 중시하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넣어왔다.

어느 나라에서나 난문제로 되고있는 계승문제를 리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한것이야말로 주체조선의 더없는 자랑이며 긍지이다.

대대로 누리는 수령복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걸출한 지도자를 만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결정된다는것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참다운 지도자를 만난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인류는 거듭되여온 력사를 통해 똑똑히 깨닫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공화국의 인민들은 대대로 탁월한 수령들을 모시고 사는 남다른 긍지와 영광을 지닌 행복한 인민이다.

일전에 한 해외동포언론인은 이렇게 토로한바 있다.

《민족의 걸출한 령도자는 그 민족의 가장 큰 정신적재부이다.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는 수령이 있다는것은 복중의 복이다.

그것이 없어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많은 인민들이 버려지고 방황하며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고달프게 생활하고있는것이다.

걸출한 령도자이자 위대한 수령들을 모신 조선인민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 정신과 자산을 가진 행운의 인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 표류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

들의 립장에서 볼 때 인민대중의 절대적지지와 신뢰를 받는 령도자의 존재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수밖에 없다.

수천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데 이어 오늘은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받들어올린 공화국의 인민들은 진정 세인이 격찬하여마지 않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을 《아 대대로 위대한 태양을 모심은 조선이 타고난 행운이라오》라는 노래구절에 담아 긍지높이 자랑하고있다.

탁월한 수령은 시대가 요구한다고 하여 저절로 출현하는것이 아니다.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고 하여 걸출한 위인이 절로 태여나는것도 아니다.

장기성을 띠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령도의 계승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것이다. 력사적경험이 실증하는바와 같이 령도의 계승문제는 사회주의국가의 장래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대하고도 관건적인 문제로 된다. 지난 세기에 동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처럼 시작도 잘 떼였고 그 과정도 좋았던 사회주의위업이 끝까지 완수되지 못하고 중도반단된것은 궁극적으로 령도의 계승문제를 옳바로 해결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령도의 계승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이 나라들이 범한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인 오유는 수령의 지

위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이 결여된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한다. 인민의 리익의 최고대표자로서 로동계급의 수령은 사회정치적집단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수령은 시대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며 그를 령도하여 창조와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간다. 뿐만아니라 수령은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령도하는 과정에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고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훌륭히 갖춘 후계자를 내세움으로써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간다. 수령의 이러한 지위와 역할은 아무리 특출한 재능을 가진 개인이라고 해도 절대로 대신할수 없는것이다.

그럼에도 선행고전의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수령을 개인으로 간주한 일부 나라들에서는 령도의 계승문제를 단순히 최고직책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식으로 대치하였다. 결과 야심가, 우연분자들이 최고지도부에 끼여들고 후계자의 지도체제가 바로서지 못하여 배신자들에 의해 당과 국가가 롱락당함으로써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엄중한 사태가 초래되였던것이다.

공화국에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위업계승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사소한 편향이나 우여곡절도 없이 장구한 기간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

끌어올수 있었다.

이 땅우에 혁명위업계승의 새 시원을 펼치시여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앞날을 열어주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부터 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필연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것을 착실히 준비하여오시였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비범한 능력과 자질,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훌륭히 갖춘 후계자를 내세우고 그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놓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가장 고귀한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만년민족사의 대국상과 전대미문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으로 조국과 인민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그때에도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는 견결한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모든 사업을 오직 수령님식대로, 0.001㎜의 편차도 없이 진행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여 수령님의 불멸의 태양상으로 숭엄히 빛나는 사회주의붉은기를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로 줄기차게 이어놓으시였다.

오늘 공화국은 자기 조국을 가장 존엄높고 번영하는 강대한 나라로 일떠세우실 세상에서 제일 젊고 위대하신 령도자를 모시고있다.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시작과 더불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며 선대수령들의 한생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사회주의국가정치체제를 지속적으로 공고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령도자로서 지녀야 할 특출한 실력과 풍모를 갖추고있으며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고계시는 신념과 의리의 최고화신이시다.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전진시켜야 할 령도자의 풍모와 자질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출중한 용모에 있어서나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고결한 인품과 덕망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같으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처음으로 뵈웠을 때 우리 인민은 물론 온 세계가 《청년 **김일성**주석의 모습과 많이 닮았음을 알수 있다.》, 《미소짓는 모습은 **김정일**국방위원장 그대로인듯 하다.》라고 격찬하였듯이 환하신 그이의 모습은 선대수령들의

자애로운 모습 그대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놓으시는 불후의 로작들을 읽어보아도 인민의 심금을 울리는 가장 평범하고 통속적이면서도 자자구구에 심오한 철학적진리가 담겨있는 수령님식, 장군님식문풍이 구현되여있고 활달한 필체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쓰시던 《백두산서체》이다.

세인이 열렬히 흠모하고 칭송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은 선대수령들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계시는데서 가장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조국과 민족을 광명한 미래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심장속에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깊이 간직되여있다.

그이께서 절세위인들의 구상과 념원이 현실로 꽃펴난 모습을 보실 때마다 자주 외워보군 하시는 말씀이 있다.

— 우리 수령님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습니까.

— 장군님께 이 기쁜 소식을 어서빨리 알려드립시다.

문명의 바다, 행복의 별천지를 펼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찾으시였던 지난해 12월의 그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예로부터 온천으로 유명한 양덕지구에 문화휴양지를 꾸려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리게 되였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고 빛내여오신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은 과학이며 그 승리도 과학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그 숭고한 뜻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태양의 성지로 더욱 숭엄히 꾸리고 전국도처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국가의 영원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도록 하신 것을 비롯하여 수령영생위업실현을 위한 중대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시여 인민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은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을 새겨주시였다.

수령영생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위업의 빛나는 계승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주체위업수행의 유일하고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엄숙히 천명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주체위업의 명맥을 견결히 고수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줄기찬 전진을 확고히 담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추진하여 기어이 사회주의최후승리를 안아오시려는 그이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창조와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실력가형의 령도자이시다.

사회주의건설은 인류력사발전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변혁이다. 이 위업을 대를 이어 이끌어나가는것은 당과 국가의 최고공직을 지니면 누구나 감당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탁월한 령도력과 비범한 실력을 갖춘 걸출한 위인만이 걸머질수 있고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갈수 있는 명실공히 위인의 위업이다.

오랜 기간 위대한 수령님들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해온 공화국의 한 저명한 국가활동가는 자기의 회상록에서 이렇게 쓴바 있다.

《나는 한생토록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슬하에서 혁명을 배워온 로전사로 자부해왔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풍모를 접할 때마다 그처럼 젊으신 그이께서 철학과 정치, 경제와 군사, 과학기술과 문화뿐아니라 스쳐지나갈수 있는 인간생활세태에 이르는 다방면적이고도 완벽한 실력을 언제 어디에서 쌓으시였는지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그이께서 수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면 마치 수령님곁에서 한생을 같이 보내신것 같고 그이께서 장군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면 또 장군님의 한생을 직접 체험해보신듯 하다.

어떤 때는 정말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환생하시여 이전과 같이 가르치심을 주시는것만 같다.》

다재다능하고 다문박식하신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모신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대로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담보

로 된다.

제국주의의 폭제와 전횡이 살판치는 현시대에 탁월한 정치가로서뿐아니라 령장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겸비한 장군형의 령도자를 또다시 모신것은 조선인민의 가장 큰 행운이며 영광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사사업뿐아니라 경제사업과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부문사업, 외교사업 등 나라의 모든 부문 사업을 막힘없이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는 만능의 실력을 지니고계신다.

김정은동지는 자기의 실력으로 인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당의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갈것이라는데 대하여 그렇게도 확신에 넘쳐 교시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예언 그대로이다.

실력가형의 령도자로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풍모는 비범한 정치적안목에서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21세기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들이 천만갈래로 착잡하게 뒤엉켜있을뿐아니라 예상치 않던 사변들이 무수히 발생하는 매우 복잡다단한 세기이다. 때문에 명석한 통찰력과 판단력의 소유여부는 현시대 국가지도자들의 정치실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징표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과학적인 분석판단력으로 복잡한 정황과 사태들의 본질과 진상을 환히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가장 옳바른 전략전술과 방침을 제시하고 사전에 면밀한 대응책을

세워나가시는 탁월한 정치가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뛰여난 예지는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전략전술적기도도 그 진의를 즉시에 꿰뚫어보고 앞질러 제압분쇄하시는데서도 과시되고있으며 조성된 대내외형편에 대한 명철한 분석과 상승발전의 지름길이 명시되여있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보고에서도 절감하게 된다.

령도자의 정치적령도는 사상적령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빛나는 예지로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백승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는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다. 주체의 사상리론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활동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리론적결핍이나 사소한 로선상오유도 없이 부단히 전진하고 위대한 시대사상의 조국으로 끝없이 빛을 뿌리고있다.

제시한 로선과 정책관철을 위한 사업들을 옳바로 설계하고 작전하며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현실로 전변시켜나가는것은 령도자가 지녀야 할 령도실력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사업에서 언제나 비상히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며 전당, 전민, 전군을 불러일으켜 일단 결심하고 시작한 일은 그 어떤 극난한 조건에서도 단숨에 실현하고야마는 탁월한 작전가, 실천가이시다. 또한 무엇을 하나 해놓아도 기존공식이나 관례에 구애됨이 없이 혁신적으로, 세계를 굽어보고 멀리 앞을 내다

보며 최상의 수준에서 창조해나가도록 이끄는 특출한 령도력을 지니고계신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해동안에 순탄한 시기에도 엄두를 내기 힘든 거창한 사업들이 련이어 펼쳐지고 경이적인 사변들과 비약적혁신이 다계단으로 이룩되였다. 이 나날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력에 대하여 심장깊이 절감하였으며 그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아름다운 미래는 최대로 앞당겨지리라는것을 확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언제나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가시는 멸사복무의 최고귀감이시다.

언제나 인민과 함께, 뼈를 깎고 살을 저며서라도 인민의 행복을 더해주자, 이것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인민의 한 성원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삶의 좌우명이다.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를 마련해주고 지켜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기뻐하는것을 보는 멋에 혁명을 하는것 같다고 조용히 외우군 하시였다. 그것은 단순히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다는 긍지와 만족감이 아니다. 인민의 아들로서 인민을 위해 헌신하였다는 행복감, 인민의 믿음을 지키였다는데서 오는 행복감,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것으로 하여 부풀어오르는 무한한 행복감이다.

위대한 인민의 충복, 자애로운 어버이의 천만로고를 자양분으로 하여 이 땅우에는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담보하는 자랑찬 결실들이 수없이 이룩되고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리상사회의 자태가 날로 선명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은 그 어떤 직책상의무이기 전에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도덕의리이고 형언할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일편단심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여온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살게 될 후손들에 대한 책임성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이 숭고한 사명감은 그이의 하루하루가 보통의 국가지도자들의 몇달, 몇년과 맞먹는 초인간적인 정력과 로고로 수놓아지고 조국땅우에 우렁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때로부터 불과 8년동안에 공화국은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과 변혁을 이룩하였는가.

웅장화려한 건축물들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신화적인 속도로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라 나라의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와 더불어 새 문명을 향유하는 인민의 생활은 나날이 더욱 아름답고 풍만해졌다. 남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수십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군력강

화의 대업을 불과 5년만에 성취하는 민족사의 특대기적을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미증유의 고난과 시련속에서 불과 몇년사이에 일어난 일들, 그래서 세계가 《만물을 창조했다는 조물주도 이루지 못할 기적》이라고 경탄과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조선의 자랑찬 오늘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루시였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가시는 민족의 걸출한 령수,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 강철의 령장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원수님을 사회주의조선을 이끄실 령도자로 시대와 력사앞에 내세워주시여 조선의 영원한 미래를 열어놓으신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쌓으신 업적중의 최대의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계승의 력사가 변함없이 흐르고 대대로 수령복을 누려가는 공화국은 존엄높고 륭성번영하는 불패의 사회주의국가, 인류의 자주위업을 선도해나가는 정의의 강국으로 무궁토록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전통, 빛나는 계승

사회주의조선의 발전로정은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전통을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하여 승리떨쳐온 자랑찬 력사이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조선혁명의 개척과 더불어 창조되고 련면히 계승발전되여온 공화국의 유일무이한 전통이며 여기에는 창조와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사상과 정신, 업적과 경험, 방법을 비롯한 모든것이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밑에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전통은 부강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모든 단계, 모든 형태의 투쟁에서 불멸의 생명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힘있는 무기이다.

조선혁명은 그 간고성과 복잡성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어려운 투쟁이다. 제국주의강적들을 상대로 벌린 혁명전쟁과 전후복구건설, 고난의 행군을 비롯하여 준엄한 년대마다 조선인민이 언제나 백승을 떨칠수 있은것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왔기때문이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사대와 굴종으로 수난많던 조선인민을 자주정신이 강한 인민으로 키운 사상적무기이며 약소국이던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한 힘있는 추동력이다. 공화국에 있어서 백두의 혁명전통이 억만금을 주고

도 얻지 못할 만년재보, 대백과전서로 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백두의 혁명전통과 같은 위대한 전통을 가진것은 조선인민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이며 영광이다.

창조와 건설의 전기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전통교양을 주체위업완성을 위한 최우선중대사, 초미의 과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왔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오가잡탕을 끌어들이고 혁명전통교양을 음으로양으로 방해하여나선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원칙적인 투쟁을 통하여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였으며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선렬들의 숭고한 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워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왔다. 공화국에서처럼 혁명전통과 관련한 학술체계, 교양체계가 정연하게 서있고 교양조건들도 충분히 갖추어져있는 나라는 찾아볼수 없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는 더욱더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사상의식은 유전되지 않으며 선진적인 전세대가 있다고 하여 그뒤를 이은 후대들이 저절로 자라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소홀히 하여 새 세대들의 넋과 정신이 흐려진 결과 체제붕괴의 진통을 겪고 사상의 변색을 초래한것은 력사가 남긴 심각한 교

훈이다.

혁명전통은 당과 국가의 만년초석이고 력사적뿌리이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피줄기이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에 병이 들고 나중에는 말라죽고마는것처럼 지난 기간의 성과에 자만도취하여 순간이라도 전통의 계승을 망각한다면 나라가 병들고 창조와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새 세대들을 사상정신적풍모에 있어서나 투쟁기풍에 있어서 항일혁명선렬들의 높이에 이르게 하자는것이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데서 조선로동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내세우는 중요한 목표이고 방침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적극 추진되는 력사적행정에서 세계정치구도와 사회계급관계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주력으로 등장하고있는것을 기화로 공화국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허물어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오늘의 환경에서 백두의 혁명전통에 관통되여있는 위대한 사상과 정신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주체위업의 대를 이어놓는 중요하고도 사활적인 문제, 전략적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오늘날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고 사회주의건설의 활로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가고있는 공화국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로 나서는것이 바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백두산공격정신을 체질화한 견결한 투사들로 준비

시키는것이다.

백두산공격정신은 적대세력들의 방해와 도전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게 하는 강위력한 보검으로 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하여 단 한치의 후퇴나 방어도 없이 정면으로 돌진해나가는 투철한 자주의식의 발현이 다름아닌 백두산공격정신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였으며 이 과정에 나라와 민족의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와 전통을 마련하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였지만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정신으로 싸워야 자주권을 고수할수 있다는 진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백두산공격정신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부강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현정세는 공화국이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자력갱생정신을 더 높이 발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부강조국건설에 일떠선 조선인민에게 절실한것은 자금이나 외부적지원이 아니라 숭고한 임무를 스스로 걸머지고 수행하려는 높은 책임감, 오늘과 래일을 다 같이 안고 정확히 개척해나가려는 지혜와 용기이다. 그 누구

의 도움이나 원조도 없이 적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을 갖추고 밀림속의 병기창에서 맨 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원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며 자력독립의 기치를 추켜든 혁명의 1세들처럼 제힘을 굳게 믿고 공격전을 벌린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도 창조할수 있다는것이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관통되여있는 철의 진리이다.

백두산공격정신은 원대한 목표와 숭고한 리상을 하루빨리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숭고한 리상은 확고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원쑤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서도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였고 백두광야의 빙천설지에서 풍찬로숙하면서도 조국과 민족의 밝은 전도를 락관하였다. 억척같은 그 신념의 근저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굳건한 믿음이 자리잡고있다. 오직 **김일성**장군님 한분만을 민족의 태양으로, 구세주로 우러르며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한 혁명선렬들처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칠 때 주체조선의 제일국력인 일심단결은 백배해지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백두산공격정신, 여기에는 혹독한 도전과 격난을 맞받아뚫고 불멸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온 조선혁명사가 함축되여있고 자기 힘, 자기식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

할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는 백두산공격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의 선차적이고도 필수적인 공정으로 된다.

백두산지구는 혁명전통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재보들로 가득찬 대로천박물관, 국보중의 국보이다. 유서깊은 이곳에는 백두산밀영, 무두봉밀영, 간백산밀영과 같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밀영들과 숙영지들, 구호나무들이 많고 보천보전투, 간삼봉전투와 같은 중요전투들이 벌어진 전적지들도 많다. 혁명시인 조기천이 장편서사시 《백두산》에서 격조높이 구가한것처럼 백두대지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조약돌 하나에도 강도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피흘려 싸운 투사들의 넋이 생생히 깃들어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회주의조선의 력사와 뿌리, 선렬들의 투쟁업적에 대해 더 잘 알려면 누구나 만고의 항쟁사가 깃들어있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와보아야 한다.

지난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단행하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군마행군은 온 나라에 혁명전통교양의 된바람을 일으키는데서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 여러날에 걸쳐 눈보라 사나운 백두전구를 종횡무진하시며 빨찌산의 피어린 력사를 뜨겁게 추억하시고 모닥불에 얼어든 몸을 녹이며 불굴의 혁명신념을 가다듬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전체 인민들에게 어떤 각오와 의지, 마음가짐으로 오늘의 정면

돌파전에 나서야 하는가를 깨우쳐준 귀감으로 되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정신, 백두산공격정신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로를 열어제끼자는것은 우리 당의 결심이며 확고한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이번에 시간을 따로 내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본것은 장구하고 간고한 우리 혁명의 전략적 요구,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압박책동속에서 당이 제시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로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총매진해나가고있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더 강화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선렬들이 지녔던 투철한 신념과 정신은 구호나무의 글발이나 회상기의 갈피에만 남아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다. 투사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며 백두산정신으로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시려는것이 그이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그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벌써 몇해전에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게 하시고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

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 전체 인민이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속에 안고 살도록 하시였다.

지난해 뜻깊은 군마행군길을 이어가시면서도 그이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열풍을 끊임없이 고조시켜 그것이 고유한 국풍으로, 강국건설의 강위력한 전진동력으로 되게 하기 위한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혁명전적지답사를 지나간 력사적사실을 추억이나 하는 식으로, 관광식, 유람식으로 하여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답사행군을 통하여 선렬들이 겪은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간고한것이였는가 하는것을 실지 체험할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꽃피는 봄날보다도 눈바람 부는 겨울철에 백두산에 올라야 한다.

백두대지의 진짜자태는 엄혹한 겨울에 드러난다. 겨울철에 답사를 하여야 이 세상의 모든 눈바람도 그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돌아섰다는 전설이 깃든 백두의 칼바람맛이 어떤가 하는것을 알수 있고 그 추위가 얼마나 혁명열을 더해주는가를 체험할수 있으며 항일투사들이 지녔던 강인성, 투쟁성, 혁명성을 따라배울수 있다.

백두의 칼바람은 단순히 자연의 바람이 아니다. 이는 백두산의 상징이고 백두를 그대로 닮은 조선의 억센 기상이다. 백두산을 알고 조선을 알려면 누구나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맞아보아야 한다.

귀뿌리를 도려내는듯 한 강추위를 뚫고 무릎을 치는 생눈길을 헤치며 백두산정에 오르느라면 백두의 억센 기상으로 조선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한평생이 눈앞에 어려오고 설한풍속에서 죽어도 변치 않는 강의한 신념을 벼리고 다져온 항일빨찌산의 고결한 넋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지동치듯 몰아치는 백두의 돌풍을 한몸에 맞느라면 우리 민족을 영영 없애버리려고 기승을 부리는 모진 살풍을 산산이 쳐갈기며 솟구쳐오르는 조선의 담대한 배짱과 정신력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게 된다. 이 모든것을 백두의 칼바람은 안온한 서재나 교정에서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지 체험을 통해 깊이 깨우쳐주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군마행군을 단행하신 직후 혁명전통교양, 혁명정신무장의 된바람이 일어번졌다. 지난해 12월 사상전선의 척후병들인 당선전일군들로 조직된 수백명규모의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가 남먼저 백두산으로 향한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행군대오가 붉은기를 휘날리며 백두산답사의 길에 올랐다. 지난해말부터 올해 4월말까지의 겨울철 답사기간에 전국적으로 5만 6 000여명, 6월부터 7월까지의 여름철답사기간에 1만 6 000여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인민군장병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다녀간 사

실은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는 답사열기를 잘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12월 삼지연시꾸리기 2단계공사가 결속되여 교통조건과 숙소조건 등 편의보장조건들이 훌륭히 개선됨으로써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보다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는 조건들도 원만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10대의 시절에 개척하신 백두산에로의 답사행군길.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로 멍든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선은 죽지 않았으며 조선의 정신과 심장도 살아있음을 깨우쳐주시던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의 모습이 력력히 새겨져있는 보천보에서 시작되여 장쾌한 해돋이광경을 펼치는 백두산정에로 이어지는 수백여리의 답사행군로정은 한걸음한걸음이 신념과 의지를 키우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하나의 혁명대학과정안, 《백두산대학》으로 되고있다.

백두산으로 향한 행군대오안에 꽉 차넘치는것은 그 어느것이나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기풍, 생활기풍이다. 이 모든것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와 영화를 통해 그려보던 투사들의 강의하고 고상한 넋과 정신이 새 세대들에 의해 그대로 재현되는 과정이다.

머나먼 행군길에 발은 부르트고 찬바람에 입술은 터갈라져도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결심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이라고 항일선렬들이 부르던 노래와 《한생토록 가리

라 대를 이어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라고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행군대오는 백두산으로 오른다. 환희와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백두의 숭엄한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답사자들은 조선의 영광과 행운의 새 아침이 밝아온 력사의 땅에 서있다는 가슴뿌듯함과 힘겨웠지만 보람찼던 답사의 나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비록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그것을 뚫고나갈 투지와 자신감에 넘쳐있게 된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의 나날은 비록 길지 않다. 그러나 이 과정에 온몸으로 체득한 모든것들은 평범한 날에는 얻을수 없는 귀중한 체험으로, 인생의 값진 재부로 되고있다.

백두산에서 다진 결의를 지켜 영원히 《백두산대학》의 최우등졸업생으로 살려는 굳은 각오와 결심이 일상생활과 실천활동속에서 높이 발현되는 과정에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하며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열혈충신들의 대부대가 억세게 자라나고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으며 사회전반에 항일빨찌산의 열정적이며 전투적인 기백과 랑만이 차넘치고있다.

백두산정신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사조도 아니고 어려울 때 의지하다가 풍족할 때 망각해도 되는 그런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늘의 고난속에서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하지만 모든것이 풍족한 날에도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것이 바로 백두의 혁명전통이고 그에 관통되여있는 위대한 사상과 정신이다.

최근 삼지연지구가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고 혁명전통교양의 중심지, 실체험지, 대전당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진것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받아안고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조선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절대불변의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오늘 국제사회에서는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여 자랑찬 승리만을 떨쳐가고있는 공화국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쿠웨이트신문 《알 안바》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이 강한 나라로 세계에 비쳐지는것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 위대한 정신의 빛나는 계승에 그 비결이 있다.

김정은령도자를 모시고 전세대들의 혁명정신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조선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강국으로, 자주의 성새로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려있는 백두산정신으로 조선을 이끌어나가시는 탁월한 령도자가 계시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충직한 인민이 있기에 사상적혈통, 신념의 피는 굳건히 계승되고있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순결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은 앞으로도 불멸의 생명력과 무궁무진한 위력을 높이 떨쳐나갈것이다.

영웅청년과 조선의 래일

오늘 공화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그 이름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청년강국!

장구한 인류력사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출현한이래 강국을 일컫는 각이한 부름과 명성들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처럼 활력있고 청신하며 열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름은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시대에도 있어본적이 없었다.

이것은 부강조국건설의 전 로정에서 청년들을 중시하는 정치가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되고 청년들이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떨쳐가고있는 자랑찬 현실이 안아올린 조선의 새로운 이름이다.

사상과 정신이 건전하며 단결되고 열정에 넘친 청년대군의 무한대한 힘에 의해 사회가 들끓고 눈부시게 약동하는 나라, 그것으로 하여 끝없이 밝고 양양한 전도를 가진 나라임을 뜻하는 이 부름은 조선에서 청년운동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있으며 청년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였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의 뚜렷한 발현으로 된다.

오늘도 공화국에서는 청년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내세워주는 조선로동당의 정치가 세기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펼쳐지고있으며 어느곳에 가보아도 훌륭한 젊은이들의 패기와 열정이 용솟음치고 창조와 건설의 제일 중요한 초소, 가장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마다에서 청년들이 위훈의 창조자, 시대정신의 기수로 용맹떨치고있다. 인민이라는 부름이 어디에나 있듯이 청년이라는 명칭이 무수히 많은것이 조선의 참모습이고 들끓는 시대적분위기이다.

지금 세계는 환경위기, 식량 및 에네르기위기, 물위기와 같은 21세기의 난문제들에 직면하여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최대의 난문제는 청년들이 정신도덕적으로 오염되고 부패타락하여 앞날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있는것이다.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그 민족의 장래는 앞날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많이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청년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문제가 해결전망이 보이지 않는 세계적인 난문제로 치부되고 수많은 나라들에서 젊은 세대들이 사회의 우환거리, 골치거리로 취급당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한마디로 청년들을 옳바로 키우는데 필요한 사회적토양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못하기때문이다.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을 튼튼히 준비시키자면 청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높은 안목을 지니고 옳바른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는 정치지도자가 있고 청년들의 성장에 건전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여있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정연한 국가적교육교양체계와 본보기로 삼을만 한 앞선 세대의 모범과 전통 그리고 청년운동의 풍부한 경험도 필수적이다. 말그대로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에라야 비로소 해결될수 있는것이 청년문제이다.

그러면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나라가 있는가.

일전에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유럽의 어느 한 대학교수는 조선청년들이 지니고있는 특유한 인격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 이런 청년들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국보로 떠받들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이런 국보급의 청년들이 500만이나 됩니다. 주체의 조선, 사회주의하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말속에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훌륭한 청년들에 대한 찬탄과 그들을 키워낸 공화국에 대한 동경과 선망의 감정이 담겨져있다.

공화국은 후비대육성의 비옥한 사회적토양을 가지고있다.

이 행성에 청신한 기운과 활력을 안아오는 청춘의 나라 사회주의조선은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가꿔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경륜을 그대로 이어가시

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존엄높은 나라이다. 서로 돕고 이끌며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나라,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이다. 후대들의 밝은 웃음을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으뜸의 재부로 여기는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별천지이다. 청년중시를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이룩한 조선청년운동의 고귀한 전통과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청년문제해결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나라가 다름아닌 사회주의조선이다.

그 손길아래 자라난 조선청년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의 체현자들로 되고있다. 다른 나라의 청년들이 돈벌이를 위해 이민의 길을 떠날 때 공화국의 청년들은 화려한 도시생활도 마다하고 두메산골과 섬마을의 학교로 진출하고 탄광, 광산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로 탄원하여 청춘시절을 값높은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의 손자, 손녀가 되고 자기 자식을 안아보기도 전에 부모잃은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여주는 청년들, 사경에 처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피와 살도 아낌없이 바치고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 하는 청춘남녀들도 많다. 물에 빠진 생면부지의 어린이들을 구원하거나 불붙는 살림집에 뛰여들어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지켜내는 훌륭한 일을 하고도 주소성명 하나 남기지 않은 젊

은이들, 위급한 순간에 한몸 서슴없이 내대여 동지들의 위험을 막아나선 고결한 희생정신의 소유자들은 또 그 얼마인가!

다른 나라들에서는 좌절과 실패, 외로움과 무기력, 불행과 고통의 동의어로 되고있는 청춘이라는 부름이 공화국에서는 승리와 성공, 창조와 위훈, 아름다움과 미덕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영웅청년신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부대, 백두청춘, 창조의 거인, 시대의 영웅, 청년미풍선구자…

이렇듯 미덥고 자랑스러운 새 세대들의 모습에서 조선인민은 무한한 긍지와 기쁨을 느끼고있으며 세상에 없는 청년복을 소리높이 자랑하고있다.

무릇 사람들은 자식복은 타고나는것이 아니라고 말하군 한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 한 민족의 《자식복》이라고 할수 있는 청년복 역시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도 오만자루의 품이 들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하물며 온 나라 청년들을 키우는데 드는 품과 공수는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그를 키운 훌륭한 어머니가 있듯이 조선청년들의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의 손길이 력력히 어려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는 훌륭한 계승자의 대부대를 안아키운 자양분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일찍부터 청년문제를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보고 그 해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청년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차대한 전략적문제이며 청년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은 곧 청년들을 새 사회건설의 역군으로, 민족의 장래운명을 책임질 계승자로 준비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청년문제해결에서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가장 선차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로 된다.

사람의 성장과정에서 청소년기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이때에 받은 교양은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만일 사상정신적무장의 중요성을 홀시한다면 청년들의 성장발전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그들이 계승자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것이 인류정치사가 남긴 심각한 교훈이다.

이전 쏘련작가 니꼴라이 오스뜨롭스끼(1904—1936)의 자서전적작품인 장편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생이다. 생은 사람에게 단 한번밖에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목적없이 산 지난날때문에 뼈저린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비굴하고 너절한 과거때문에 치욕을 맛보지 않도록 그리고 죽으면서도 일생의 모든 힘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인류해방을 위한 투쟁에 바쳤다고 긍지높이 말할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소설의 주인공 빠벨 꼬르챠긴이 희생된 렬사들의 묘지앞에서 다진 결의이다.

1930년대 전반기에 창작되여 여러 나라들에서 번역출판된 이 소설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이전 쏘련공민들 특히 청년들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난관극복의 정신으로 교양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유명무명의 수많은 공청원들이 무비의 용감성과 애국주의정신을 발휘하여 파쑈도이칠란 드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을 수호하였으며 씨비리로, 돈바쓰로 달려가 도시와 발전소를 일떠세우고 탄광과 광산을 개발하며 강대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는데서 커다란 위훈을 세웠다.

그러나 사회주의배신자들이 일으킨 《자유화》바람과 제국주의자들이 몰아온 《세계화》의 광풍에 휩쓸려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이 홀시된 결과 젊은 세대들이 점차 비사상화, 비조직화되고 극도의 향락주의에 물젖게 되였다.

《청춘이란 향락의 시절이지요. 마음껏 자유를 누려야 하고 쾌락을 누려야 하며 마음껏 꿀맛을 보아야 하는 시절, 이를테면 나를 위해 미래가 있는 시절이지요. …》

어느 한 사회주의나라가 해체되기 전에 그 나라의 병사가 《당신은 청춘이란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한 답변이다.

땅도 그 땅,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사상교양사업의 중요성

을 무시하여 빚어진 세대간 격차, 의식수준에서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아득해졌다. 자기의 사명을 망각한 청년들이 할아버지, 아버지세대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모든것을 부정하고 자기들을 키워준 사회주의제도에 반기를 드는데 앞장섬으로써 강력하던 사회주의국가정치체제가 계승성을 잃고 붕괴되는 사태가 초래되였다.

후대들에게 물질적재부를 창조하여 넘겨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사상정신적유산을 물려주는것은 그보다 몇갑절 더 중요하다. 이것이 결여될 때 미래를 잃고 정신문화와 재부를 바로 계승할수 없게 된다는것은 명백하다.

특히 고생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주력으로 등장하고 그들을 노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공세가 가증되고있는 오늘의 환경은 청년교양을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주의를 조락시키기 위한 방략을 수립하는데 몰두하여온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기대를 걸고 그들을 변질, 부패시켜 파렴치한으로, 조용한 세계주의자로 만들어야 한다.》, 《문화확장과 침투의 방법으로 사상의 종자를 심어놓으면 그 종자는 조만간에 평화적이행의 꽃망울로 피여날것이다.》라고 제창하면서 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부패변질시키기 위한 사상문화적침투에 집요하게 매달려왔으며 특히 단련이 부족하고 시련을 겪어보지 못

한 새 세대들에게 그 예봉을 돌리였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끈질기게 감행되고있는 제국주의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은 공화국에 대한 심리모략전에서 가장 극악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지난날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침략의 길잡이였다면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을 놀고있다. 일심단결의 성새를 이루고 무적의 군력을 보유한 사회주의조선의 정치군사적위력앞에 당황망조한 서방진영은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를 사상문화적침투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찾고 비렬한 모략과 수단을 총동원하고있다.

하지만 이것이 조선에서도 통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오산이다.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강화될수록 그를 격파분쇄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전례없는 폭과 심도를 가지고 공세적으로 벌어지고있는 현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시기 공화국에서는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깨뜨릴수 있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중시의 지론을 높이 받들고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이 청소년교양을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꾸준하게, 첨입식으로 주도세밀하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시대의 계주봉을 넘겨받아야 할 성스러운 사명을 지닌 계승자들의 행군대오가 붉은기를 휘날리며 민족의 성산 백두산으로 대하마냥 도도히 굽이치고있다. 청년운동사적관을 비롯한 사상교양의 거점들이 훌륭히 꾸려졌으며 로세대들

이 후대들에게 사상정신적유산을 넘겨주는것을 그 어떤 물질적재부의 상속에도 비할수 없는 자기 세대의 신성한 의무로,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는 사회적기풍이 오늘도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고있다.

공화국의 학생소년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는 노래 《제일 좋은 내 나라》의 《태여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이라는 가사에도 있듯이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드는 공화국에서는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이 한걸음 떠지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떠진다는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어린이보육교양체계와 무료의무교육을 비롯한 후대사랑의 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미래를 사랑하라!》라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이 공고한 사회적기풍으로 되고있는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조선이다.

자식이 귀하고 잘되기를 바란다면 어루만지면서 곱게만 키울것이 아니라 세상도 알게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하여 꿋꿋하게 자라도록 단련시켜야 한다.

귀중한 청년들을 응석받이 귀동자, 귀동녀가 아니라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당당한 역군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큼직큼직한 일감들도 선참으로 맡겨주며 위훈창조의 맨 앞장에

내세워주는 그 마음은 얼마나 웅심깊은것인가.

청년들은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는 성새, 방패가 되여야 한다.

청년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는데서 결사대가 되여야 한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여야 한다.

청년들은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

공화국의 청년들은 어머니조국의 이 신성한 부름앞에 말로써가 아니라 언제나 한몸을 내대며 열렬히 화답해나서고 있다.

물불을 가리랴, 어머니당의 부름에!

이것은 어제도 오늘도 이 땅의 피끓는 청춘들이 터치는 신념의 맹세이다. 이 맹세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전위들이 조국보위초소와 과학문화부문, 수천척 지하막장을 비롯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침으로써 온 나라가 청년판으로 들끓게 하고 있다. 거창한 창조와 위훈의 불길속에서 조국과 인민앞에 무한히 충실하고 자기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한 계승자의 대부대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되고있다.

오늘 세계적으로 청년문제를 관심하는 나라들은 있어도 청년중시를 당과 국가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고 일관하게 실현해나가는 나라는 없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인구와 령토, 자원 그리고 군사경제력이나 문명수준 등 자연지리적조건이나 사회생활의 어느 개별적분야의 발전정도를 놓고 국가의 흥망을 론하였다. 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자연부원이나 외자도입, 인재의 양성 등에 의거한 강국건설방도를 모색하였을뿐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잇닿아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청년문제를 옳바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청년들은 미래의 주인공, 계승자인 동시에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 주력군이다. 조국을 지키고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키며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데서 주력을 이루는것은 열백밤을 지새워도 지칠줄 모르고 패기와 열정이 용솟음치는 청년들이다. 사회발전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을 담당한 선봉대, 미래의 운명까지도 걸머진 골간부대, 청년이라는 사회적집단이 튼튼히 준비될 때 부강조국건설이 가속화되고 민족의 창창한 전도가 열리게 되는것이다.

청년문제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적문제로 보고 그를 빛나게 해결한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천리혜안의 비범한 통찰력과 정확한 령도력이 안아온 거대한 업적이 있다.

오늘 공화국의 500만 청년전위들은 또 한분의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를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행복감에 넘쳐있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청년들이 나아갈 진로를 뚜렷이 명시하시고 청년중시를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천명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청년동맹의 명칭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존함을 함께 모시도록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이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청년사랑, 청년중시의 경륜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조선의 청년들이 받아안은 무상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청년들이 해놓은것이라면 그 무엇이나 다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자랑스럽고 미더운 청년들을 백두청춘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이 꽃피운 문화를 영웅청년문화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청년들이 발휘한 투쟁정신과 기풍을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명명해주시여 온 나라가 본받아야 할 시대정신으로 빛내여주시였다.

못난 자식, 병든 자식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마음을 쓰시며 백만자루, 천만자루 품을 들여 길을 잘못 들었던 청

년들, 낳아준 부모조차 도리머리를 저었던 죄지은 인생들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의 길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절세위인의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속에 천군만마의 기상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갈 영웅청년의 대부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부대가 억세게 자라났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지만 조선의 청년들처럼 령도자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성장하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청년들은 없다.

오늘 조국땅우에는 우리의 젊은 힘 뻗나니, 김장군 두리에 뭉치자, 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조선청년의 행진가가 높이 울려퍼지고 청년강국의 주인공이 된 긍지와 자부심이 500만 영웅청년대군의 심장속에서 활화산처럼 분출하고있다.

진정한 강국은 오직 미래를 사랑하는 나라만이 건설할수 있다. 그 나라가 바로 청년중시전략을 실현해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이다.

람홍색 그 빛은 누리를 뒤덮으리라

한페지의 훌륭한 력사는 1 000페지의 시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애국의 열정과 민족의 기개를 높이 떨치며 용진 또 용진해나가는 조선인민의 헌신적노력에 의해 이룩되고있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성과들은 그대로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긍지높이 빛내이는 위대한 서사시적화폭들이다.

자주와 정의를 갈망하는 진보적인류에게는 희망의 등대가 되고 력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리려는 적대세력에게는 충격과 공포를 안기며 끊임없이 펼쳐지는 경이적인 현실들은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투철한 신념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는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다. 아름다운 리상과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해야 하는 가장 어렵고도 복잡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무한한 힘과 열정, 필승의 락관주의에 의하여 힘차게 다그쳐지게 되며 이 모든것의 근본바탕으로 되는것이 바

로 신념이다. 신념이 없다면 끝까지 갈수 없는것이 사회주의 강국위업의 완성을 위한 길이다.

오늘 공화국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는 하나의 구호가 있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항일의 선렬들이 혈전만리에 피로써 새긴 신념의 이 글발은 오늘도 후대들의 심장속에 살아 삶과 투쟁의 고귀한 진리를 깨우쳐주고있다.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일터마다에서 우렁찬 구호의 함성으로 메아리치고 숭엄한 노래의 선률이 되여 널리 불리워지면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백배해주고있다.

조선인민이 지닌 견결한 신념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가장 굳건한것으로 되고있다. 물론 부족하고 곤난한 애로와 겹쌓이는 장애도 최악의것이지만 앞날을 위한 준비는 그보다 더 강하며 갈길은 멀고멀어도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신심으로 전례없이 충만되여있기에 밝아올 래일을 확신하는 인민의 마음은 지심깊이 뿌리내린 백두산악처럼 역경앞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 그 어떤 장애와 도전도 더 큰 용기와 신심, 비상한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에로의 진군을 개시한 우리 공화국의 힘찬 전진을 멈춰세울수 없다.

대하마냥 도도히 굽이치는 총진군대오의 진두에 승리와 영광의 기치가 세차게 나붓기고있다.

장장 70여년세월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변색과 퇴색을 모르고 열정, 미래, 승리로 빛발치며 창공높이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는 인민의 락원,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강국건설대업의 위대한 승리도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영원불멸할 이 기발아래서 맞이하게 될것이다.

눈은 현실을 보지만 신념은 미래를 본다.

눈속에 묻힌대도 푸른빛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부서져 가루돼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열백번 불에 타도 곧음을 잃지 않는 참대처럼 불굴의 신념을 간직한 영웅적인민은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한다.

찬란히 새겨진 그 별은 승리로 빛발치여라!

눈부신 람홍색 그 빛은 누리를 뒤덮으리라!

전도가 양양한 나라

저　자　　리 철 민, 황 룡 주
장　정　　리 성 일
교　정　　김 철 준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9(2020)년 11월 2일
발　행　　주체109(2020)년 11월 5일

ㄱ—1487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27—2

지구상에는 수백을 헤아리는 나라들이 있지만 사회주의조선과 같이 국가정치전반에 자주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력력히 맥동치고 온 사회가 혼연일체를 이룬 나라, 인민을 가장 신성시하고 그를 위해 멸사복무하는것이 국풍으로 되고있는 나라를 력사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한 기적의 나라, 계승성이 확고한 나라는 이 세상에 오직 사회주의조선뿐이다.

ISBN 978-9946-31-127-2

9 789946 311272